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11월 12일 수요일 (주간) 제 447 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탱화의 변신 … "시대상 담는다"

노트북 등 현대문물 등장 사찰 새 문화로

신장들 칼 · 도끼 대신 미사일 무장
2002 월드컵 기념 축구공 등 삽입
전통채색기법서 탈피 유화 탱화도

'호법신장들이 노트북을 통해 사바세계의 정보를 파악하고 휴대전화로 중생들과 의사소통을 한다.'

노트북, 미사일, 방독면, 축구공 등 현대 문물들이 탱화 속에 등장하고 있다. 낯선 모습이지만 흥미롭다. 이렇게 시대상을 반영한 탱화들이 서서히 새로운 사찰문화로 확산되고 있다.

대구 영남대학교 · 관음사가 11월 1일 영남불교대학 3층 대법당에 봉안한 신중탱화를 비롯해 수원 용주사 대웅부전의 감로탱화, 도피안사 대웅전의 300나한 유화탱화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관음사 신중탱화에는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들이 노트북과 미사일, 방독면 등 최첨단 무기를 들고 서있어 눈길을 끈다. 용주사 감로탱화 역시 이색적이다. 작년에 봉안된 이 감로탱화는 '2002 한 · 일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해 우측 상단에 축구공을 그려 넣었다.

또 도피안사의 300나한 유화탱화는 전통탱화 제작기법을 탈피, 서양화에 주로 쓰이는 유화로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해준다. 20세기 초에 제작된 흥천사 감로탱화에는 서커스하는 코끼리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이 전봇대, 자동차 등과 같이 표현됐다. 현재 통도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탱화의 밑그림을 모아놓은 <한국어불화초본> 5편에는 일본순사가 공을 차고 여인네들이 강강수월래를 즐기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탱화 속의 호법신장들이 이전까지 들고 있었던 칼 · 도끼 · 창 등 고전적인 무기를 내려놓고 현대 문화를 상징하는 도구들을 든 이유는 무엇일까.

관음사 주지 우학스님은 "신도와 일반인들에게 호법신장들도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친근감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중생의 번뇌와 아픔을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탱화의 변신을 시도한 사찰들은 불자들과 일반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탱화가 법당의 병풍으로써가 아니라 시대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불교미술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관련기사 8면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살리기 위해 죽어야만 하는가. 곡기 끊은 지 35일(11월 7일 현재)째, 지율 스님이 상생(相生)을 위해 접혀 들어가는 허리를 부여잡고 부산시청 앞에서 도롱뇽 소송인단 10만명 모집을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 천미희 기자

조계종 공론조사 새국면
협의 · 조정과정에 충실

북한산 관통도로와 관련한 공론조사에 대해 조계종이 진일보한 입장을 보였다.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 스님은 11월 5일 KBS 1라디오 '생방송 오늘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공론조사 수용 입장을 밝혔다. 현고 스님은 또 "조계종 내부에서도 의견 일치를 봤다"며 종단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현고 스님은 "공론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비교 토론을 위해 대안(비교) 노선에 대한 자료 제공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선행조건을 전제했다. 관련기사 3면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11월 7일 성명서를 통해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반환경 · 반불교 대통령과 정부에 맞서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며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90여 선원 계미년 동안거 결제

법전 조계종 종정 등 법어 발표

계미년 동안거가 11월 8일 결제를 시작으로 해인총림 해인사를 비롯해 조계총림 송광사, 영축총림 통도사, 고불총림 백양사, 덕숭총림 수덕사 등 조계종 5대 총림과 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 등 전국 90여 개 선원에서 3개월간 일제히 진행된다.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은 11월 6일 발표한 결제법어에서 "금우(金牛)화상이 항상 공양 때가 되면 밥을 들고서 납자들이여! 밥을 먹으러 오라'고 외친 이유를 아느냐"며 "조사선(祖師禪)의 생명은 일상성이다. 이번 철의 결제대중은 정진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발우를 펴고 공양을 하면서도 늘상 이 화두를 놓치지 말고 항상 참구하시기 바란다"고 법문했다. 각 총림 방장 법어 3면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생명 · 화쟁 · 원융으로 더 밝은사회 창출"

불교지식인연대 출범

혼돈과 불안정,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 불교지식인들이 모여 '불교지식인연대'를 창립했다.

불교지식인연대는 11월 7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식을 갖고 출범했다. 불교지식인연대에는 김규칠 불교방송 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 성기태 충주대 총장, 성태용 건국대 교수, 양형진 고려대 교수, 이각범 한국정보통신대학원 교수, 김광삼 현대불교 사장 등을 주축으로 70여 명의 불교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창립식에서 불교지식인연대는 "국내외 이슈와 생태위기 · 생명복제 등 윤리적 난제에 대해 불교적 입장에서 종합적이고도 긴 안목의 진단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생명과 화쟁, 원융을 강조해, 더 나은 사회를 창출하는데 지식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10면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붓다뉴스 '야후'에서도 보세요
야후코리아와 제휴 5일부터 서비스

"불교뉴스, 이제 야후에서도 보세요."

인터넷 불교뉴스 사이트 붓다뉴스를 야후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붓다뉴스는 최근 야후코리아(www.yahoo.co.kr)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11월 5일부터 야후 뉴스 섹션에서 불교뉴스를 네티즌에게 제공한다.

야후 뉴스 섹션의 개편과 함께 서비스 되는 불교 관련 뉴스는 현대불교신문사가 운영하는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의 이름으로 매거진 코너나 종교부분이나 뉴스코너의 문화부분에서 볼 수 있다.

붓다뉴스는 매일 불교 관련 뉴스의 실시간 서비스를 지향하는 전문뉴스사이트로서 야후코리아와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 영역을 대폭 확장하게 됐다.

감동의 신행체험수기 공모

교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온 현대불교 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9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중한 체험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큰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부터는 신행수기 당선자들의 모임인 신수회 회장상이 신설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4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 접수 마감: 12월 13일

200자 원고지 30매 … 12월 13일 마감

- 시상내역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사 사장상)
  - 특별상
    △종단협의회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응모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호남:(062)373-8813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 릉 :(033)643-5599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경남 서부:(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밤늦은 시간에 마을 어머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수화기에 대고 목소리부터 잠기셨습니다.

남들처럼 살면 안 되느냐고.

이만큼 무심하게 멀어져왔는데도 아직도 마음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신 부모님을 향해

"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그게 잘 있는 거가."

전화를 끊고 가로등 불빛만이 휑한 거리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율 스님의 일기〉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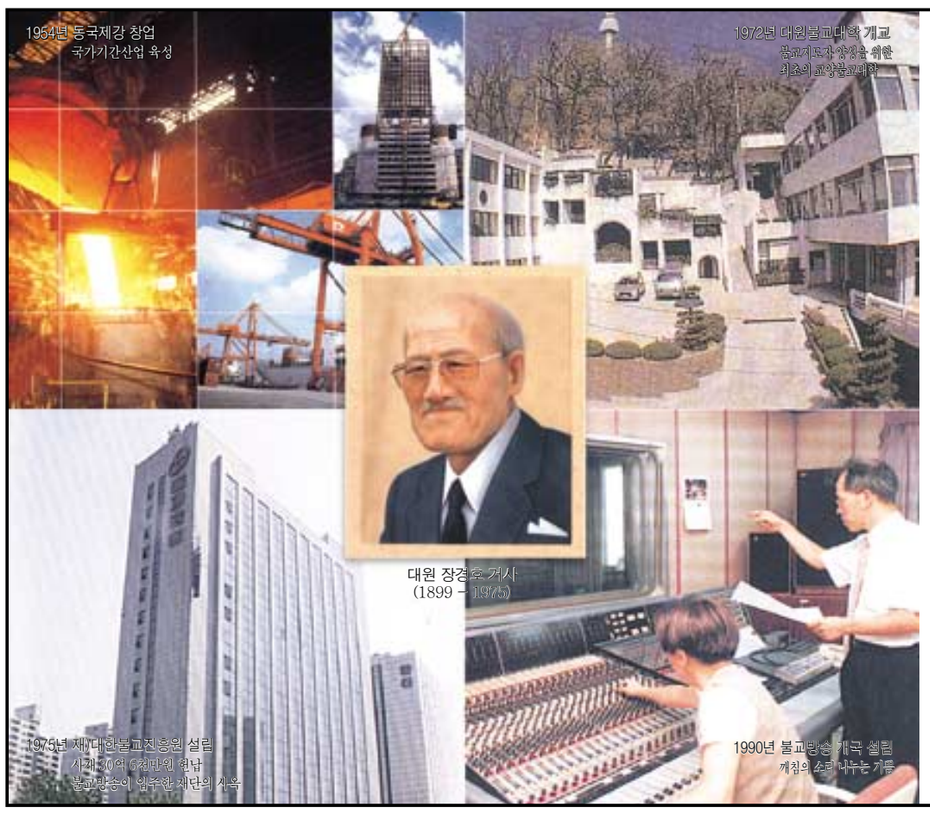
"나는 시위 떠난 화살"

속가 어머님의 애타는 물음이후 또 다시 열흘이 흘렀다. 11월 7일 현재, 지율스님은 단식 35일째다. 지난 겨울 38일간의 단식이 끝나고 몸을 돌보지도 않은 채 또 다시 35일 동안 곡기를 끊었다. 천성산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일이지만 스님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자꾸 흘러내리는 바지춤과 자꾸 품이 넉넉해지는 적삼 속에서 스님의 육신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경찰 정보과에서는 강제입원이 불가피하다며 단식을 종용하고, 스님의 뜻에 동참해온 사람들조차 어찌할 수 없는 불안함으로 서성거리지만 스님에게선 '나는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라는 대답만 돌아온다.

스님은 이제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불자 10만 명이 도롱뇽소송의 소송인단이 되어 천성산 생명들을 살리는데 동참하는 날, 지율 스님은 단식을 풀겠다고 했다. 불자들의 생명에 대한 사랑과 관심. 스님에겐 허기를 채우는 밥이며, 희망이기 때문이다.

도롱뇽 소송인단 동참: (051)623-9220. www.cheonsung.com

천미희(부산주재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나큰 원력을 일으킵니다" 미래불교 지도자를 양성을 위한 열린 교육도량

2 년 제 야간강의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정법불교 대중불교의 건학 이념에 따라 본교 합격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 혜택을 드립니다.

1 모집과정
- 대학원과정 15명 대학과정 50명 통신과정 00명

2 전형일정
- 원서교부 2003년 11월 17일 – 12월 29일
- 원서접수 2003년 12월 1일 – 12월 29일
- 합격자 발표 2004년 1월 14일(개별통보)
- 대학원 면접 2004년 1월 10일(토) 14:00 본교 강의실
- 대학(통신)과정은 서류전형임.

3 대학(통신)과정 특전
- 성적 우수자는 본교 대학원 과정 입학 자격 부여
- 철저한 학사 관리로 효율적인 학습 효과 및 면학 분위기 조성

4 대학원과정 특전
- 개인지도교수제(Tutorial System)의 철저한 논문 지도
- 년 1회 해외불교학술답사 실시(지도교수 인솔)
- 졸업 후 미래학불교학회 회원으로 연구 및 강의 활동 참여
- 소정의 수련과정 이수 후 법사 자격 부여

※ 교과 과정 등 자세한 안내는 입학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입학원서 배부처 본교 교학과, 경서원, 불서보급사, 불교방송 3층 불교문화센터, 책방 여시아문

대원불교대학 www.buddhaschool.or.kr www.idaewon.or.kr
Tel 02)754-1613, 773-9171 Fax 02)771-6796

최고의 교수진
– 장휘옥 (일본 국립동경대학교) – 허경구 (인도라나시 힌두대학교)
– 김사업 (일본 국립교토대학교) – 김종욱 (서울대학교)
– 최봉수 (동국대학교)

사 설

100송이 연꽃으로 핀 경찰불심

100번째 경찰불자회가 창립된다. 11월 19일 경북 구미경찰서 불자회가 100번째 대한민국경찰불교회(약칭 경불회) 지회로 등록된다는 소식이다.

경찰불자회는 불자경찰들의 신행활동과 경찰 유관 기관과 구치소 포교 등 넓은 영역을 무대로 갖는다. 20여 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에 근무하는 몇몇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연꽃 모임'이 경찰불자회의 연원이다. 순수한 불심을 배경으로 피어난 연꽃 한 송이가 이제 전국 100곳의 경찰서에서 만개한 셈이다.

경불회의 100번째 지회 창립은 많은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수적인 팽창이 주목된다. 2001년 4월 대한민국경찰불교회라는 연합 기구가 출범한 이래 43곳의 지회가 늘어난 것이다. 이 탄력을 받아 경찰청 산하 지방청, 경찰서, 경찰학교 등 255곳의 기관에 빠짐없이 지회를 설립하려는 서원이 보다 구체화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수가 늘면서 경불회의 내면적인 성장도 꾸준하다. 교리공부와 법회의 정례화는 기본이고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일선 포교사들은 직장직능 단체의 신행활동은 자칫 타성에 빠져들기 쉽다고 말한다. 일터의 여러 연건들과 종교적 활동의 조화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경찰불자들 역시 독특한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활발한 활동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조직의 관리와 운영의 내실화, 다른 단체들과의 교류 등 많은 과제들을 풀어내며 '100송이의 연꽃'으로 성장한 경불회가 자랑스러운 것이다.

불교지성의 보편적 확장

산문을 들어서면서 흔히 만나게 되는 글귀가 있다. "이 문 안으로 오는 자, 알음알이를 남기지 말지니(入此門內莫存知解)"라는 경고성 가르침이다.

불교에서는 알음알이를 극도로 경계한다. 하지만 그것을, 무지를 권장하고 지식을 혐오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 진의는 체화(體化)되지 않은,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앎은 병통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처럼 '이론과 실천'이 겉도는 세상에서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가르침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볼 때 '불교지식인연대' 창립에 부치는 박수는 의례적 덕담이 아니라 고언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첫째, 총론이나 구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소한 거대담론은 관념의 유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불교적 지성의 보편적 확장에 기여해야 한다. 오늘날 전 지구화된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는 '탐진치'의 극대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인 배제의 경쟁은 결국 공멸로 가는 길임을 설득하는 것, 불교 지식인이 이 시대에 유포해야 할 지적 백신이다.

셋째, 연구와 실천은 병행돼야 한다. 긴 안목의 처방과 진단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당장의 과제에 대한 외면까지 정당화해 주지는 못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당장의 약방문이 절실한 상태다. 그렇다고 그것을 기술자의 대응 방식과 같은 즉발적인 것이 아니냐고 회의할 필요는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한 오늘의 약방문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자 스스로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 불교 지식인들이 앞장서 할 일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선교육 후득도'로 승가제도 전환

승려노후복지제도 수립·시설재원 마련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내년 6대사업 밝혀

내년에는 조계종의 승가교육체계가 바뀌고 종단의 오랜 숙원이었던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각종 제도도 마련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1월 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조계종 제161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종정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중점사업 및 종단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날 법장 스님이 제시한 내년도 중점사업은 △조계사 성역화 △승가교육체계 개선 △승려노후복지시설 설치 △장단기 종단발전 종합계획 수립 △국제포교 활성화 및 국제전문인력 양성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모두 6가지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승가교육체계 개선과 승려노후복지시설 설치 문제. 법장 스님은 이날 종정연설에서 현재의 '선득도 후교육' 제도를 '선교육 후득도'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시 말해, 6개월~1년간의 행자교육과 4년간의 강원교육 체계에서 교육 연한을 늘리고 교육의 질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자교육 후 받던 사미계를 강원교육을 마친 뒤 받게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승려노후복지시설은 내년에 당장 설치는 어려우나 이를 위한 재원과 제도는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장 스님은 "국비 등 재원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등 내년 한 해 동안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통불교문화선업지원센터 건립도 눈여겨봐야 할 사안이다. 법장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의 건립 목적은 불교문화의 일반화 외에 중앙연수원 기능과 국제간화선센터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를 축으로 간화선과 전통불교문화를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보편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종단 운영 방침도 제시했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임 경영'과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종 중앙종회 개원

예산·종헌 개정등 처리

조계종 제161회 정기중앙종회가 11월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15일간의 회기로 개원했다.

이번 정기중앙종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중앙종무기관 종정감사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종립학교 관리위원회 활동보고 △종헌 개정(기초선원 및 중앙신도회 관련) △종법 개정(승려법, 선원법, 계단법, 교육법, 신도법)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후보 추천 △법계위원 위촉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등의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법규위원 선출 취소 등의 안건이 다뤄진다.

한명우 기자

불교계유치원 모두 1백80여곳

본지확인, 조계종 발표보다 50여곳 많아

불교계 유치원 수가 지난 10월 29일 조계종 포교원이 발표한 132개보다 50여개나 많은 180여 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교원은 '불교계 유치원 현황 조사' 결과 조계종 94개, 천태종 12개, 진각종 7개, 태고종 1개 등 총 132개의 불교계 유치원이 운영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본지확인결과 진각종의 경우 16개의 유치원이 추가확인됐으며, 태고종은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유치원 수만 10곳으로 확인됐다. 개인사찰이 운영하는 유치원까지 합한다면 태고종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30여개에 달한다. 천태종도 12개보다 5개가 더 많은 17개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은경 기자

'현대'만평

심 민 섭



조계종 5기 교육원위원회

조계종 제5기 교육원 위원회가 최근 새로 꾸려졌다.

교육원은 위원회별로 각각 9명씩의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한편 교육위원장에 향적 스님(종회의원), 교재편찬위원장에 무관 스님(계단위원회 위원, 유임), 역경위원장에 지안 스님(은해사 승가대학원 학장)을 위원들 간 호선으로 선출했다.

권형진 기자

선학원 전국분원회의

선학원은 11월 6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70명의 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분원회의를 열고 재단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분원회의에서 분원장들은 내년 선학원 설립 70주년을 맞아 선학원 발전을 위한 대법회를 개최하고, 선학원 성역화 불사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분원장들을 대상으로 선학원 발전방안 및 재단 설립 7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한 설문조사도 실시됐다.

한명우 기자

세계불교청년포럼 05년1월 서울서

美등 19개국서 37개단체 참가

'나눔과 하나됨' 주제

세계불교청년우의회(WFBY: World Fellowship of Buddhist Youth)는 2005년 1월 9~12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나눔과 하나됨'을 주제로 제3회 세계불교청년포럼을 개최한다.

미국, 뉴질랜드, 일본 등 총 19개국에서 37개의 단체가 참가하는 이번 포럼에는 칭야오 스님(대만), 티타다모 스님(싱가포르), 상가세나 스님(인도) 등 세계 각국의 스님들이 강연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원택 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지광 스님(능인선원 원장)이 강연자로 참석, 한국불교의 수행법 등을 알려주게 된다.

또 미국 청년들이 불교에 입문하는 과정을 담은 <청바지를 입은 부처(Blue Jean Buddha)>의 저자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수미 런던(Sumi London)이 참석, '미국 청년불교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WFBY 산하단체인 '클럽 25'의 공식 출범식도 함께 열린다. 25세 이하 청(소)년 불자들의 모임인 '클럽 25'는 포럼 기간동안 '클럽 25' 세계대표를 선출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 발대식을 가졌다.

WFBY 한국 측 준비위원장 선업 스님은 "그 동안 한국에서 전무했던 청년불자를 위한 국제 교류의 장이 열리게 될 것" 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청년불자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고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상희 기자

고침 446호 2면 '조계종 수행지침서 발간' 기사 중 불학연구소장은 '효창' 스님이 아니라 '법선' 스님이기에 바로잡습니다. 4면 '일주문'에서 한국불교학회장 권기종 교수는 11월 29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바로잡습니다. 1일 '계룡산 갑사 성보의~'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한국불교문화학회(회장 사재동)입니다. 10면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시급' 기사에서 이미 열반한 영산재 보유자는 '일운' 스님이 아니라 '일응' 스님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본사사령

박원구
의원면직
편집국 취재부 기자
(대구주재)

2003년 11월 10일

나라의 안정을 위한 기도 대법회!

한국대승불교여래종 38주년 기념 총무원장 이 · 취임식

귀의 삼보하옵고

한국대승불교여래종에서는 불국토 건설을 위하여 법륜을 굴려온지 3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삼계윤회의 물결에 해메이는 중생을 오로지 건지기 위허여 불법을 전해온 한국대승불교여래종에 지금까지 성원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나라의 안정을 위한 기도법회와 한국대승불교여래종 38주년 기념식을 봉행하며 총무원장 제 8대 이 · 취임을 봉행코저 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법음의 소리가 삼천대천 세계까지 울려퍼지도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임 총무원장 명안 신일섭 / 신임 총무원장 법정 문순길

■ 일 시 : 불기 2547년 11월 14일(음 10월 21일) 금요일 12시

■ 장 소 : 금강대약사사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신리(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 건너편)
금강휴게소 IC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 문의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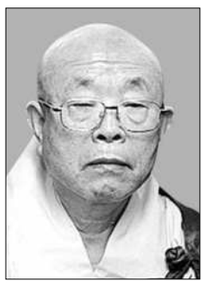
- 전통사찰 남한산성 약사사 031)734-3205
- 금강대약사사 여래종 총무원 043)731-2261
- 전임 총무원장 명안 011-483-2261
- 후임 총무원장 법정 011-421-8340

◆ 초청인 : 원로원장 무공, 종회의장 혜안, 인왕문도회장 보당, 봉행위원장 무각, 봉행부위원장 묘선

한국대승불교여래종 종정 인왕 신판석

동안거 법어 요약

황금털 사자새끼 3천리 밖 본다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백운영리소가가(白雲影裏笑呵呵)하니 양수지래부여타 (兩手持來付與他)로다.

약시금모사자자(若是金毛獅子子)인데 삼천리외견요와(三千里外見譙訛)하리라.

흰구름 그림자 속에서 깔깔대고 웃으니 두 손으로 들고 와서 그대에게 전해 주었네.

만약 황금털을 가진 사자새끼라면 삼천리 밖에서도 어려운 곳을 알아차리리라. (중략)

아침에는 죽을 먹고 한낮에는 밥을 먹는 것이 우리의 살림살이입니다. 이는 해제이건 결제이건 봄이건 가을이건 변함없는 선가의 일상생활이기도 합니다. 조사선(祖師禪)의 생명은 일상성입니다. 그래서 늘 마조선사는 '평상심(平常心)이 도(道)'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들은 공양을 앞에 두고서도, 또 함께 먹으면서도 서로의 기방(機棒)을 겨룰 때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금우스님이었기에 같은 마조회상에서 공부하고 있던 방거사(龐居士)에게도 한 소리를 합니다. (중략)

금우스님이 밥을 나누는 진지를 하면서 방 거사에게 물었습니다, "마음에 경계를 일으켜 밥 받는 것을 이미 유마거사가 꾸짖었다. 가섭존자가 부자를 버리고 가난한 집만 복을 짓게 해주려고 골라서 탁발을 다닌 이 이치를 벗어난 거사는 만족스러운가?" "그것을 꾸짖은 유마가 어찌 본분종사가 아니겠는가?"

이에 선사가 물었습니다. "그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자 거사가 말했습니다. "밥이 입가에까지 왔다가 다시 남에게 빼앗겼도다." 이에 금우스님이 얼른 진지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자 방 거사가 말했습니다. "한 마디도 필요치 않구나."

반야의 보검을 종횡으로 휘두르니 그 칼날 앞에 언어가 끊어지고, 밝은 거울을 높이 걸어두니 언구(言句) 속에서 비로인(毘盧印)이 나옵니다. 평온하고 고요한 경지에서 옷 입고 밥 먹으니, 신통력 부리는 곳에 무엇 때문에 머물겠습니까? 이런 이치를 분명히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이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그 때마다 삼십 방망이를 맞아야 할 것입니다. (중략)

'금우반통(金牛飯桶)' 공안의 주인공 금우선사는 마조선사의 법을 이은 대선지식입니다.

그는 점심때가 되기만 하면 공양통을 들고서 승당 앞에서 춤을 추고서 껄껄대며 말하였습니다. "납자들이여! 밥을 먹어라." 이 같은 소리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줄곧 20년 동안 하였던 것입니다. (중략)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시간에 공양통을 들고 와서 술한 재주를 피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금우스님이 미친 것입니까? 아니면 법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장경스님은 '마치 재(齋)를 마친 후에 경하(慶賀)하며 축원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고, 대광스님은 그 말을 듣고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경과 대광이 고인의 뜻을 제대로 함께 밝힌 것입니까?

금우스님이 손수 밥을 짓고 춤을 추면서 사람들에게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한 뜻이 참으로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이번 철의 결제대중은 정진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발우를 펴고 공양을 하면서도 늘상 이 화두를 놓치지 말고 항상 참구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부처님 가신 묵은 길 가지 마라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오늘은 동안거 결제 날입니다.

당(唐) 나라 때 스님 동안상찰(同安常察)선사의 게송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장부자유충천기(丈夫自有衝天氣)하니, 불향여래행처행(不向如來行處行)'입니다. 대장부는 누구나 하늘을 찌르는 기운이 있으니,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묵은 길을 향해 가지 말라. (중략)

이 법문은 초학수행자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견성한 사람의 오후보임(悟後保任)을 위해서 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근기가 다르고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야할 길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비유해 말하면 찻길은 땅에 있고, 뱃길은 물에 있고, 비행기의 길은 공중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보조국사(普照國師)께서는 견성은 내가 가야할 길을 아는 것이니, 길을 안 후에 열심히 닦아서 성불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수행(悟前修行)은 맹인이 눈뜬 사람의 손을 잡고 가는 것과 같고, 오후수행(悟後修行)은 자기가 눈을 뜨고 가야 할 곳을 향해 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길이 금일결제대중이 각각 가야할 길입니까?

기조록수암전거(幾條綠水岩前去)오, 일편백운강상래(一片白雲江上來)로다.

몇 가닥 푸른 물이 바위 앞으로 흘러가는고, 한 조각 흰 구름이 강물위로 떠오네.

한 터럭이 큰바다 삼킴 누가 알까

원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백락퇴중유전신(白浪堆中有轉身)
허공박락무잔흔(虛空撲落無殘痕)
저리시비하변료(這裏是非何辨了)
운단추야월만천(雲斷秋夜月滿天)

흰 파도 속에서 몸 돌릴 곳 찾으니 허공이 부서짐에 그 흔적이 없네.
이 가운데 소식을 그대여 알겠는가.

구름 끊긴 가을 밤 달빛만 가득하네.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과 역대 조사들이 모두 이 속에 있는데, 여러분 보았는가! 설사 보았다 하더라도 역시 닷줄을 쥐고 배를 바다에 띄우는 격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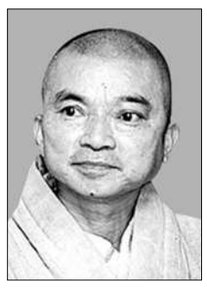
<원각경>에 이르기를 "큰 원각으로 나의 가람(伽藍)을 삼고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平等性智)에 안거(安居)하라" 하였는데 대중들은 알겠는가! 위 없는 오묘한 원각심(圓覺心)은 생사와 열반이 없으며 성불함과 성불하지 못함도 없고 망령된 윤회와 윤회하지 않음이 없다. 이것은 또한 관대(寬大)하고 넓고 넓어 바깥 경계가 없이 시방세계에 두루해서 여래(如來)로 더불어 일체평등하여 모든 수행이 진실로 두 길이 있지 않느니라.

대중들은 들어라!

빈심(貧心)과 진에(瞋恚)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고 네 가지 상(想)의 집착을 여의어 청정(淸淨)한 성품으로 적멸행(寂滅行)에 들어서 꾸준히 정진하도록 하라. (후략)

조계산 단풍은 배춧잎보다 붉다

지허 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칠전선원장)



'차사본무생(此事本無生)이라 수연처처명(隨緣處處明)이로다.'

이일이 무슨 일인고. 일좌부동경육년(一座不動經六年)하여 세존이 견명성오도(見明星悟道)한 일이요, 삼처(三處)에서 가섭에게 전불심등(傳佛心燈)함이요, 소림에서 구년 면벽한 달마의 가풍이요, 역대전등제대조사 천하종사가 확철대오한 일입니다. 또 이 일이란 우리 납자가 일편단심으로 행주좌와(行住坐臥)간에 걸림 없어 철저하게 화두일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중략) 성성적적(惺惺寂寂)한 일념화두 앞에는 지옥천당이 모두 정토(淨土)여서 삼천대천의 어디를 가더라도 무명(無明)이 자취 없이 소멸되어 밝고 밝을 뿐입니다.

'신료여사지(信了如斯旨)니 귀가파문처(歸家罷問處)로다.'

이 일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우리 종지(宗旨)와 종풍(宗風)을 철저하게 따르기만 하면 고향의 자기 집에 돌아가는 길을 선지식을 찾아 묻는 일은 마쳤다 할 것입니다. (중략)

지주의 남전보원선사가 황벽에게 묻기를 "장이나 물값은 그만두고 짚신값은 누구 보고 갚으라 하는고" 하였는데 황벽이 대답을 못했다 합니다.

누가 나에게 짚신 값을 갚으라고 한다면 조계산의 단풍은 화전(火田) 배춧잎에서 붉다 하겠습니다. (후략)

※영축총림 통도사(방장 월하 스님)는 결제일에 앞서 미리 법어를 발표하지 않으며, 고불총림 백양사(방장 서옹 스님)는 동안거 결제 법어를 따로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매주 금요일(447호의 경우 11월 7일)에 제작합니다. **전문은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있습니다.**

조계종, '북한산 문제' 진의는?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 스님 발언(KBS 라디오)을 둘러싸고 조계종의 공론조사 수용여부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현고 스님은 방송에서 진행자가 "공론조사에 동의하는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또 "사회부장 미산 스님이 공론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는 진행자의 물음에 대해 '오보'라고 지적했다. 이는 10월 28일 조계종이 3단계 절차를 제시하며 우회적으로 수용거부를 나타낸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와 관련 현고 스님은 "대안(비교) 노선에 대한 실측자료 없이 공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이라며 "기존 종단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스님은 또 "소모적이 아닌 생산적 결과를 기대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고 성숙한 표현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공론조사에 대한 조계종의 속뜻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관계자는 10월 28일 공론조사에 관한 설명회에서 3단계 절차가 사실상 거부인가 잠정적 수용인가란 논란에 대해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고 스님은 11월 5일 방송에서 공론조사에 동의한다면서 진일보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두고 불교계 일각에선 조계종이 정부와 정치적 타협을 해 공론조사 수용을 기본 방침으로 정해놓았지만 대외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즉 조계종이 북한산 문제에 대해 처음에는 공약이행을 강경하게 주장하다 3단계 절차를 제시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는 조건부 수용(3단계 절차) 입장을 훨씬 더 누그러뜨림으로써 수용 가능성에 한발 더 다가선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산 문제에 대해 조계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계종이 표현만 부드럽게 할 뿐 실제로는 전제조건을 까다롭게 해 공론조사가 불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고 스님, 방송서 공론조사 수용 시사
'3단계 절차'로 우회적 거부때와 달라
시민단체 "타협 경우 명분·실리 모두 상실"

이와 관련 북한산국립공원 · 수락산 · 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한 관계자는 "나쁜 의미에서의 '타협'이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북한산 문제를 함께 고민해 온 연석회의와 일언반구 상의 없이 결정한다면 더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론조사를 수용한다면?

정부가 공론조사를 이용해 관통으로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의정부 회룡사 스님들을 중심으로 한 '강경대응'이다. 실제 회룡사는 '북한산과 함께 죽을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결사정진'을 천명했다.

조계종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몇 년 간 동체대비 사상으로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실리'를 위해 '명분'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윤주옥 사무국장은 "정부는 관통을 상정해 공론조사를 제의한 것"이라며 "조계종이 쉽게 공론조사에 동의한다면 결과적으로 관통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후 불교환경 뿐 아니라 불교계의 대사회 이미지 자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 등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을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봉 축

대한불교 관음종
제6세 종정 남천 죽산 대종사 취임 대법회

대한불교 관음종 제6세 종정 남천 죽산 대종사님의
취임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원로 대덕스님을 비롯 사부 대중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일 시 : 불기 2547년 10월 26일(양력 2003. 11. 19) 수요일 오후 1시

◆ 장 소 : 총본산 낙산묘각사 대불보전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3

◆ 전 화 : 02)763-3345. 0054

※ 참석 스님께서는 장삼, 대가사를 수하시기 바랍니다.

봉행위원회

● 고 문 : 김성각 이인봉 안정암 김화암 방혜학

● 봉행위원장 : 총무원장 이 홍 파

● 부 위 원 장 : 정법륜 김동령 정법성 곽운산
박송월 김경담 김경철

● 집행위원장 : 김지섭

● 집 행 위 원 : 황법명 홍경수 김대홍 이법현 유우경 조법호
박송월 권종일 윤녹봉 양종명 송법운 김경심
김경혜 박지성 박지열 김지현 이진성 이월담
정춘담 양고산 강법천 곽용해 이수산 진대명
이도오 백무학 오삼보 김종남 이내철 이윤구
허도일 이범영 이도인 이효천 이대광

봉행위원 (무순)

이해성 정덕장 이삼광 김종하 송혜정 이효천 임법경 강성오 석보리 장현성 문상품화 박홍민
정법련 박권선 김성해 김보성 서도현 장보련 최지산 김원산 임법원 김묘혜 맹보현행 강법연
한혜성 최동명 김성관 정도명 오묘인 업해각 김혜암 지법정 구보각 정도련 장임동화 임현성
김도선 석선혜 김도일 김혜광 위보현 고상묵 김성래 정연담 이석봉 김원광 노대법성
송혜일 정선혜 김정도 이동혜 안법해 이송화 김연순 백청현 전서경 조우덕 이묘각심
박법일 장영월 추청호 차예산 양혜정 김청암 한진각 양덕유 김청덕 김진공 박무진화
서천호 정월인 정월송 지혜운 최법주 황혜광 정능허 김등명 김법광 이도경 권명일심
조법련 장혜정 박보각 한관오 김봉화 최보현 김선아 김혜지 조현호 김도암 조백련화
김도오 김법성 전지훈 송보선 김법안 전묘각 김동운 심관철 이해룡 김청종 임지혜심
이국자 이다해 정창현 맹순남 김법인 김묘법 이진성 천혜능 김묘광 배보운 박백련화
김법경 황선암 김거룡 최일관 김동선 박석순 김현산 최지운 최자성 박혜산 조자연심
윤녹봉 김법경 임광덕 조혜민 지혜봉 김도선 송동선 박담혜 박태선 조학산 임묘련화
오법륜 황병진 임혜운 손해산 이의선 한지현 김수련 구동화 장혜월 김청담 배자운심
박광명 김계현 박도문 이석송 이성달 정탄오 김법정 유청보 유용현 양현수 모명심화
전서광 김지호 신원봉 정법지 신도중 김현관 박정원 김법인 이지족 송지덕 업무각
김남천 강성진 조혜수 오혜진 정진성 안무공 김정화 조해명 서효운 허혜수 유법성
노정광 백정명 이법룡 정정혜 박도법 김정혜 권청오 김혜월 이운천 곽혜운 이운룡
김도각 정연봉 성혜범 지대웅 정법공 이혜련 조혜련 이백산 이도각 이지도 이혜덕
김청태 하성원 조해조 하도정 황영직 김혜정 제덕암 장묘광 홍영무 이도성 강도철
조혜담 장법능 이선광 강법성 이혜광 안영락 송혜원 박도산 주혜원 심통원 서법운
박천령 박지관 박혜봉 박혜수 전상원 조도원 이청타 양지광 안오명 강백제 이연화심
양동암 고원광 오원호 조덕산 전지명 이원영 정홍원 조무정 김도연 김법진 김자진
신성법 이대광 고연화 이일호 안혜총 이시우 윤도공 이병철 곽진용 채창원 윤희정

대한불교 관음종 제6세 종정 취임대법회 봉행위원장 이 홍 파



'사찰유치원 합동가족등반'

광주 향림사 향림유치원 이사장 천운 스님(향림사 조실)은 9일 무등산장 원효사 일대에서 '사찰유치원 합동 가족 등반 법회'를 봉행했다.

일주문



인도 해군부참모총장 환영연

인도명예총영사 겸 부산불교신도회 류진수 회장은 4일 해군 3함대 사령부에서 반샬 인도해군부참모총장 환영 리셉션을 열었다.



'도전 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청소년파라미타 부산지부 총재 성오 스님(범어사 주지)은 16일 부산 동의공업대학에서 '도전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한다.



동국대 불교대학 객원교수에

조계종 전국신도회 선진규 회장(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이 4일자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객원교수에 위촉됐다.



'불교와 과학' 주제로 발표

참여불교 재가연대 상임대표 박광서 서강대 교수는 20일 울산대에서 열리는 물리학과 심포지엄에서 '불교와 과학'을 주제로 발표한다.



통도사 혜남 스님 초청 법회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법혜 스님은 12일 정각원 법당에서 통도사 강주 혜남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송석구 교수, 동덕여대 총장

前 동국대학교 송석구 총장은 4일 열린 동덕여자대학교 재단이사회에서 제5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혜민 스님 초청, 열린 법회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원장은 15일 법당에서 인취사 주지 혜민 스님을 초청, '남북통일의 당면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법회를 봉행한다.



대구교도소 재소자 위문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11일 대구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을 위한 위문 법회를 봉행했다.



故 이기영 박사 7주기 법회

한국불교연구원 정병조 이사장은 9일 곤지암 유마정사에서 故 이기영 박사 7주기 추모 법회 및 추모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경북 청량사로 성지순례

한국언론사불자연합회 김진평 회장(한국방송공사 불교연구회장)은 9일 경북 청량사 일대로 추계 합동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국가적 어려움 극복 계기 됐으면…"

동판 팔만대장경 고불식 여는 세민 스님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동판 팔만대장경 불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동판 팔만대장경 조성을 통해 현재의 국가적 어려움들이 극복됐으면 합니다"

불사의 시작을 부처님 전에 고하고, 불자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17일 오후 6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팔만대장경 동판 복원불사 고불식을 갖는 세민 스님(해인사 주지·사진). 스님은 국난극복을 위해 전 국민의 동참으로 1251년 조성한 목판 팔만대장경의 정신을 살리고 민족문화를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불교계뿐만 아니라, 종교를 초월해 타종교 지도자와 사회 각계 각층의 대표자 1천명을 이날 고불식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770년의 세월을 견딘 목판 팔만대장경이 이제는 접근이 불가능할 만큼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팔만대장경판의 엄밀한 보존과 폭넓은 활용을 위해 수명이 반영구적인 인청동(燐靑銅, 인이 첨가되어 산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동)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불사동기를 밝혔다.

"2005년 말까지 불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스님은 "이번 기회에 고려시대까지의 역대 조사어록과 팔만대장경에 빠져있는 중국대장경, 일본 신수대장경의 경전 내용도 추가하여 조성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역대 조사어록 中·日 경전내용도 추가

한편 해인사는 3일 동판 팔만대장경 불사 원만 성취를 발원하며 1029일 천도기도법회에 입재했다. 개인이나 가족 및 회사단위로 불사 동참이 가능한 동판 팔만대장경은 내년부터 건립될 예정인 신행문화도량 장경법당에 보관된다. (055) 931-8771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노환중인 어르신 돕고 싶어요"

효령대상 상금 전액 기부 이익선 기상캐스터



"노환 등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 상금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합니다."

효령대상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수홍·사단법인 청권사 이사장)가 지난 10월 22일 개최한 제6회 효령대상 시상식에서 효도부문상을 수상한 기상캐스터 이익선(35·사진 왼쪽) 씨는 수상금 1000만원 전액을 지난 10월 31일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에 기부했다.

이 씨가 이처럼 적지 않은 기부금을 쾌척한 이유는 4년 동안 치매로 고생하다 지난 10월 별세한 아버지와 관절염, 당뇨 등 중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10년 넘게 병수발 해오면서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식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할 일이에요. 오히려 혼기가 꽉 찬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고, 바쁜 방송 스케줄로 부모님께 걱정만 끼쳐드렸죠. 불효한거나 마찬가지에요."

'효녀 이익선'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기상캐스터로, 올해로 방송생활 13년째를 맞는 베테랑 방송인이다. 현재 스카이 라이프의 '하우 투 스카이 라이프', 국군방송 '시네마 천국' 등의 고정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 지난 10월에는 '우동한 그릇'을 통해 연극무대에 서는 등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다.

"빠듯한 방송일정 틈틈이 종종 근처의 절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는 이 씨는 앞으로 잡지 등에 기고했던 글을 모은 수필집과 어린이를 위한 날씨 관련 그림책을 출판할 계획이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청년불교 새바람 일으키겠습니다"

서울불교청년회 조대진 신임회장



"한국불교의 심장, 수도 서울에 청년불교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5일 서울 종로구 대각사 선방에서 16명중 11명이 참석, 찬성 10표 반대 1표로 제17대 서울불교청년회 회장으로 선출된 조대진(37·사진) 현 부회장은 '서불청 살리기 운동'에 전력해 청년불자들과 함께하는 청년회로 거듭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조 회장은 이를 위해 우선 회원간의 연락망을 구축하고 법회와 기초교리강좌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기존 조직의 강화와 대내외적인 활동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조 회장은 매년 개최하는 연꽃노래잔치와 제등행렬 등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확대하고, 청년불자는 물론 일반 불자들의 관심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조 회장은 자원봉사활동 관련 "서불청이 3년 전까지 활동해오던 소쩍새 마을 정기봉사활동과 탑골공원 어르신 무료투약 자원봉사가 현재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복지센터나 고아원 등 불우이웃 시설에 새로운 봉사창구 개설해 서불청의 대사회적인 역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도/와/주/세/요

무리한 아르바이트·영양결핍

결핵성 뇌막염 고통 이임수 불자



결핵성 뇌막염으로 투병 중인 이임수(25·사진) 군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척추골절과 척추염증, 골다공증 등의 합병증이 발병해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 군이 결핵성 뇌막염 진단을 받은 것은 지난해 4월. 무리한 아르바이트와 영양결핍이 원인이었다. 이 군은 학교까지 휴학해 가며 돈을 벌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왔을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렵다. (02)734-8050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

이동혁 기자 tonylee7@buddhapia.com

대원정사 산신각·삼존각 낙성



양주시 장흥 대원정사(주지 해련)는 2일 산신각 및 삼존각 낙성 법회를 봉행했다. 서울 청룡사 일봉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낙성법회에서 해련 스님은 "산신각 낙성 법회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마음의 농사를 잘 지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자"고 말했다.

영남불교대 장례문화 특강



대구 영남불교대학이 불교장례문화 보급을 위한 특별강좌를 열었다.

영남불교대학은 3일과 4일 두 차례 경기도 상락원 운오 스님을 초청해 관음사 3층 법당에서 임종준비, 염습, 49재 등에 대한 강의와 실기 강좌를 가졌다.

㊊ 불교총지종 제8대 종령 취임 법회 ㊎

嫦殃 衭揎璟橐妋

漾坐殃 殷崒 嫸妋 殤榯昱 穉烘拯姅 澖淬氠

淵檠櫹瞗岭怔 潨朵眠擯殃 牀控 嫦崒 樗榯가柍

"불교총지종 제8대 종령 수성 대종사 취임법회"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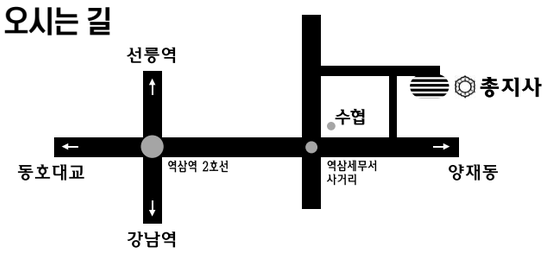
嶔慰姾 墐殗 揇耟璟檳嗷

牀膿嶚姾 戳擲懲涜嬨巸 瞗疥 幟滉璟杕榯

殯惚慁 巑欽 攕屛 浹杕娷 捆徶嵣嶔ㅇ

다 음

▶ 일 시 : 불기 2547년(총기32년) 11월 18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불교총지종 총지사 서원당(3층)
▶ 문 의 : 02) 552-1080~3
▶ 찾아 오시는 길



※ 행사에 참석하실 분께서는 오후 1시 40분까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 02)552-1080~3

불교총지종 종령추대봉행위원장 / 통리원장 법 공 합장

노대통령에 파병반대 호소문 경책의미의 장군죽비도 함께

반전평화불교대책위

이라크 추가 파병 철회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파병 반대 호소문과 장군죽비가 전달됐다.

불교계 17개 단체로 구성된 반전평화불교대책위원회(이하 불교대책위)는 11월 5일 만해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한 것을 경책한다는 의미에서 노 대통령에게 장군죽비를 전달한다"라고 밝혔다. 장군죽비와 파병 반대 호소문은 같은 날 정우식 조계사 청년회장이 청와대 민원실로 접수시켰다.

불교대책위는 또한 각 정당 불자 국회의원(총 41명) 전체를 대상으로 파병 반대 호소문을 전달하고, 각 단체별로 대상 불자국회의원을 선정해 면담을 추진하며,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시 서한 전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장을 전달하는 등의 원칙을 발표했다.



◇반전평화불교대책위 관계자들이 장군죽비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파병을 반대하는 일반 불자들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파병반대 평화의 등 달기' 운동 △청와대에 릴레이 항의 서한 전달 △사찰 및 불교단체에 파병 반대 배너 부착 등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불교 소수자인권 시민단체인 '불교소수자의 벗'은 5일 한나라당 불자 국회의원인 김진재, 도종이, 박헌기, 소광호 의원에게 이라크 추가 파병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한편 대불청은 11일 청년단체들이 결성한 이라크파병반대평화단식추진모임의 '파병반대 하자하자 평화단식' 캠페인에 참가, 파병반대 철회여론 조성과 평화와 생명을 지키려는 뜻을 대내외에 알렸다.

남동우 · 김은경 기자

한국사람 2명중 1명 종교적 기부 금액은 22만원 이하가 가장 많아

황창순 교수 논문에서

우리나라 국민 2명중 1명은 종교적 기부에 참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11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순천향대학교 황창순 교수(사회복지학과)의 '개인기부의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황 교수의 논문은 아름다운재단, 볼런티어2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2002년 7~8월에 개인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황 교수는 논문에서 종교적 기부 경험을 갖은 사람이 아름다운재단 45.4%, 볼런티어21 42%로 조사돼 우리나라 사람 2명중 1명은 종교적 기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기적 종교 기부에 대해 조사한 KDI의 경우 30.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종교적 연간 기부 액수는 아름다운재단의 경우 20만원 이하 36.9%, 20~49만원 23.3%였고 볼런티어21은 22만원 이하 61%, 1~5만원 30.6%로 집계돼 20만여 원 이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처에 대한 조사에서 아름다운재단은 자선 · 모금단체 38.2%, 언론기관 38%, 사회복지시설 20.3% 순이었고 볼런티어21의 경우 언론기관 37.3%, 종교단체 27.6%, 사회복지기관 14.7%로 조사돼 개인기부자들은 언론기관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기부횟수는 연간 2~3회(36.9%)가 제일 많았고 기부방법은 전화 ARS(42.1%)를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혁 기자

"여래의 사자돼 부처님법 펼것"

부루나전법봉사단 조계사서 발대식

부루나전법봉사단(단장 계성)이 11월 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김형중 전국교법사단장의 발기문 낭독, 예비역군법사회장 성광스님과 양성홍 포교사단 부단장의 축사, 법장사 주지 퇴휴스님 전법봉사단 출범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발대식에서 단장 계성스님은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가슴에 담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불법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래의 사자가 되어 전법을 펴겠다"고 밝혔다.

부루나 전법봉사단은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을 총재로, 전등사 주지 계성스님을 단장으로 추대했으며, 사무총장에는 광동여고 이학주 교감을 선임했다. 김원우 기자



◇부루나 전법봉사단 발대식이 11월 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됐다.

경제적 부국 기독교 쇠퇴 뚜렷

이원규 감리신학대 교수

경제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남녀간 성평등이 진전될수록 기독교 신자의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리교신학대에서 열린 세미나 '21세기 기독교의 위기와 대안'에서 이 대학 종교사회학과 이원규 교수가 '박탈-보상 이론의 관점에서 본 종교의 세속화'란 논문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교수는 2001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발행한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에 실린 통계를 기초로,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5%가 넘는 188개국의 종교 실태를 분석해 국가별 · 대륙별 기독교 성장과 쇠퇴상황을 조사했다.

연구에 따르면 부자나라 일수록 기독교의 쇠퇴가 뚜렷했다. 지난 1백년간 교회 성장률을 볼 경우 개발국은 감소 7.7%, 정체 67.3%를 기록했으나 저개발국은 감소 · 정체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오유진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보건복지부 장관상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법장)이 11월 6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2003 전국 사회복지 자원봉사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단체상)을 수상했다. 복지재단은 그동안 자원봉사인증센터를 운영해 옴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실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이날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밖에도 자원봉사자 3명과 (주)신세계건설 파랑회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동혁 기자



◇'손보시 봉사단'이 봉은사 신도들에게 안마 · 침술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혜광맹인 불자회 '손보시 봉사' 첫 나들이

"절에서 오십견 치료 받다니…"

"부처님 뜻이 있었나 봐요. 절에 와서 오십견 치료를 다 받게 되네요. 선생님 허리도 좀 봐주세요." 머뭇거리기만 하던 이계순 씨(38, 서울 논현동)가 허리도 들이민다.

"어휴, 보살님은 하루에 다 고쳐 갈려구 그래요." 어깨를 주물러 주던 시각장애인 이찬 씨(57) 익살에 이내 법당 안은 웃음바다.

11월 2일 봉은사 선불당. 자녀의 수능시험 기도를 한 학부모들, 49재를 회향한 사람들, 일요일 법회를 봉행한 신도들 등 고단한 불자들의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손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혜광맹인불자회(회장 유정종) '손보시 봉사단'이 바로 그들이다.

올해로 창립 14년을 맞는 혜광맹인불자회는 그동안 복지관 등을 찾아다니며 소외된 사람들에게 안마와 침술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들이 사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점자 · 음성경전 발간을 위해서다.

부처님 법이 좋아 모인 이들이었지만 점자 · 음성경전이 없어서 정작 법회 봉행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사찰신도들을 대상으로 손보시 봉사활동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점자 · 음성경전 발간 기금 조성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3시간 정도 계속된 봉사활동. 미영순 회장(사단법인 저시력인연합회)은 아쉬움이 남는다. "첫날이라 그런지 신도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았네요. 다음 봉사에는 더 많은 불자들이 찾아 주겠죠?"

그러나 자비손 봉사단은 실망하지 않는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다.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손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느낄 그날을 위해. (02)737-1053

이동혁 기자 tonylee7@buddhapia.com

수익금모아 전자·음성경전 발간계획

印불가촉천민 여성수행센터 건립

재가연대·우리는 선우, 1만달러 전달

인도 마하라쉬트라 주 나그푸르에 불가촉천민 여성수행센터가 건립된다.

참여불교재가연대(이하 재가연대)와 우리는 선우는 최근 인도불교지원사업 2차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TBMSG(범세계불교교단우의회, Trailokya Bauddha Mahasangha Sahayaka Gana) 산하 재단인 잠부드비파(Jambudvipa)에 불가촉천민 여성수행센터 건립을 위해 1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가연대는 "TBMSG 인도지부가 불가촉천민 여성들에게 글자교실, 직업훈련, 명상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오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불가촉천민 중 더욱 소외되고 차별받는 여성들을 위해 여성수행센터를 건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공론조사는 절차적 민주주의로 포장한 대중주의이다 반환경 · 반불교 대통령과 정부에 맞서 정진할 것이다

우리는 9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에게 공론조사를 요청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공론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갈등은 노무현정부의 구태의연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산물이다. 환경문제,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문제에 이르러서는 더욱 여실하다. 공생의 가치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짐짓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좌면우고하는 가운데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이런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자 공론조사라는 그럴싸한 방안을 들이밀고 있는데,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로 포장한 대중주의에 다름 아니다.

국립공원은 절대 보존구역이다. 이곳만은 반드시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지역이다. 북한산 국립공원에 길이 4㎞, 폭 40m의 대형터널을 뚫는 것은 명백한 국립공원 파괴 행위이다.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는 공론조사라는 방법을 통해 국립공원 파괴 행위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환경 무대책' 정부임을 스스로 선언하려는 것인가. 국립공원마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의 개발사업으로 파괴하는 정부에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공론조사 강행 의도는 거짓말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모면하려는 속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공약으로 "북한산 관통노선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지난 시대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지도자들의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동북아 중심 국가를 지향하는 대통령이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빌미로 불교계를 농락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터져나오는 분노를 억제하며 진심으로 바란다. 거짓말하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불교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는가.

우리는 반환경 · 반불교 대통령과 정부를 원치 않는다. 환경의 보존은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공생을 구현하는 거룩함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최후의 보루인 국립공원 파괴에 맞서 위법망구의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수탈을 당연시했던 지난날의 참회이기도 하다. 국립공원이 파괴되는 것은 또한 사찰의 파괴이며, 수행과 신행의 억압이다. 불교는 조선시대 억불정책으로 탄압받았는데, 21세기에 이르러 정부와 사업자가 손잡은 '개발연합'에 의해 도량이 파괴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우리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으로 반환경 · 반불교 대통령과 정부에 맞서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며 정진할 것이다.

불기 2547(2003)년 11월 7일

불 교 환 경 연 대

천태종 전폭지원…금강대 개교 1년

‘소규모 특성화 대학’ 자리매김

운영효율 위해 서울대에 조직진단 의뢰

소수정예 교육과 과감한 투자로 관심을 모아온 천태종 종립 금강대(총장 박봉식)가 11월 7일 개교 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금강대는 세계화와 정보화를 목표로 국제적인 시각과 실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해왔다. 또 신설대학이라는 낮은 인지도와 지방에 위치한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고 ‘소규모 특성화 대학’이라는 차별화 전략을 시도해 왔다.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학교 운영과 발전을 위해 서울대에 조직진단을 의뢰,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개교 1년, 금강대는 전교생 장학생, 교수 1인당 학생 5명, 최첨단 교육시설 등 우수한 교육여건을 바탕으로 첫 해에 52명의 학생을 선발했고, 2004학년도에는 26명의 수시합격자를 모집하는 등 발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우수대학으로 키우기 위한 설립재단 천태종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금강대는 주목받는 대학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금강대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교육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3년 후에야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금강대는 아직도 3년이라는 준비기간을 갖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지속적인 투자와 외연을 넓혀나가야 우수대학의 문턱에 다다를 수 있다. 또한 200여 곳이 넘는 다른 4년제 대학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치밀한 차별화 전략과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최상재 금강대 기획실장은 “막대한 재정과 오랜기간을 투자해야 하는 교육불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단과 교직원,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수대학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대는 개교 1주년을 맞아 1학년 재학생 52명과 2004학년도 수시합격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7일 지관전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단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영통사 복원용 ‘통일기와’ 2차분 10만장 북에 전달

천태종이 개성 영통사 복원을 위해 지원하는 2차분 ‘통일기와’ 10만장을 11월 10일 북한 조선경제협력위원회 영통사복원추진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이를 위해 천태종 대표단 9명을 포함한 39명도 방북했다. 출발에 앞서 천태종은 임진각 광장에서 ‘영통사 복원 원만성취 2차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은 영통사 복원용 통일기와를 당초 40만장보다 6만장이 늘어난 46만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11월 6일 밝혔다. 10월 27일 있었던 1차 전달방문에서 6만여장의 기와가 더 필요하다는 수요예측 결과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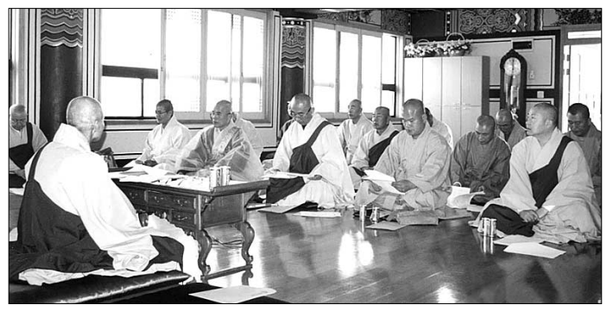
이에 따라 천태종은 기와 생산 일정과 영통사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해 전달 일정을 3차(10만장) 12월 4일, 4차(10만장) 2004년 3월 11일, 5차(6만장) 2004년 3월 23일로 변경했다.

박봉영 기자



죽산대종사 초대 종장 추대

한국불교임제선학원(종무총리 마정)은 11월 2일 성남 서광사에서 혜태당 죽산 대종사를 초대 종장(종정)으로 추대했다. 종무총리 마정스님은 추대사를 통해 “종장 죽산스님을 중심으로 종단의 기틀을 다지고 종풍을 널리 선양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중국 임제종 방장 가상스님과 대만 임제종 방장 정심스님, 중앙종회 의장 보광스님 등이 참석했다. 한편 추대법회에 이어 국제보살대계 수계법회를 열고 1천여 불자들에게 계를 주었다.



조동종 내년예산 확정

조동종 중앙종회(의장 진일)는 11월 6일 서울 목동 총무원에서 제30회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1억5천여만원의 2004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승인된 사업은 △중국불교 성지 참배 및 아미산 동방대불 수륙영산대재 봉행 △제9차 승려 연수교육 및 법계고시 △금강산, 개성 성지순례 등이다. 또 현재 진행중인 종도수첩과 종단 의식집을 출간하고, 종단 로고와 법계별 뺏지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열반종, 와우정사 우표전 열어 열반종(총무원장 해곡)과 용인우체국(국장 이정근)은 11월 3~5일 용인우체국 공중실에서 제1회 용인 와우정사 우표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시회에서는 와우정사 와불을 소재로 만들어진 우표 시안 35틀의 작품이 선보였다. 사진은 전시회 개막 테잎을 끊는 모습.

천태·진각 宗祖 사상·업적 조명

천태종 14일, 진각종 15일 학술대회

천태종 종조인 천태지자대사와 진각종 종조인 회당 대종사의 사상과 업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각각 열린다.

천태종은 11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관문사에서 ‘천태대사의 재조명’을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4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이재창)이 주관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두지원 중국사회과학원 교수의 ‘일념삼천 해독’ 논문과 타다 코오분 일본 대정대 교수의 ‘천태대사와 유마경’, 쟝 노엘 로베르 파리국립대학원대학 교수의 ‘종교사에 있어서 천태학의 의미’ 논문이 각각 발표된다. 또 한국 대표로 참석하는 이평래 충남대 교수의 ‘원효의 천태지관 수용’ 논문과 리영자 동국대 명예교수의 ‘천태교단의 관음행법 의례’ 논문도 소개된다.

다음날인 11월 15일에는 진각종이 ‘진각종문의 형성과 계승’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마련한다. 회당학회 주최로 대구 진각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는 회당학회 회장 혜정 종사의 주제 강연과 덕일 위덕대 정교실장, 경정 위덕대 부총장, 장익 위덕대 교수, 김경집 진각종 종학연구실 상임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된다. 이에 대한 총평은 시경심인당 주교 지광 종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진각종은 12월8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섬서성 법문사에서 ‘육자진언과 만다라의 세계’를 주제로 한·중 불교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진각종 회당학회와 중국불교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측에서 발표자·참관인 등 80여명이 참가하며, 중국측에서도 50여명의 중국불교협회 소속 스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종단소식

밀각심인당 50돌 행사

진각종 서울 밀각심인당(주교 회정)은 창건 50주년을 맞아 12월 20일 밀각문화제, 북한미술 특별전, 밀각 50년 사진전, 노인잔치, 기념법회, 밀각 50년사 발간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마련한다. 이에 앞서 밀각심인당은 한국전쟁 중에 호국도량으로 건립된 취지를 되새길 수 있도록 11월 3일 국가안정을 위한 49일 대정진 불공에 돌입했으며, 12월 21일 기념행사와 불공을 모두 회향할 예정이다.

본원종 정기중앙종회

본원종 중앙종회(의장 대운)는 11월 27일 서울 평창동 본원정사 내 총무원 청사에서 불기 2547년 정기중앙종회를 개최한다.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납골당 사업 등 올 하반기 사업 승인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미암사 달마상 점안

대각종(총무원장 만청)은 종단 본찰인 부여 미암사에 달마상과 대작비를 봉안, 11월 16일 오전 10시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법회에 이어 불자 연예인 초청 공연과 청동와불 봉안을 위한 모연행사도 열린다. 미암사의 달마상은 중국 선종의 초조인 달마대사의 주석처인 소림사에서 기증받은 영정을 바탕으로 조성됐으며, 대작비에는 달마대사의 행적과 달마상 봉안을 기념하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041)832-1188~9

게시판

행사 ▲부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 15일 오전 10시30분 복지관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사하구 관내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전화 또는 내방. (051)264-9033

▲(사)생명나눔실천본부는 11월 29~30일 포천 명성연수원에서 ‘중간 관리자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교계 직능단체별 신행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워크숍은 불교아카데미 정웅기 실장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김명희 부장 등의 강의로 진행된다.(02)734-8050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1월 13~27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12시 복지재단 강의실에서가정생활 교육특강을 실시한다. 35명 선착순 접수. 수강료 무료. (02)723-5101

모집 ▲범어사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은 실버티쳐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초·중·고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50세 이상 퇴직교사.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사진, 통장사본 각 1부. (051)516-6898

▲동국대는 야간 특수대학원인 불교대학원의 200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불교학과, 불교사학과, 불교사회복지학과, 장례문화학과 등 석사과정과 지도자과정. 원서접수는 11월 3~17일. 석사과정 입학전형은 19일 오후 1시에, 지도자과정은 20일 오후 2시에 각각 실시된다. (02)2260-3097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야간 특수대학원인 불교문화대학원의 2004학년도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전공분야는 불교학, 선학, 국악, 불교미술, 장례문화, 불교상담 등. 원서접수는 11월 10~20일, 전형일시는 22일. (054)770-2397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치매어르신을 돌볼 간병인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55세 미만 간병인 경력자로 간호조무사와 케어복지 이수자는 우대한다. (02)466-6248

▲연꽃마을 송파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무의탁 독거노인 방문 이·미용봉사자를 모집한다. 노환과 건강문제로 거동이 어려운 재가 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게 되며 수시모집. (02)2203-3677

구인 ▲남양주 보광사는 상담부장을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해당분야 유자격자 및 3년 이상 경력자. 모집인원은 1명이며 준비서류는 이력서 1부. 전화접수 후 면담 등으로 진행된다. (031)594-1316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태풍 “매미” 피해사찰
하동군 여래사 대웅전 불사 권선문

권선안내문

소납은 곡성 성륜사 청화큰스님의 문중으로 불도에 입문하여 부족하나마 반듯이 수행정진하며 성륜사에서 지장기도6년, 경북 김룡사 지장천일기도, 김제금산사 보궁에서 아미타 3년기도를 회향하고 부처님을 의지하며 오직 부처님을 모시는 것을 소명으로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도했습니다.
또한 소납은 발심하여 경남하동군 북천면 소재 여래사에 부처님을 모실 대웅전 건립불사를 진행중에 뜻하지 않게 태풍 “매미”로 공사중이던 대웅전은 쓰러졌고 요사채 지붕도 날아가 버려 이 불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 해야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소납의 마음은 천근으로 부처님께 죄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전국의 불자님, 여래사 대웅전불사가 진행되어 원만히 회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이권선이 원만하여 하루속히 대웅전에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할 날을 기다려 봅니다.

불기 2547년 10월
주지 정 수 합장


▲태풍“매미”로 무너진 대웅전

▲태풍“매미”로 지붕이 날아간 요사채

온라인계좌
농 협 833125-52-048739
우체국 611608-02-025357
예금주 : 염경림

대한불교 조계종 여래사 경남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1064번지 TEL 055)883-5879 • HP 011-207-5789

BBS 대구불교방송 www.dgbbs.co.kr FM 94.5 MHz
포항·안동 중계소 오는 11월 개국
중계소 설립 후원전화 060-701-0408 (한 통화당 2,000원)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 지난 1999년 영화 '매트릭스' 1편이 개봉됐을 때의 흥분과 감격을 기억하는가. 4년 여정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매트릭스의 최종편 '매트릭스 3: 레볼루션'이 11월 5일,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동시에 개봉됐다.

전작 시리즈들이 주인공들의 대사와 상황설정을 통해 불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매트릭스 3'는 완성도 높은 그래픽을 통해 불교의 '화엄세계'를 시각화 하는 성과를 낳았다. 비록 육신의 눈을 잃었지만 또 다른 눈(혜안)을 통해 빛으로 가득 찬 기계도시를 바라보는 네오의 시야를 보여주는 장면 등이 바로 그것.

매트릭스 시리즈는 화려한 특수효과 등의 오락적 요소에 동·서양의 철학을 조화시켜 적잖은 사회문화적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동양사상에 심취한 워쇼스키 형제 감독의 영향으로, 영화에 나타난 불교적 메시지에 대한 해석이 전 세계 불자들 사이에서 회자됐다.

개봉 첫 주 세계 영화시장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최초의 영화라는 기록을 남기는 등(매트릭스 2) 대중의 관심 한가운데 자리한 매트릭스. 시리즈마다 논란과 화제를 일으키며 새로운 문화형태를 창조해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트릭스3 레볼루션

그래픽으로 완성된 '화엄세계'
오락 요소에 불교메시지 가득
상반된 반응속 신문화 창조 평


◇매트릭스의 구원자, 네오.

'빛과 어둠' 깨달음과 현상계 둘이 아니다

불교적 세계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상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으므로 결국 허상이라는 것이 이 영화의 모티브이다. 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 모두가 '매트릭스'라는 기계 세상이 만들어 낸 허구라는 것. 이 사실을 알게 된 네오는 고통에 휩싸인다. 이는 사바세계는 '고(苦)'라는 부처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말초적이고 현상적인 것에만 둘러싸여 살다 혜안을 통해 바라본 중생계는 무명의 괴로움이 가득한 공간, 즉 '매트릭스'다. 3편에 이르러 동일시되는 '빛과 어둠'은 깨달음의 세계와 현상계의 공간이 둘이 아님을 암시한다.

불성의 발견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너 자신이고, 그것을 믿는 것도 네 자신이다." 1편에서부터 주인공 네오(혹은 미스터 앤더슨)는 "빨간약 줄까, 파란약 줄까"를 시작으로 끊임없는 선택(자유의지)의 기로에 선다. "내 안의 가능성(불성)을 믿고 선택할 뿐"이라던 주인공은 마침내 자신의 존재이유를 깨닫는다.

불교에서는 일체만물에 불성이 있으니 내 안의 부처를 믿으라 독려한다. 영화의 말미에서 오라클이 네오와의 재회를 언급했던 것은 누구라도 '그(the one)', 네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적 자아관인 것이다.

가장 불교적인 캐릭터는?

깨달음의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주인공 네오를 가장 불교적인 캐릭터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3편에 이르기까지 네오의 구도에 마구니 역할을 했던 스미스 요원도 '매트릭스 등장인물 중 최고의 불교도(?)'다. 스미스 요원은 네오에게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1편), 공존의 의미(2편), 집착(3편)이라는 화두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 특히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됐던 3편의 빗속 격투신에서는 화려한 액션 뿐 아니라 스미스 요원이 네오에게 던지는 대사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매트릭스' 속에 나타난 불교사상

전문가 리뷰 : 영화평론가 하재봉

■ 워쇼스키 형제가 감독한 '매트릭스' 3부작의 마지막 '매트릭스3 레볼루션'이 전 세계 동시 공개되면서, 지난 1999년 5월 시작된 '매트릭스'의 대장정이 끝났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다. '매트릭스'가 우리에게 던져준 화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과연 진실된 것인가, 내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매트릭스'를 한 편의 할리우드 오락영화에 머물게 하지 않고 우리 시대의 문화적 핵심에 자리 잡게 한 이유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매트릭스' 속의 사상은, 기독교적 구원과 희생의 모티브를 바탕으로 불교의 선사상, 희랍비극, 플라톤의 동굴, 데카르트의 회의론, 보들리야르의 시뮬라시옹 개념 등 잡다한 동·서양 문화가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부를 살펴보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불교사상의 핵심과 만난다. '매트릭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불교의 인연설, 윤회, 마음의 문제, 무의 개념, 해탈과 깨달음의 추구 등이다.

스미스는 2편에서 네오와 만나 이렇게 얘기한다. "외형은 속임수이고 우리의 존재이유는 따로 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실은 자유롭지 못해서야. 이유나 목적은 부정할 수 없지. 우린 목적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우린 너 때문에 존재한다" 의 존재가 너 때문이며, 결국 너와 나는 동일하다라는 스미스의 인식은, 3편에서 오라클이 네오를 보고 "스미스가 곧 너야"라는 말로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네오와 모피어스는, 매트릭스의 원천인 소스로 들어가는 길을 알고 있는 키메이커를 찾기 위해 정보거래상과 마주한다. 정보거래상은 "이 세상에 불변하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인과관계. 작용과 반작용, 원인과 결과"라고 말한다. 그것은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과 맞닿는다. 모든 것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식,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 것은 3편의 핵심 화두인 "시작이 있는 곳에 끝이 있다"로 선명해진다.

이것은 업의 변용에 다름 아니다. 욕망과 집착, 괴로움에서 눈을 떠서 진실 된 자신의 마음을 찾고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려는 불교의 교리는 '매트릭스'에 그대로 적용된다.

3편의 마지막에서 기계의 심장부로 진입한 네오가 평화를 외치며 기계와 인간의 공존을 조건으로 타협을 시도하는 것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의 마지막 죽음을 상기시키지만, 기독교적 희생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선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중도의 불교사상과 더 가깝다. 정립과 반정립의 극단을 종합하여 양쪽을 다 살려내는 것이 불교의 중도이다. 그것은 인식론적 측면에서 실천의 의미를 강하게 띄고 있다. 시리즈를 마감하는 대단원의 막은 네오의 중도사상에 의해 끝난다.



불교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명대사들

1편 : 매트릭스(Matrix)'

– 모피어스: "마음을 자유롭게 하면, 몸은 저절로 따라오지. 모든 것을 버리게. 두려움, 의심, 불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네."

– 스푼 걸: "스푼을 휘려고 하지 말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대신 진실을 깨달아야 해요. 스푼은 없어요. 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죠. 당신의 마음이 휘면, 스푼도 휘어져요."

2편 : 리로디드(Matrix: Reloaded)'

– 오라클: "자네는 선택하기 위해 여기(매트릭스)에 온 게 아니야.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를 깨닫기 위해 온 거지."

3편 : 레볼루션(Matrix: Revolution)'

– 오라클:"시작이 있는 모든 것은 끝도 있다"

– 스미스 요원: "너희들 인간의 삶의 목적은 '끝(죽음)'을 위한 것일 뿐이지. 왜 포기하지 않는 거야? 모든 것이 환상이고 망상이며 집착일 뿐인데."

한상희 기자



건강 100% 적중

냄새를 완전 제거하여 놀라운 효능을 갖춘 식품이면서
"여성생활에도 으뜸" 이 되고 있는 토종마늘환(丸)

토종마늘은 예로부터 '일해백리'의 식물로 불려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백가지 이로운 점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때문인데, 이 알리신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활성화 시켜 줍니다. 마늘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은 몸에 흡수된 당질을 에너지로 바꾸어줌으로써 피로감을 없애주고 온몸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정력,간기능,시력을 높여주고 손발냉증, 변비, 요통이 사라지며 강한 항암작용 및 다이어트, 미백효과, 중풍, 신경통, 당뇨병 등에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결과 마늘의 주요성분인 알리신에 암세포증식을 억제하는 항암작용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장 · 장정 · 식욕부진 · 정장 · 변비 · 보온 · 향균 · 구충 · 정신안정 · 이뇨 · 혈압강화 · 각기 · 신경통 · 신경마비 등에 효험이 있다
– 이시진의 본초강목 –

100% 토종마늘은 무엇이 다른가?

- 건강식 또는 양념으로 써온 식물로 다양한 약리 작용을 한다.
- 장(腸)에서 흡수가 잘되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한다.
- 세포내 침투가 잘되고 성기능을 강화 시킨다. 혈애순환이 잘된다.
- 항암작용을 한다. 성인병 예방과 정력 증강에 효과가 있다.
- 고혈압은 낮추고 저혈압은 정상치로 끌어올린다.
- 비타민C와 섭취하면 당뇨에 효과가 있다.
- 인체내 지방을 분해해 비만 예방에 특효가 있다.
- 만성 감염에 효험이 있다.
- 비만, 심장병 예방에 특효.
-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 표준소비자가 특별분할 : 42,000원×4개월= 168,000원(6개월분)
◎ 공주양잠농업협동조합 직거래 사업단 02)755-9821. 080-200-4545



◇흥천사 감로탱화 좌측 하단부에 그려진 멱살을 붙들고 싸우는 학생들의 모습. 혹시 한국학생들과 일본학생들의 다툼이 아닐까?



◇1939년에 제작된 흥천사 감로탱(192×292㎝). 일본 군국주의의 팽창에 따른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다. 기존 감로탱에서 사용한 도상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창출했다. 이 감로탱에는 전차, 전봇대, 전화기, 양복을 착용한 인물 전대에 볼 수 없었던 20세기의 풍경들이 묘사돼 있다.



◇코끼리가 조련사의 채찍에 따라 묘기를 부리고 있다. 무대 한편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 있는 순사와 관중들 틈에 선그라스와 중절모를 쓴 신사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중생의 번뇌 · 아픔 담은 새로운 시도



◇수원 용주사 대웅부전에 봉안된 감로탱화 '2002 한 · 일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해 신장들 상단 오른쪽에 축구공을 삽입했다.

'탱화의 변신' 어떻게 볼까?

일반적으로 탱화하면 자애로운 자태의 불 · 보살과 칼과 도끼, 비파 등을 들고 눈을 크게 부릅뜬 사천왕의 모습을 연상한다. 그러나 최근 관음사를 비롯한 21세기형(?) 최신탱화들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대중에게 좀더 친숙히 다가가고 있다. 탱화의 변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그 시대 상황 표현…불심 일으킬 것 신장 지물엔 상징성…단순흥미 지양"



◇대구 관음사 대웅전에 봉안된 신중탱화(3.2×2.7m). 호법신장들 손에 쥐어진 노트북, 휴대전화, 미사일, 방독면, 비행기 등이 이색적이다.

▷ 탱화란?

탱화란 본래 부처님이나 보살의 초상, 혹은 경전의 내용 등을 그려 벽에 거는 그림을 말한다.

탱화는 372년(고구려 소수림왕)이전에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 때 그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았다. 그러나 조선조 배불정책에 의해 경직되고 도식화된 모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불교의례의 특징상 법당 상단에는 불 · 보살의 모습을 담은 후불화를 봉안하며, 중단에는 부처님과 불법을 옹호하는 신장의 모습을 담은 신중탱화를 봉안한다. 또 하단에는 감로탱화를 봉안하는데, 감로탱화에는 주로 조상숭배의식을 비롯한 중생들의 속세 일상과 지옥의 고통 등이 그려진다.

▷ 각 시대 중생상을 반영하는 탱화

탱화 속에는 시대상황이나 중생들과 함께 고민하는 불교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신장이 휴대전화 등 최첨단기기들을 들고 있는 신중탱화를 봉안한 우학스님(관음사 주지)은 "과거에 신장들은 칼과 도끼, 비파 등으로 중생들을 괴롭히는 악귀와 고통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미사일폭격과 각종 생태 · 화학전이 난무한 현시대에 이러한 기물들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었다"며 "이런 고전적 형상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기는 어렵게 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탱화의 변신은 그 동안 고답적이고 정체된 미술로 평가받던 불교미술에 대한 인식전환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본존불의 신앙적 성격을 구체화하는 후불화를 제외하고 부처님과 불법을 옹호하는 호법신장 모습을 담는 신중탱화와 제례의식 등 생활풍속을 담은 감로탱화는 수호의 대상과 시대상에 따라 그 내용과 지물이 변화되어 왔다. 특히 조선조에 성행한 감로탱화는 육도중생의 묘사기법과 표현양식에 있어 각 시대의 중생상을 솔직히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의 대표적인 흥천사의 감로탱화를 살펴보면 전기와 전철 등 신식문물의 도입과 그로인해 가중되는 중생들의 혼란과 고통이 고스란히 표현해 놓고 있다.

탱화는 사회상 반영뿐 아니라 새로운 도상의 창출과 서양화법 도입 등 꾸준히 변화되어 왔다. 최근에는 수원 용주사와 대구 관음사, 광주 선덕사 탱화 등이 그 계보(?)를 잇고 있다.

▷ 엇갈린 평가

관음사 신중탱화를 제작한 박소현 씨 등 불화작가들은 "신중 · 감로탱화의 경우 삼국시대 때부터 이미 당시대 중생들의 모습을 담아냈다"며 "속세의 번뇌와 중생의 아픔을 고스란히 표현한 현대적 탱화야 말로 신도들의 불심(佛心)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찰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은 "감로탱화의 경우 풍속과 생활상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은 사실이나 신중탱화에서 예배의 대상인 신장들의 지물을 휴대폰이나 미사일 등의 현대기기로 바꾸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며 "신장들이 들고 있는 검, 도끼, 비파 등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서 중생의 무명을 끊고 지혜를 구하는 등 불교적 상징성이 있는 것이므로 단순한 흥미로 쉽게 바꾸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Ⅲ-1030] 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원이 '제1회 공불련 봉사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2일 서울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중국동포 불교도와의 화합 한마당'에서 겨울용 내의를 선물하고 있다.

중국동포 불자들과 한마당

감사원 등 10여 정부기관 불자회원들
인사·다과회·겨울내의 선물 온정 나눠

공불련 첫 봉사의 날

"동포애는 자비심의 또 다른 말이었습니다. 봉사의 참 뜻을 바로 여기에서 확인했습니다."

'제1회 공불련 봉사의 날'로 제정된 11월 2일. 공무원 불자들이 서울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중국 동포 불자들을 만났다. 감사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정원, 성북구청, 서울지방경찰청 등 10여개 정부기관 불자회원 30여 명이 '중국 동포 불자와의 한마당'에 나섰고, 서로 인사 나누기, 다과회, 겨울내의 선물 전달 등 온정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만남은 유익했다. 식당일을 하며 한국에서 생활한 지 3째인 이모씨(중국 절강성·45)는 고국 동포에게 느꼈던 서운함을 어렵게 털어놓았다.

"사실 우리 중국 동포들은 한국 속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똑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고국 동포들에게 느꼈던 섭섭함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20여명의 중국 동포들. 최근 불법체류신고기간 마감 임박은 이들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노옥섭 회장은 "앞으로 중국 동포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마련해 신뢰관계를 다지고,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겠다"며 "이와 함께 장애인 사찰 순례, 복지시설 방문 등 늘 그늘지고 소외받는 곳을 찾아 봉사하는 불자 공무원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 불자회 19일 창립

경불회 산하지회 100곳 돌파

경승·경찰출신 포교사 활동 큰 힘

전국의 경찰불교회 수가 처음으로 100곳을 돌파한다.

대한민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겸·이하 대한경불회)는 오는 19일 경북 구미경찰서 불교회 창립을 기점으로 산하 지회 불교회가 100곳을 넘게 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현재 경찰청 산하 지방청, 경찰서, 경찰학교 등 255곳 기관의 39.2%에 달하는 수치로, 2001년 4월 대한경불회 출범 때보다 43곳이 늘었다.

대한경불회의 이 같은 성장은 지난 2002년 경찰청 내 개설한 중앙사무국이 기존 57곳의 불교회를 재조직화하는 한편, 13개 지부별 불교회가 미창립 불교회 결성에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또 경승단 소속 경승과 경찰출신 25명의 상임포교사의 포교활동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법회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은 등산 및 사찰참배 등의 소모임 결성, 지역별 연계활동 강화 등의 조직 활성화 효과를 낳았다.

대한민국경찰불교회 김진홍 사무국장은 "이번 100호 불교회 창립은 경찰불자들이 그간 치열하게 실천해온 포교 원력을 재확인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조직운영의 내실화, 교계 신행단체와의 연계활동 등을 통해 경찰불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소년소녀가장에 장학금
부산불교운전기사회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박평진)는 지난 10월 30일 코모도호텔에서 창립 15주년 기념법회 및 소년소녀가장 학자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영주암 회주 정관스님,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을 비롯 회원과 회원가족 6백 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법회에서 부산불교운전기사회는 차내 모금함을 통해 모금된 450만원을 박대순(부산동고) 학생 외 14명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또 박평진 회장은 조계종총무원장인 법장스님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박평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5년 전의 초발심으로 돌아가 세상 모든 이의 마음 밭에 자비의 싹을 틔워 불국정토가 될 때까지 거리의 포교사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불교운전기사회는 1988년 7월 창립된 이후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를 표방하며 월별 사찰순례, 안전운전 기원법회 개최, 장애인 승차시 특별할인 혜택, 분기별 자연보호 봉사활동, 장학사업, 도로환경 정화사업, 노인 영정 사진 찍기 등의 봉사행을 펼쳐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남대문署 불자회
강화 보문사 순례

'남대문서 불자회 강화 보문사 성지순례'. 서울 남대문경찰서 불자회(회장 김규찬·부청문관)는 2일 경불회원 30여명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도법사 현봉 스님의 인솔하에 강화 보문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김철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불우 이웃돕기 가을 법회

대한민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겸·사진)는 16일 충남 마곡사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가을 큰 법회'를 봉행한다. (02)313-0815



11월 한달, '칭찬하기 운동'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오길수·사진)는 바른 신행정진 캠페인 일환으로 11월 한 달 동안 '주위 사람에게 칭찬하기 운동'을 벌인다.



운불련, 범어사서 수련법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조홍인·사진)는 8일부터 9일까지 부산 범어사에서 하반기 정기 수련 법회를 봉행했다.



서울·경기지부, 임원회의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서울·경기지부(지부장 임창홍·사진)는 3일 서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실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교사불자련 창원지회 창립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경남지부 창원지회(회장 강영철·사진)는 9일 창원 성주사 대웅전에서 창립 총회 및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소보원, 수덕사 등 성지순례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회장 노영화·사진)는 9일 충남 예산 수덕사와 개심사 일대로 성지 순례법회를 다녀왔다.

우리불자회는요

불교법조인회

요즈음 젊은 세대들에게 법조인이란 개념은 언뜻 머리에 연상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알더라도 딱딱한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불자들입니다. 세간 법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꽃피우는 불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불자법조인들은 산사와 인연이 깊습니다. 고등고시(후에 사법시험)의 합격을 위한 공부를 사찰에서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산사는 항상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었고, 산사에서의 생활은 자연스레 부처님 가르침에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부처님 가르침의 명쾌함은 삶의 의미에 목말라 있던 고시생들에게 감로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후 법조인이 된 그때의 고시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게로 다가감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법조인들은 흔히 개인적이 성향이 강합니다. 제각기 자신의 근기에 맞추어 개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뿐 조직적으로 모임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1966년경 이미 작고하신 변기업 변호사와 심순은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서울 근방에서 근무하던 일부 판사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시 서울 서소문에 있던 서울지방법원의 직원 식당에서 간헐적인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 뒤 허향 변호사의 노력으로 이러한 모임은 규칙적인 모임의 형식을 띄며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김홍근 변호사가 회장이 되면서 서울 청호불교회관 등지에서 정기적인 예불을 가지게 되었고 검사들도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명실상부한 법조인의 불교모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비록 종교적인 성격의 모임이기는 했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가 비공식적인 모임을 갖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판단에서 판사와 검사는 독자적인 모임을 갖기로 했고, 그 뒤로는 변호사들만의 단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불교법조인회는 현재 전창열 변호사를 회장을 중심으로, 서울 인근의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0여명을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교법조인회원들이 올 10월 강원도 철원 도피안사에서 순례법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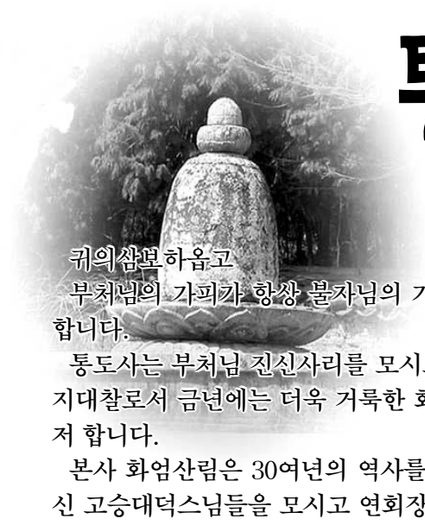
세간법률로 불법의 꽃 피우는데 주력
월말께 위빠사나 수행법 강연·법회 계획

불교법조인회는 그간 왕성한 신행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봄과 가을, 1년에 2회 전국의 훌륭한 사찰을 순례하면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또 순례법회행사와 수시로 널리 선지식을 초빙하여 강연을 듣는 특별법회와 연초에는 신년법회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춘계 순례법회로서 전북 완주인근의 자원봉사를, 추계순례법회로서 강원도 철원인근의 도피안사와 심원사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는 11월말 경 위빠사나 수행방법에 관한 강연을 겸한 법회를 열어 다양한 수행법을 경험하는 자리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유시창 총무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불자님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통도사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으며, 불지종가 국지대찰로서 금년에는 더욱 거룩한 화엄산림 법회를 봉행코저 합니다.

본사 화엄산림은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경설에 뛰어나신 고승대덕스님들을 모시고 연회장 세계의 불보살님께 귀의할 수 있는 장엄한 법석(法席)을 마련하는 법회입니다.

인연있는 많은 불자님들이 무루 화장장엄세계의 불보살님께 귀의하여 업장을 소멸하고 보리심을 발하여 지혜와 복덕을 닦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선망부모와 일체영가를 천도, 이고득락케하여 한량없는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불기 2547년 11월 일

입재 — 2003년 11월 24일(월)(음 11월 1일) 10:00
회향 — 2003년 12월 22일(월)(음 11월29일) 10:00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영가 천도재를 지냅니다 ■

장 소 통도사 설법전

회 비 1개월 동참비 : 100,000원(비표 배부)
반산림 : 50,000원 영가동참비 : 1위당 10,000원

교통편 및 시간
• 부산지역 • 온천장 지하철역 앞(08:00~09:00) - 본사차량 및 한솔고속관광
• 구포방면 : 구포3거리(07:40) → 덕천동쌍용자동차앞(07:50) → 화명주공소방서앞(08:00) → 롯데마트(08:10) → 금곡역(08:20) 양산자금성(08:30) → 통도사
• 울산지역 • 공설운동장(07:30) → 학성공원(07:35) → 우정지하차도(07:40) → 구 고속터미널(07:50) → 공업R(08:00) → 무거R(08:10) → 고속도로 → 통도사(부성고속관광)
• 대중교통 • 부산노포동종합터미널, 천일일반고속,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문의 및 접수처 통도사종무소 (055)382-7182
기와접수처 (055)381-1288 회계실 (055)382-7187

2003년도 화엄산림 법사 일정표

음력	양력	요일	법 사	법문하실 품
11/1	11/24	월	부방장 초우스님 전계사 혜남스님	입재법문 현담
2	25	화	지안스님	세주묘엄품
3	26	수	원산스님	여래현상품
4	27	목	도영스님	보현삼매품/세계성취품
5	28	금	종석스님	화장세계품
6	29	토	각성스님	비로자나품
7	30	일	자광스님	여래명호품/사성제품
8	12/1	월	약산스님	광명각품/보살문명품
9	2	화	반산스님	정행품/현수품
10	3	수	해월스님	승수미산정품/수미정상게찬품/십주품
11	4	목	법산스님	범행품/초발심공덕품/명법품
12	5	금	인환스님	승아마천궁품/야마천궁게찬품/십행품
13	6	토	정락스님	십무진장품
14	7	일	정우스님	승도솔천궁품/도솔천궁게찬품
15	8	월	철우스님	십회향품 제5까지
16	9	화	현해스님	십회향품 제6~제10
17	10	수	월운스님	십지품
18	11	목	월운스님	십정품
19	12	금	홍선스님	십통품/십인품
20	13	토	현진스님	아승지품/수량품
21	14	일	진철스님	제보살주처품/불부사의품
22	15	월	향과스님	여래십신상혜품/여래수호광명공덕품
23	16	화	무관스님	보현행원품
24	17	수	종광스님	여래출현품
25	18	목	전계사 혜남스님	오전법문 생략 아세간품
26	19	금	보각스님	입법계품(7)휴사우바니까지
27	20	토	종범스님	입법계품8 비목구산선인-31바산바연주야신
28	21	일	종범스님	입법계품/32보덕정광주야신/40구바녀
29	22	월	전계사 혜남스님	입법계품(41마야부인-50유덕동녀-51미륵보살) 회향법문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이산 현문 합장

세미나 2題

'불교의 과학과 철학' '화엄세계와 정보기술의 만남'

양자역학과 사이버세계가 인드라망에 걸렸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의 '불교의 과학과 철학'(10월 31일 서울대),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과 전자상거래연구소의 '불교의 화엄세계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만남'(11월 4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세미나가 바로 그 자리.

2500여년전 부처님의 사상인 인드라망이 21세기 첨단과학인 양자역학과 사이버세계와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엄경〉에 나오는 그물인 인드라망은 세계의 모든 사물은 이 그물에 달려있는 구슬들처럼 서로 자신의 빛을 주고받으며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표현된다. 양자역학에서 미시세계의 개체가 서로 상관성을 보인다는 개념과 그물망처럼 얽힌 인터넷 네트워크와 그물코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가 만든 가상공간이 인드라망의 구조와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고려대장경 연구소 세미나에서 불교와 과학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외형적 유사성만으로 불교-과학 비교는 위험

'불교의 과학과 철학'에서 '양자론에 대한 몇몇 자연철학적 단상과 불교'를 발표한 최종덕 상지대 철학과 교수는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진 개체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상관성을 보이는 공동의 한 체계'라고 말한 닐스 보어(Niels Bohr)와 같은 양자역학자들의 주장을 기반으로 양자역학과 인드라망과의 관계를 논했다.

최 교수는 양자 차원의 입자운동 상태를 인드라망 구조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전제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무경계의 마음을 다루는 불교의 언어와 경험세계의 경계를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려는 자연과학의 언어를 그 외형적 유사성만으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인간의 또 하나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그는 "직접적인 비유가 나쁘다기보다는 이러한 비유가 불교의 신비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라며 자칫 불교가 과학에 편승해 신비화되거나 주술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 그는 "양자상태와 인드라망 상태가 같다는 말을 통해서 현대 양자역학의 이론이 이미 불교에 다 들어 있었고 그런 이유로 불교 사상이 위대하다는 주장을 한다면 불교 스스로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언어적 비유는 윤회의 끝이 연기에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에서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몇 가지 우려되는 갈등만 해소된다면 연기설 혹은 화엄의 관계론을 통한 과학과 불교의 실천적 소통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종덕 교수 우려점들 해결되면 연기론과 소통 가능

조윤호 교수 현실외면 화엄·사이버세계 추구는 기만

화엄사상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전개되는 현실에 대한 불교적 이해방식을 설명하는 논문도 있다. '불교의 화엄세계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만남'에서 조윤호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화엄사상과 사이버세계'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반복적인 상호작용과 쌍방향성 소통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과 공동체가 형성된다"며 "이같은 사이버 공간의 속성은 화엄 불교 인드라망의 보석(객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의존하며 존재하는 것과 비교된다"고 말했다.

사이버세계와 법계의 실재성과 가상성에 대해서는 "깨달은 자의 눈에 비친 세상인 법계가 비록 중생에게는 신비한 환상적 세계로 보일지 모르나, 이것이야말로 세계의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실상·實相)이다"라고 말한다. 화엄세계=실재, 사이버세계=가상 이라는 공식 아래 그는 마지막 충고를 던진다. "화엄세계건 사이버세계건 그 기반은 현실이다. 현실에 발 딛지 않은 화엄세계, 사이버세계의 추구와 몰입이야말로 자기 기만적이고 도피적인 사이비(似而非) 삶이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서구성 반성하고 우리본성 성찰할 때"
"남북·남남갈등 화쟁사상으로 해결"

'혼돈과 해체의 시대 正·諍·和의 의미'

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불련 총동문회와 불교지식인연대가 공동주관하는 '혼돈과 해체의 시대, 정(正)·쟁(諍)·화(和)의 의미'라는 주제의 '불교사회사상 토론광장'이 11월 7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광장에서는 이각범 정보통신대학원 사회학과 교수가 '포스트 모던 사회와 불교사상', 성태용 건국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한국사회와 화쟁 사상의 현대적 조명'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이각범 교수는 "근대사회가 갖고 있는 논리 일면성, 기계성, 단순성을 파헤치면 불교적 사유가 제시하는 포괄성, 복합성, 상호연관성이 언제나 본질을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근대사회에는 자본과 노동, 중심부와 주변부, 지역 갈등, 남성과 여성, 세대 갈등 등 양분법에 익숙해 있다"며 "불교에서 모든 존재는 상호의존성의 관계 속에 있어, 무상의 법 아래에서 굳이 상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근대성에 대한 성찰이 활발한 지금이야 말로 우리가 근대성과 서구성을 반성하고 잃어버린 우리의 본성을 성찰할 때"라며 "그 속에서 자비실천행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연과 하나 된 인간으로서, 세계 속의 한 나라로서, 그리고 더불어 사는 인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성태용 교수는 원효의 화쟁·부사의업(不思議業)·정토사상을 통해 한국의 여러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시각을 제시했다. 성 교수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불교의 다양한 교리를 통일적으로 조망하는 화쟁사상은 계층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며 "화쟁사상의 틀 속에서 볼 때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인 수직적 줄세우기는 지양돼,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전체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의식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녀의 문제는 남녀라는 차별을 벗어난 사람이란 입장을 바탕으로 둘 사이의 문제를 보고, 부사의업 사상으로 조화를 이루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외에도 남북문제, 남남갈등 등도 원효의 화쟁사상으로 해결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탑(1)

열반의 상징

"제행은 무상하고 이는 생멸의 법이니라. 생명이 멸하여 다하니 적멸을 즐기노라."

쿠시나가르에서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면서 마지막 독백같이 한 말이다. 번거로움을 떠난 열반의 경지인 적멸(寂滅), 그것을 상징한 것이 바로 탑이다.

석가모니의 유해는 화장을 하였는데, 인근 나라에서 석가모니의 유골인 진신사리를 서로 가져가겠다고 분쟁을 일으켰다. 결국 석가모니의 제자 드로나가 이를 중재하여 사리를 여덟 쪽으로 분배하였다. 그리고 나서 드로나는 사리가 들어 있는 병을 가져가고, 뒤늦게 당도한 나라에서는 남은 재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8개의 사리, 병, 재를 모신 무덤 10기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 무덤을 스투파라 한다. 이로부터 100여 년 뒤 기원전 3세기에 아소카왕(재위기간 기원전 268경~232경)은 8개의 사리탑을 열어 이를 다시 8만4천 기의 사리로 나누어 스투파를 봉안하였다. 이를 계기로 스투파 신앙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초기의 예배대상은 열반의 경지를 상징하는 탑이었다.

이 스투파신앙은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 한국, 일본에 전파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범어는 스투파이고 파리어로는 투파이고, 한자어로 탑파(塔婆)로 번역되면서 탑파를 간단히 탑이라고 지칭되었다. 또한 불사리를 모신 곳을 적멸을 즐긴다는 석가모니의 말에서 따와 적멸보궁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탑이라 하면 원래 8만4천 기의 불사리를 모신 무덤을 가리킨다. 그러나 절마다 세워지는 탑에 불사리를 모두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리나 불경 등을 대신 봉안하고 이들도 포함하여 모두 탑이라 부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해진 사리는 549년(진흥왕 10년) 양나라에서 보내온 불사리이다. 사신을 통해 불사리를 보내오자 왕이 백관과 함께 흥륜사에서 맞이하였다. 그렇다면 흥륜사에 불사리를 처음으로 봉안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645년 자장법사가 중국에서 가져온 불사리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역사이다.

자장법사가 중국 태화지 못가의 돌로 만든 문수보살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7일째 되는 날 문득 꿈에서 부처님이 네 구절의 시를 주었다. 깨어보니 그 시 구절이 모두 범어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이튿날 문수보살이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범어로 된 시의 뜻을 풀어주고 붉은 깁에 금점이 있는 가사 한 벌과 부처님의 바리때 하나, 부처의 머리뼈 한 조각을 주면서 잘 간직하고 있다가 신라로 가져가라고 부타했다. 자장법사는 643년(선덕여왕 12년) 부처의 물건들을 신라로 가져와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경주의 황룡사, 울산의 태화사, 양산의 통도사에 모셨다.

2000년 6월 통도사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된 황룡사의 진신사리 2과를 1400여년 만에 세상에 공개하였다. 하나는 4mm, 다른 하나는 2.8mm의 크기로 구슬과 같이 투명하였다. 8만4천기의 불사리에 대한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높다. 가끔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불사리를 모셔와 탑을 세운다는 소식이 크게 화제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된 적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드러난 예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황룡사 9층 목탑지 : 자장법사가 가져온 불사리를 모신 탑 중의 하나이다.

불사리·불경 모신 무덤 … 예배의 대상
인간의 적멸에 대한 간절한 소망 담겨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11月 셋째주, 넷째주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可,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제 232 호
감 사 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173-20
최 영 식
귀하께서는 평소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오셨으며 특히 경찰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제58주년 경찰의날을 맞이하여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권 지 관

파동명상요법으로 수많은 강력사건(유괴살해,강도, 강간)을 해결하는데 기여도를 인정받아 제58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부산 지방 경찰청장으로 부터 본 감사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알바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49재, 천도재, 생전 예수재, 바라춤, 나비춤 등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하신 곳은 연락주십시오
011-9209-5691
051-265-5692
범음범패, 제의식, 염불, 바라춤, 나비춤 배우실 스님 연락주십시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45세~55세
백운계곡 주변
011-317-0448

천도재, 점안식, 예수재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387-0361
016-428-6665

50대~60대초반으로 절에서 생활하실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서울
011-758-0286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효자사 혜성 합장

부전 스님을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경기 고양시
017-266-2793

구병시식, 영가천도, 빙의천도 전문
구병시식, 천도재 및 불교의식 강의
봉천동 혜명정사
02-889-2456

유 명 침 구
♥ 저의 업계는 침구류 제조 업계로서 새 상품은 물론 사용하시던 제품을 보료, 방석, 이불, 요, 솜을 살균 소독 재생하여 맞춤, 제작하여 드립니다.
♥ 제품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2)998-1717. 011-702-2015
02)999-1717. 011-320-6296

사찰을 구합니다
세수 58세, 법랍 40년
혼자있는 비구스님입니다
사찰운영이 어렵거나 비어있는 사찰 주지를 맡고자 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1-517-8415

깊은 산에서 천일기도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011-696-8500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422-6757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 부산
051-542-4848
011-551-1719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55-335-6449

기도 스님을 모십니다
055-385-4111

스님을 찾습니다
· 법명 : 유용호 · 속명 : 유동우
· 고향 : 강원도 황지로 알고 있슴
찾는분 허남옥
· 헤어진지 26년됐슴.
이 글을 보시면 스님 꼭 연락주세요
02)494-5526

時間易法
사주없이 시간만으로 간편하고 쉽게 인간의 모든 길흉화복을 점 할수 있는 時間易法을 개인지도합니다
016-366-9182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수자령 영가천도재는 9月예정
▷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九星學
신비의점술
[구성학의 기초]
[구성학의 사주풀이]
저자 직강
011)340-1472

진흥 단식원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산좋고 물좋은 곳 요양할 수 있음
사찰에서 운영하는 곳
054-874-4670
011-534-4670

법인정규직원모집
부전스님, 총무보살
법당보살, 공양주보살
(보시는법인규정에 의함)
사회복지법인 일붕사.일붕복지관
055)572-7777

한새올 – 생활법복, 승복
생활법복과 승복전문 제조사 한새올에서 전국대리점 및 취급점을 모집합니다
www.hansaeol.com
051)644-6624
017-544-6020
※홈페이지 제작 및 쇼핑몰 제작

콕 !
찝어내는 오방철학관
☎ 02)763-5678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청량암 · 창건주지 : 박연창(효산)
· 주소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산 7
위 사암은 절사정에 의하여 귀 종단을 탈종하고자 공고합니다
불기 2547년 9월 29일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법해사 · 속명 : 유영민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505-11
위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 종풍과 맞지않아 탈종하고자 공고합니다
불기 2547년 11월 12일
대한불교 본원종 총무원장 법하

정 통 풍 수 지 리
▶ 강좌 : 매주 수요일
주간반 : 오후 3~5시
야간반 : 오후 7~9시
[현장지리풍수] 저자 직강
▶ 관산 : 매월 1, 3째주 일요일
▶ 업무안내
전국 유명 명당(穴) 상담
풍수컨설팅및음,양택감정
지회 학회에 오시면 많은 혈처를 관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리풍수연구원 02)762-3330
www.poongsoo.net. www. jiripoongsoo.com

성수철학원(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수강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 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시장 네거리 (명당약국 3층)
053)472-4784. 018-531-2237

평생을 함께 할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남.여 행자님과 처사님을 모십니다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극락정토 도량입니다
011-289-0476 / 031-868-1832

전통 침·뜸 세미나
◈ 중국연수(요녕성 중의연구원) 입학자는 무료로 수강
◈ 개강 : 11월 19일 (수) 오전 11시(공개강좌)
◈ 의료 봉사를 원하는 단체에게는 무료로 봉사합니다
★ 중의 침구학 연수를 위한 세미나★
-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면 침구과, 중의과 결업(졸업)과 침구사, 중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슴
★ 과목 : 체침(전통침), 구법, 부항요법, 이침, 양도락기, 특수특종침, 활법, 피부관리, 대체의학, 마사지 등
★수업기간 : 매주 1회 오전 11시 ~오후 5시
관광포럼 · 중국문화원 02)456-4248~9. 016-221-4516

역경학 개인 지도
강사 : 대주 스님
내용 : 특수비법 최단기 완성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02)962-0867. 011-741-0867

志 晛 易 理 學 硏 究 院
◆역학학강의:
- 자강이석영단원아병렬선생의정통 학문강의(초급~연구반)
◆작명학강의:
- 본명사주의오행균형법부족된자원보충협수리법음령법의체계적인이론연구
◆건강학강의:
- 자연오행과사상체질사주학의 선천적후천적인질병관계
- 섭생에 의한 영양의흐름환경에 의한질병이론연구
- 오장육부의 장기복진법기맥혈맥진법등의수지침시술법의자의 관리의 이론(무료주1회)
지현역리학 연구원 수시 모집 (현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환영)
서울시서초구서초동 1330-18현대카림오피스텔1004호 (강남역3번출구)
www.지현역리학연구원.wo.to (이달의 건강메모)
02)2243-9598. 018-470-6314

운세(20초내) 바로 맞추면 보세요
02-826-5067(명리학 사주첩경 전문)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은 몸은 아픈데 병명은 없고 하는일에 침체가 많다
부부간에 정이 없고 다투기를 잘한다
자녀가 시험볼때마다 실수를 잘하고 아는 문제를 잘 틀린다
자녀의 결혼운이 안 좋으며 자녀와의 의견충돌이 심하다
이상은 명리학으로 판단하므로 굿이나 부적등 부담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매 화 역 수 강 좌
매화의 맑고 독특한 향처럼 오직 수리학(1~9)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어느분이나 매우 재미나고 쉽게 배울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명리학 수준이 최고위 과정까지 업그레이드 됩니다
▶ 개강 일정 : 2003. 11. 7 주1회 금요일 (1개월 완성) - 09:30~12:00
▶ 강사 : 매화역수, 명리학 교과서 저자 직강(교재무료)
▶ 장소 : 화암빌딩 402호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사암침술학회 011-307-2975. 02)2267-9136

눈
안구 건조, 눈물, 충혈, 피로, 눈곱, 침침함, 눈부심, 희미함, 시력 강화 다른 질병관련 시력 저하된 분 경전을 많이 보시는 스님, 불자님
일본특허 : 2790212 식약청 HSK : 2106909099
미국특허 : 5382714 상표출원 : 2002-5278069-80
◆제조원 : 日本(주)MERCURY-MK(완제품 수입)
눈밝은세상 (02)2237-8004
전국 대리점모집 – 홈쇼핑 홍보준비중
제품정보:http://eye88.hihome.com (한글) : 눈밝은세상



사찰 옥(玉) 불교용품 (제작.시공) 귀
◆ 옥불상제작 - 삼존불, 만불전, 산신상
◆ 사찰시공전문 - 옥석탑 및 옥구조물 제작
◆ 설계조경시공 전문 - 옥 · 석 납골함, 황옥석재
하나무역(주) 전화 : 053-962-3986
하나석재상사 휴대폰: 016-808-3986

『현대불교』 신문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합시다. "복도 짓고 포교도 하고... 지금 동참해 주십시오"

■ 구독신청 및 법보시 동참안내 · 구독신청 ☎ 02)737-0090(直) 02)737-8881(代) · 구독료 : 월 5,000원 · 법보시 동참 : 매월 1천원이상 원하시는 금액으로 동참

부처님의 자취가 그리워 떠나는...

佛敎聖地

삼보에 귀의 하옵고...
성지순례 전문 혜초여행사는 12년을
初心의 마음으로 佛者님과 함께합니다.



혜초여행사
HYECHO ADVENTURE TOURS,LTD.
대표 : 02)733-3900 / 직통 : 02)6263-4848
대구사무소 : 053)567-8848
www.hyecho.com

불자님들이 편안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친절!과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 할인 항공권 ▣ 여권 제작 대행 ▣ 세계 각국 비자 수속 대행업무
※ 스님은 수수료없이 대행하여 드립니다.
◆ 서울 담당자 : 석채언 / 이진영 / 김진석 / 이아름
◆ 대구 담당자 : 신동우, 김선희

싱가폴 항공 전세기 취항!!! (싱가폴 ↔ 부다가야) 후원 SINGAPORE AIRLINES

인도 / 네팔 佛敎聖地巡禮 佛敎 聖地巡禮만을 위한 싱가폴항공 특별기가 최고의 佛跡地인 부다가야로 모십니다.

1차 전세기 : 11월 21일 NO팁! NO옵션! 단 2회!
● 동참금 189만원
● 순례지 : 인천-싱가폴-가야-라지기르(8대성지)-나란다(최대의 불교대학)-파트나-바이살리(8대성지)-쿠시나가르(4대성지)-룸비니(4대성지)-스라바스티(8대성지)-고락푸르-바라나시(갠지즈강)-녹야원(4대성지)-부다가야(4대성지)-싱가폴-인천
● 포함사항 - 개인경비를 제외한 일체

● 2차 전세기 : 12월 8일
● 순례지 : 싱가폴-가야-부다가야(4대성지)-바라나시(갠지즈강)-쿠시나가르(4대성지)-룸비니(4대성지)-스라바스티(8대성지)-럭나우-델리
● 포함사항 - 개인경비를 제외한 일체

불교성지 배낭여행 - 108만원
※ 일정은 불교성지 순례여행과 동일합니다.
● 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료, 인도 성지순례에 따른 교통, 숙박, 가이드
● 불포함사항 : 비자, 관광진흥기금, 식사, 입장료, 싱가폴 지역 관광
*** 승가대학, 신행단체, 학생 단체 대환영!!! 미리 계획하시면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성지 순례가 될 것입니다.



고품격 인도/네팔 성지순례 NO팁! NO옵션! 15명 이상일 경우 1분은 무료로 모십니다.(15 + 1 free)

▣ 불교성지순례 - 8박 9일(아시아나항공) 215만원
※ 델리 직행편을 이용하여 편안하고 빠르게 다녀오실 수 있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 일정 : 인천-델리(1)-락나우-스라바스티(1)-룸비니-쿠시나가르(1)-파트나(1)-라지기르-보드가야(1)-바라나시(1)-아그라-델리-인천
● 출발일 : 1/8, 2/5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 불교성지순례 - 10박 11일(싱가폴 항공) 225만원
※ 불교성지순례는 물론 인도 문화유적지의 보고 델리/아그라의 여유있는 탐방과 싱가폴 투어까지 이어지는 엄선된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 일정 : 인천-싱가폴-델리(1)-락나우-스라바스티(1)-룸비니-쿠시나가르(1)-바이살리-파트나(1)-라지기르(죽림정사)-보드가야(1)-바라나시(녹야원)(1)-아그라(1)-델리-싱가폴(1)-인천
● 출발일 : 12/25(성도재일), 1/26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성지지역 및 각 도시 최고의 호텔과 한식 전문 요리사가 함께 합니다

▣ 불교성지순례 - 12박 13일(상가폴 항공) 259만원
※ 8대 성지와 불교미술의 보고 아잔타,엘로라 그리고 산치 대탑의 화려함까지 느껴보실 수 있는 불교성지순례의 모든것이 담겨 있습니다
● 일정 : 인천-룸바이(1)-오랑가바드(1)-보팔(1)-산치-아그라(1)-바라나시(1)-보드가야(1)-라지기르-파트나-쿠시나가르(1)-룸비니-스라바스티(1)-락나우-델리(1)-인천
● 출발일 : 12/8, 1/2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인도 호텔팩 시리즈
미리 호텔과 기차예약을 해두고 안전하게 떠납니다. 2명이상 수시출발!!(복대+티셔츠+안내문까지)
인도기본 10일 109만원(주중) ● 일정 : 델리-바라나시-아그라-자이푸르-델리
인도핵심 15일 123만원(주중) ● 일정 : 델리-자이푸르-아그라-오차-카쥬라호-바라나시-델리
인도/네팔 22일 139만원 ● 일정 : 룸바이-엘로라/아잔타석굴-아메다바드-우다이푸르-자이푸르-델리-아그라-카쥬라호-바라나시-룸비니-카트만두

겨울 티벳 단체 배낭 8일 133만원
해발 4,000m 겨울 티벳고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순박한 티벳 사람들의 문화를 자유롭게 둘러 보실 수 있습니다.
● 출발일 : 11/22, 12/20, 1/17
● 포함사항 : 국제선, 국내선 티벳여행 허가서, 숙박 전용차량, 여행자보험, 전문인솔자, 현지가이드
● 불포함 사항 : 관광진흥기금. 현지공항세, 식사비, 입장료, 개인경비

티벳 세미배낭 여행 시리즈
3-4명이 팀을 이루어 광활한 티벳 고원을 질차로 달립니다.
● 출발일 : 매주 화, 목, 토, 일 (3-4인 수시 출발 가능)
● 상 품 : ❶ 티벳 8일 - 155만원 ❷ 티벳 11일 - 179만원 ❸ 티벳 / 네팔 8일 - 169만원 ❹ 티벳 / 네팔 11일 - 179만원 ❺ 동부티벳 12일 - 183만원 ❻ 티벳 / 에베레스트 BC / 네팔 16일-197만원
● 포함 사항 : 국제선,국내선,티벳여행허가서,숙박, 전용차량, 여행자보험,전문인솔자,현지가이드
● 불포함사항 : 관광진흥기금,중국비자비,현지공항세,식사비,입장료

인도 네팔 문화탐방 시리즈
➜ 인도 네팔 하이라이트 13일 ₩2,490,000 ● 출발일 1/18 1/25 2/8 2/15
인도의 대표적 관광지와 네팔을 함께 돌아보는 실속 여행
● 일 정 : 델리→자이푸르→아그라→오차→카주라호→바라나시→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델리
➜ 인도 네팔 일주 17일 ₩2,890,000 ● 출발일 12/11 12/25 1/1 1/8 1/15 1/29 2/12
몸바이, 엘로라, 아잔타, 산치대탑을 포함한 인도 북부와 네팔을 돌아보는 알찬 여행
● 일 정 : 몸비이→엘로라/아잔타→보팔/산치→델리→자이푸르→아그라→오차→카주라호→알라하바드→바라나시→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
➜ 인도 네팔 문화 대탐방 33일 ₩3,950,000 ● 출발일 12/29 단 한차례!!!
신비의 땅 인도 대륙과 히말라야 왕국 네팔을 한바퀴 돌아보는 인도 여행의 진수...
● 일 정 : 캘거타→푸리→코니락→부바네스와르→첸나이(마드라스)→마말라푸람→폰디체리→스리랑강→마두라이→빙갈로르→험피→고아→몸바이→아잔타/엘로라석굴→보팔(산치대탑)→델리→자이푸르→아그라→전시→카주라호→알라하바드→바라나시→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인천

대만 5일 95만원 11/23
중국 구화산/황산 5일 11/24 89만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김천 / 법당 : 13평 / 요사 : 30평 / 부지 : 335평 / 가액 : 1억7천
- 위치 : 강원 / 법당 : 15평 / 요사 : 20평 / 부지 : 980평 / 가액 : 1억8천
- 위치 : 충남논산 / 법당 : 2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713평 / 가액 : 3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터 · 암자터 · 휴양지 · 별장터

- 장소 : 충북 단양 향산석탑 인근
- 임야 : 만평(준농림), 전 230평, 전래샘물 有
- 남한강 : 300m, 도로 : 150m 진입로 有
- 적송 : 만주이상(50년생이상), 낙엽송 : 5천주이상(37년생)
- 송이버섯 매년 입찰 들어옴
- 가액 : 5억 5천만원. 주인 직접.

032)553-8835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청옥산
- 부지 450평, 대지 100평
- 주위 1천여평 하천부지사용가능(방생법회)
- 요사 5평, 방3,주방,세탁실, 세면실
- 법당10평(비로자나,석가모니불,약사여래부처님)삼존, 최근 아미타삼존불 불사
- 지장 기도 도량
- 가액 : 1억 2천만원

011)9486-8133 / 054)673-8133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 김천, 상주에서 20분 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천3백만원 (집기 일체 포함)

011)462-5275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 시내 요지
- 부 지 : 150평
- 법 당 : 15평
- 요 사 : 20평
- 가 액 : 1억 3천
- 위치 : 대구,경산 20분거리
- 면 적 : 400평(실사용800평)
- 법 당 : 30평(불사중)
- 요 사 : 30평
- 가 액 : 8천만원(급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포교당 최적지 안내

- 위치 : 종로구 교북동 대로변 최고 요지
- 30평 3층 현재 법회중
- 삼존불, 후불, 신중, 관음, 단군 탱화, 영가전
- 종무실1, 식당1, 방1,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1백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스님이 1개월 지원함)

02)385-6708 (주지) 011-761-6231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월출산 국립공원문화재보호구역내 소재 웅장한 미륵바위와 빼어난 산세, 남쪽 금강산
- 평수 : 총면적 3천평(허가필,등기필), 종교용지 1600평, 임야 1400평, 법당 30여평, 요사채 40평, 기타 10여평
- 건물 현식, 교구본사, 사찰, 연수원, 수련원, 기도터, 기타 종교 시설
- 주차장완비. 시내와 5분거리 / 사리 33과
- 가액 : 4억 5천만원(절충 가능)

011)613-1775/016)838-9394

종교시설 최적지

- 자연 녹지 9,300평
- 위치 : 경주 위덕대학교(진각종)와 접하고 국도 7호선(우회도로)상에 위치
-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 43번지)
- 가액 : 평당 20만원(절충 가능)

011)9366-0210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내
- 대지 : 80평
- 법당 : 40평
- 요사 : 80평
- 양도가 : 6억

※ 역사 깊은 도심 사찰임

〈포교당〉
- 위치 : 경기도 광주시내
- 평수 : 60평
- 보증금 1천, 월 50만
- 시설비 : 답사후절충

※ 도심포교당으로 최적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 신행정수도부근
- 특징 : 현시대에 찾기힘든 명당 기도 도량
- 산속이면서 고속도로에서 5분, 국도에서 3분거리에 있슴
- 부도설치 가능
- 부처님 모시는 불사 가능
- 가액 : 12억

011)568-441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IC근교 4km지점
- 종교용지 600평, 임야 16000평
- 법당 40평, 요사채 60평
- 천년 고찰지. 문화재(마애불)있슴
- 복지시설 환영.분할 매매 가능
- 가액 절충 가능

02)394-1870
011)9691-4941

사찰임법당 안내

- 포항 근교 조용한 바닷가
- 내용 : 현대식 2층건물. 1층 22평, 2층 32평, 조립식 15평, 심야전기. 용왕기도 휴양처로 최고. 주차 무한대
- 가액 : 2억 2천만원

011)9372-5977

포교당 안내

- 부산 수영구 민락동 4층
- 크기 : 55평, 법당, 방 4개
- 주방1개, 화장실 2개
- 보증금 2500만원,월 70만원
- 도심속의 포교지
- 광안리 해수욕장, 바다가 한눈에 보임

011)595-1522
051)759-9058

토굴 별장 펜션 안내

- 위치 : 남 덕유산 자락
- 부지 : 1,631평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가액 : 5억3천만원(대출 가능)
- 특징 : 맑은 개울과 집뒤의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 주인 직접 살고 관리해 옴

016)367-2112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588-19(식물원 입구)
- 평수 : 39평
- 법당, 방2, 주방,욕실,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300만원

011)9238-6626
011)9399-8673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매여동 팔공산 근처
- 4만2천평. 절터 있음
- 소나무, 밤나무 울창. 계곡 물 좋음
- 대구시내에서 5분거리
- 가액 : 4억2천만원

017)513-6544
053)564-6375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연기고려대 17분거리
- 부지 : 5900평
- 법당, 요사채2, 산신각1, 화장실
- 평당 3만원
- 정남향. 개울. 전망 좋음

041)863-1489

토굴대명당지

- 위치 : 여주 점동면
- 대지 603평
- 정남향. 조경완비. 민가없슴
- 최고 풍치. 도로, 개울 접
- 수행 불자 환영
- 가액 : 평당 29만원

018)315-9080

사찰(급)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 시설 일체. 용왕단
- 가액 : 3억 3천만원(절충가능)

011)226-2880

사찰(급)안내

- 선방 토굴 1개
- 대웅전1, 용왕각 1, 방15개
- 관음도량, 약수물
- 부산과 진해사이 공단지역
- 가액 : 4억

011)855-1116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부지 : 사용평수 2백평 중 100평 등기.
- 법당 목조 22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방3개, 주방1개, 5층석탑
- 바위불상, 다수 민속품으로 경내조성
- 환산의 지기가 집중된 명당터로 270여호마을소재. 옥천 톨게이트 및 대전 국도접 2~3분
- 가액 : 1억 3천만원

043)733-8186 / 011)9405-818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안양전철역에서 2분거리
- 상가 4층중 3층
- 법당,삼존불,신중탱화,산신탱화
- 평수 : 2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 시설비 : 2천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31)448-5611
011)380-5611

사찰(급)안내

- 후덕사
- 대지 : 전 200평
- 법당, 요사, 신축건물, 급매
- 앞에 1급수 냇가
- 절이 옛도량과 같이 좋음
- 가액 : 1억5천5백만원

054)262-6673
011)9302-0343

사찰 안내

- 고성, 삼천포, 사천 15분거리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 부지 : 90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11)579-4758

사찰(급)안내

- 위치 : 춘천시 효자2동 신동아아파트 건너편
- 대지 : 120평
- 법당, 요사(목조 건물) 지은지 50년
- 가액 : 1억 3천만원

011)9969-8743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 계양구 작전동
- 상가건물 2층 35평
- 법당(반), 베란다(大), 화장실2개, 요사채(반), 부엌
- 시설비 : 1300만원(법당제외)
- 점포세 : 1천만원, 40만원

018)303-5487
032)549-8634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영동군 양강면
- 부지 : 200평
- 법당20평, 요사채 31평
- 가액 : 5천만원
- 특징 : 경관수려하고 석불로 지장보살 포대화상 모셔져 있음.
- 주위에 돌탑이 30여개 쌓여져 있고 1천평정도 사용할수 있음.
- 과일나무 2년생정도 40여주 있슴

016)409-4502
043)744-3331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주택가
- 대지 203평, 현거래시가 260만(5억2천7백만원)
- 사정상 급 평당 195만(3억9천5백만원)
- 법당 30평, 요사채 25평, 5층, 7층 탑
- 백년이상된 고목 1그루
- 포교 적합지 / 화장실 남2, 여2
- 주차 7~8대 가능 / 주인 직접, 소개인 사절

011)883-7856

사찰 안내

- 부산시 동래구 사직1동 70-2
- 용문사 포교원
- 전세 3500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 : 1700만원
- 4층에 4층. 32평
- 시설 완벽. 즉시 법회 가능

011)9548-8667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 성남시 주택 밀집지역
- 평수 : 45평
- 법당, 거실, 방2, 창고방1, 주방, 화장실
- 보증금 1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1600만원

011)678-0807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동래구온천초등학교옆
- 아파트 2천세대. 포교 적정지
- 건물 5층 5층 40평
- 방1, 부엌, 화장실
- 법당 2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51)557-6598
011)9599-1284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상인동 대로변 4층 건물 중 2층
- 평수 : 70평
- 방2, 부엌, 화장실, 법당 3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3천만원

011)822-6104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두류네거리 부근 인구밀집지역. 위치좋음
- 평수 : 52평
- 방2(大1, 小1), 공양간, 실내 화장실
- 삼존불, 신중전, 영가단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보시함

018)747-0408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
- 법당 20평, 요사 20평
- 산신각, 용왕각, 승방1
- 약수물 풍부
- 백년 고찰
- 주지스님 병환으로 양도
- 가액 : 9천만원

016)617-8778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진주간 소재
- 대지 : 250평
- 법당 : 25평
- 요사채 : 30평 1동, 20평 1동
- 가액 : 1억 6천 500만원
- 산신각, 용왕단(자연수)

016)421-9154

영가천도 회향법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선망 부모, 형제, 자매, 질손 49재 및 천도재를 못해주신 분은 과일과 다과 조금만 장만해 오십시오.

무보시로 정성껏 모셔 드리겠습니다.

◆부탁말씀 - 형편이 좋으신 분은 주위 사찰에서 모셔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분만 연락주십시오.

042)841-2195 011)9422-9299
지장도량 보덕사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동화사가는 중간(도화동)
- 대지 : 80평
- 건물 : 2층건물(2층 1천소불 모심) 1층(가게) 방 5칸
- 가액 : 2억3천만원(융자1억1천포함)

용 운 사
011)541-9987
053)983-0053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음성
- 부지 : 764평
- 건물 : 법당 15평(전통목조), 종각3평(전통목조), 요사채
- 불사할수 있도록 조경완비 했음
- 가액 : 3억

011)462-039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평수 : 85평(2층건물 2층)
- 방5개, 욕실2개, 주방大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 도심속의 포교 적지
- 지하철, 버스정류장 앞
- 주차장 완비
- 보증금 4천만원, 월 90만원

011)551-1719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52번지
- 평수 : 150평
- 지장 기도 도량
- 보증금 3천만원, 1년에 3백만원
- 현 법회중(산을 접하고 있음)

053)961-0224
016)684-8810

산사의 포교당

- 위치 : 서울 구로구 오류동
- 법당 : 20평
- 삼존불,후불,신중,칠성, 산신탱화,산신동불
- 요사채 30평 1동, 20평 1동
- 역에서 도보로 5분. 등산로에 위치. 법회 즉시 가능
- 시유지 500평 점유
- 전세 4천(계약기간 5년이상),시설비 3천

011)327-5863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시 대흥동 보문산길
- 3층 건물중 2층 33평
- 삼존불, 후불 탱화, 지장불 108불, 신중단
- 옥탑방, 지하 사용가능
- 몸만 와서 운영가능
- 전세 2천, 시설비 1800만원

011)9867-9822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 평수 : 30평
- 삼존불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53)565-8212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아산 20분 거리
- 임법당 30평, 목조 황토 기와
- 부지 약 1천평중 430평 등기
- 산세 계곡 좋고 청정지역
-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나들목 4 km지점
- 2006년 완공 예정
- 가액 : 1억 5천만원(절충 가능)

011)9291-0624

암자 안내

- 조용한 암자. 산세 수려
- 흐르는물 최고
- 법당, 산신각, 요사채
- 전세, 월세 가능

011)9126-2266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북구덕천로타리에서 약 5분거리. 구포시장내
- 평수 60평, 방4개. 주방시설 완비
- 삼존불, 신중 탱화, 지장불, 지장 탱화 모셔져 있고 산신탱화. 시설 A급
- 보증금 : 1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천500만원

055)386-7463
016)355-4264

포교당 안내

- 위치 : 일산 신도시
- 평수 : 114평(7층 중 5층)
- 법당1, 사무실1, 공양간1, 방 4, 화장실 2, 욕실1
- 시설 , 위치 A급
- 가액 : 좋은 조건

※본인이 분양을 받아 포교원을 하였으나 개인의 사정에 의해 양도하고자 함

011)749-4553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봉방동
- 실내면적 : 30평
- 법당, 상담실, 공양실, 주차장
- 보증금 200만원
- 시설비 : 800만원

018)222-7939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 답 : 760평
- 법당(목조) 15평, 요사채 30평
- 한옥(목조)
- 가액 : 3억(절충 가능)

011)9799-8326
033)532-832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정2동 포교원
- 25평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 삼존불, 후불, 신중 탱화

011)816-3289

암자포교당최적지

- 위치 : 전주 시내. 시장버스정류장
- 오거리건널목. 사람이 꾸준히 움직이는 밀집지역
- 단독 한옥 고가집
- 나무상태 80%, 대지 80평
- 법당 모실수 있는 평수 20평
- 큰방5, 전체 수리 즉시 입주
- 은행융자됨, 도로간판 설치됨
- 새로 창건을 원하시는 비구니스님, 법사님,보살님, 재자님께서는 4시이후 답사후에 가격 절충 바람

063)246-8481~2 / 011)650-8481

목어

부정식품



이근후
본지논설위원
열린마음클리닉 원장

"날씨가 좋은 날 아침 잠자리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도대체 이 세상에서 정말로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이 얼마나 될까 하고 손꼽아 헤어보면 단연코 맨 처음에 손을 꼽아야 할 것은 음식이다."

중국의 작가 임어당이 한 말이다.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음식은 우리들의 생명을 이어주는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또 그 맛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한한 만족과 기쁨을 주기도 한다. 만일 음식을 구할 수 없다면 천금의 보화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해서 어떤 음식이던 음식은 생명유지의 첫손가락으로 꼽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된 먹거리 부정들이 듣고 보는 이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사건들이 몇 있다. 물먹인 조기, 썩은 생선으로 어묵 만들기, 유독화합물로 더덕 탈색하기, 쇳가루 섞인 고춧가루, 눈 가리고 돈을 버는 수작들이 한둘이 아니다. 음식 소비자로서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부정식품의 결과가 금방 식중독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해야 나타나는 만성적인 증상들도 있다. 만성적인 증상은 자신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른 체 계속 부정식품을 먹고 있는 것이다.

음식과 약품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첫째다. 식품은 생명유지의 근원적 에너지 소스이고 약품은 질병을 앓는 사람에겐 구세주 같은 존재다. 이를 돈에 눈이 어두워 사람을 속이는 사람에겐 강한 벌칙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좀 원시적인 방법이긴 해도 자신이 속여 판 부정식품이나 부정약품을 몇 년간 먹어야 한다는 판결같은 것이 있어도 될 것 같다. 음식과 약품의 부정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종교간 화해·협력 이끈 시튼연구원

종교간 대화와 이해를 돕기 위해 활동해 온 씨튼연구원(원장 김승혜)이 열 번째 생일을 맞았다. 씨튼연구원은 1994년부터 불교·가톨릭·개신교·원불교·유교 성직자와 학자들이 참여한 연구활동과 매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개최해 다종교사회에서의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왔다. 5개 종교인들은 11월 5일 10주년을 맞아 열린 심포지엄에서 10년동안 뿌린 종교간 화해의 씨앗이 싹을 틔워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기원했다.

장군죽비

청와대 방송사 초청에 불교방송 제외

노무현 대통령은 11월 4일 KBS, MBC, SBS 등 5개 방송사 간부들을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종교방송 가운데 기독교방송이 유일하게 만찬에 초대됐을 뿐 불교방송과 평화방송은 제외됐다. 이를 두고 언론사 차별 조장, 종교편향 등의 지적이 제기되자, 청와대 이병완 홍보수석은 "급박한 일정 때문에 제대로 연락하지 못했고, 의전관계상 참석대상을 5명으로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불자 세상보기

노희정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한신대 강사

우리 놀이문화의 현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할로윈'(Halloween)과 관련된 상품들이 대박을 터트리면서 '할로윈 풍속'이 급속도로 문화 시장을 점령해 가고 있다. 지난 10월 31일이 바로 '할로윈 데이'(Halloween Day)로 불린다. 우리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재현하는 데에 아무런 주저함도 느끼지 않는다. 이미 할로윈은 신조어로서 한국어 목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용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10월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씩 앗아가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유통된 낯설고, 생소한 말이 이 땅에 상륙하여 10월의 마지막 날에 대해 의미부여를 새롭게 하고 있음을 뜻한다.

할로윈 데이가 우리에게까지 온 것은 강력한 상업주의 물결을 타고 이 땅에 상륙한 '발렌타인 데이'나 '크리스마스'가 우리 사회에 유통된 과정과 비슷하다. 1990년대 초부터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할로윈 축제도 함께 들어왔고, 불과 3년 전에는 특급호텔이나 고급 클럽에서만 열렸던 할로윈 축제가 최근에는 영어학원과 유치원은 물론 거의 모든 호텔과 각종 클럽들이 그 상업적 가치를 인식해서 이 날을 이벤트성으로 기획하여 붐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할로윈 데이'가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축제가 주는 즐거움과 상업적 이해가 소비자들에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할로윈 데이는 기원에 있어서 매우 종교적이다. 유럽의 켈트족은 인간의 죽음과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죽음의 신인 삼하인(Samhain)을 믿었다. 당연히 삼하인은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진정시키고, 죽은 자의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베풀었다. 이날의 의식인 삼하인 축제가 모든 성인의 날(만성절, Toussaint 혹은 All Hallow Day), 즉 11월 1일의 하루 전날이라 해서 'All Hallow's Eve'라는 명칭으로 바뀐 후에 'Halloween'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이 풍속이 생산된 유럽 지역에서는 시들해지고 있는데, 미국에 전파되면서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와 함께 3대 명절로 꼽을 정도로 큰 축제가 되었다. 이런 열기는 그대로 우리 사회에 옮겨왔다. 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 즉 유학생들이나 이민자들에게는 미국 문화에 익숙해 있어서 이러한 문화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왕에 미국 문화가 우리 가까이 스며 있는 마당에 굳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해서 거부할 만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제공해 주는 '축제와 놀이'의 기회이다. 구획된 도시 속에서 마법에 걸린 듯이 일상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축제와 놀이는 긴장을 해소시켜 주며, 단조롭고 재미없는 일상에 삶의 활기를 되살려 준다.

우리사회는 이렇다 할 축제와 놀이가 없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유통되지 않고 있다. 할로윈 축제가 제공하는 희극적이고 역설적인 축제와 놀이의 이미지는 두려움과 긴장으로 표현되는 삶의 종교적 심각성을 해소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이방의 신화적 동기를 축제적 문화상품으로 재현하여 유통시킨 미국사람들의 문화적, 상업적 전략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다는 씁쓸한 마음을 뒤로 하고서 할로윈 축제가 제공하는 유머와 재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반추해보아야 할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생사 있는 의례로서 화장문화 정립

최근 화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서울시의 화장률이 1991년 24.2%, 1999년 41.9%, 2002년 57.1%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화장 후 산이나 강에 유골을 뿌리는 산골이 새로운 화장문화로 부각되고 있다. 11월 4일 열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산골과 관련해 제시된 의견들을 정리했다.

〈정리=이동혁 기자〉

묘지 폐해 파악 대국민홍보 나서야



김외정
임업연구원
산림경영부장

산림은 생명의 원천이다. 산림은 인간 삶의 질 향상과 지구환경을 살릴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한다. 산림에서의 묘지조성은 묘지 그 자체가 비생산적인데다 국토경관과 환경의 쾌적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제 수도권의 난개발과 산지재해 발생, 탄소배출권 손실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외부효과마저 유발하고 있다.

묘지가 일단 조성되면 사후 단속이 대단히 어려운 사회 정서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조성 억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묘지의 조성 실태와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국적 묘지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지리정보시스템과 같은 정보체계를 확보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국민에게 잘 알리면 매장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산림에서 집단묘지 조성을 억제해 나가기 위해 집단묘지와 납골시설의 산지전용허가조건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친환경적 산골장묘 문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에서의 수목장묘시설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특히 산림의 보건기능 증진 차원에서 추모전용 휴양림의 조성을 위한 부처간의 정책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유림 주변 주민의 인식과 관행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복지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상정책도 필요하다.

시설, 제도 보완과 질적향상 시급



박복순
(사)한국장묘문화협의회 사무총장

최근 5년여 동안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펼쳐온 화장장려운동은 우리나라의 장묘문화에 있어 변화의 물꼬를 트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화장률이 급증하면서 이제는 화장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화장의 경제적, 실용적 측면만 강조하는 화장장려는 우리나라의 '죽음문화'를 천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으로서의 화장이라면 그것은 문화가 아니라 쓰레기처리방식에 불과하다는 따끔한 지적도 있다.

또한 납골묘, 납골탑 등의 난립으로 인한 환경파괴 및 자연경관훼손은 화장으로 인한 매장 못지않은 폐해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며 세계적 추세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화장문화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삶과 죽음을 연결해 주는 의례로서의 화장문화를 새롭게 정립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죽음문화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화장문화의 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시설과 제도의 보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우선 아래 산골제도 단계적 도모



이필도
서울보건대
장례지도과 교수

전통적인 장례방법으로 볼 때 산골은 강이나 산에 화장한 유해를 뿌리는 것으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산골을 위한 별도의 법적, 제도적 규제가 없었다. 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매장 및 화장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산골에 대한 내용은 거의 언급돼 있지 않다.

다만 장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깊이를 30cm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다.

그리고 시행령 제13조의 사설납골 설치기준에 재단법인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묘를 설치할 경우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강이나 산에 화장한 유해를 뿌리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금지되는지, 산골로 인한 자연환경의 오염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 산골의 위법성여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골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 산골 장려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시민 70% 이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반해 산골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자연환경 훼손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 후 산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정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또 화장 및 납골시설의 확충을 병행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골제도의 단계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4학년도 전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불교대학원(야간) ☎ 2260-3097~8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지도자과정
- **모집학과:** 불교학과 - 불교학, 선학 / 불교사학과 - 불교사
  불교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 장례문화학과 - 장례문화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3(월) ~ 11. 17(월), 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19(수) 13:00, 본대학원
  (지도자과정 전형일시 : 2003.11.20(목), 14:00)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
- **특 전** - 재학중 해외연수, 국내외 성지순례, 사회복지기관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
  - 조계종 및 한국불교종단협의회소속 종단 재적승려, 조계종 종무원,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사학교직원, 불교언론인,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학위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취득하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
  - 장례문화학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및 지도자과정 수료자는 장례지도사 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

문화예술대학원(야간) 신입생 · 편입생 ☎ 2260-3606~7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지도자과정
- **모집학과:** 문예창작학과 - 문예창작
  공연영상예술학과 - 공연예술 · 영화영상예술
  불교예술문화학과 - 불교미술 · 한국음악 · 문화재
  예술경영학과 - 공연예술경영 · 조형예술경영
  예술치료학과 - 미술치료
- ※ 미술치료전공의 경우 미술 · 심리학 · 사회복지 · 유아교육 · 특수아동교육 등 관련학과 출신자에게는 서류전형시 우대할 수 있음
- ※ 석사학위청구논문제도 : 희망에 따라 논문이나 실기를 선택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19(수) ~ 11. 25(화)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29(토) 10:00, 본대학원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

불교문화대학원(경주 · 야간) ☎ 054-770-2394~5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지도자과정(불교, 문화예술, 장례문화, 불교상담지도자과정)
- **모집학과:** 불교학과 - 불교학, 선학 / 불교예술학과 - 국악, 불교미술
  인간학과 - 장례문화, 불교상담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10(월) ~ 11. 20(목), 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22(토) 14:00, 본대학원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
- **특 전** - 각 사암 중진급스님 및 불교단체임원, 불교교양대학수료자, 포교사, 국악인, 불교미술 종사자, 문화예술단체 및 장례문화관련단체 임직원 전형에서 우대
  - 조계종 및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재적승려, 공무원, 교직원 등은 소정의 학비 감면
  - 본교의료원(양 · 한방병원) 의료혜택부여 및 국내외 성지순례의 기회 제공
  - 불교지도자과정 1년이상 수료자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고시 지원자격을 부여
  - 장례문화전공 불교상담전공 4학기이상 수료자는 소정의 자격인증서(대학원장 명의)발급

사회과학대학원(경주 · 야간) ☎ 054-770-2093~4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최고경영자과정
- **모집학과:** 행정학과 - 정책개발, 지방자치
  경영학과 - 경영, 전자상거래, 세무관리, 무역실무
  국제관계학과 - 국제관계 / 법학과 - 법학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 / 사회체육학과 - 사회체육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24(월) ~ 12. 5(금), 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2. 6(토) 14:00, 본대학원(진흥관 1층)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
- **특 전** - 행정학과 입학자는 필수과목 이수시 정책분석평가사 1급 1차시험 및 2급시험에 가산점 부여, 사회복지학과 졸업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자격취득 및 2급 자격증 취득, 사회체육학과 졸업자는 1급 경기지도자 응시자격 및 1급 생활체육지도자 일반과정 응시자격 부여
  - 공무원, 교직원, 군장교, 조계종 재적승려 등에게 졸업시까지 장학금 지급
  - 육군본부, 포항특정경비지역 사령부의 학 · 군 제휴 위탁생에게 특별장학금(등록금의 50%) 지급
  - 본교 의료원(양 · 한방병원) 의료혜택 부여

-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 공지사항 참조 -

2003년 불교교육능력평가를 위한

제2회 연합회 포교사고시 실시 공고

불교교양대학보호와 정보제공을 위해 창립한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서는 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자로서의 기본 소양, 불교교리의 이해, 사회봉사 참여의식, 불자로서의 가치관등에 대하여 불교교육능력평가고시를 시행하여 실천불교를 위한 정법포교의 선구자역할을 할 불교포교사를 배출하고자 제2회 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함

· 연합회에 등록된 교양대학(교육과정 1년 이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2004년 1월 4일(일) 오후 1시~오후 5시** (필기시험 및 면접)

· **2003년 11월 17일(월)~11월 29일(토)**

· 서울 풍문여자고등학교 (종로구 안국동)

· 응시원서(소정양식)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수계첩 사본
·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진 2매(반명함판)
· 응시료 50,000원
(국민은행 023-01-0566-256 한국불교교육연합회)

· 학교별 일괄접수

· 서류전형 → 1차 시험(필기시험 및 면접)
→ 최종합격자발표 → 최종합격자연수 및 품수

· 2004년 1월 17일

· 연합회 사무국 02-734-9595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포교사 고시 문제집 신청바랍니다.
※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 신규가입할 교육단체 및 교양대학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공동대표 : 한정섭법사(금강선원 총재) 정대은스님(해동불교범음대학장)
김재일법사(동산불교대학장) 안경우법사(경북불교대학장)

'세 끼 밥 굶지 않고 나 혼자 등 따뜻하다고 평화 아닙니다. 지붕에 비 안 새고 바람 들이치지 않는다고 평화 아닙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나 아닌 사람을 위해 지금 바로 이곳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게 하소서.(평화기도문 중)'

"남 위해 두손 모아 기도하게 하소서"
도법 스님 천일기도정진 12일 회향

지리산 생명평화결사 창립

수경 스님 · 문규현 신부 · 각 종교 여성수행자 참여
생명평화 서약 · 평화학교 · 돌탑쌓기 사업 등 추진

도법 스님(남원 실상사 주지)의 1천일 기도가 12일 회향되고, 15일 '지리산 생명평화결사'가 결성된다.

좌우대립 속에 지리산에서 희생된 원혼들을 달래기 위해 2001년 2월 16일부터 1천일 기도에 들어갔던 스님은, 하루 네차례 5~6시간 기도를 올렸다. 또 지난 6월 '평화를 위한 대화마당'과 8월 '생명평화와 민족화해,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평화마당'을 개최하며 국민 스스로 생명평화의 주인공이 되도록 노력했다.

1천일 기도 회향법회는 15일 남원 실상사에서 열린다. 오후 2시 회향 천도재를 시작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열리는 '지리산생명평화결사 창립대회'로 이어진다. 창립대회에서는 생명평화의 등 점등식, 생명평화를 위한 기도, 서약식 등으로 이뤄지며, 생명평화의 소리와 춤명상이 축하문화마당으로 개최된다.

평화결사는 참된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이 주체로 나서는 한반도 생명평화공동체를 지향한다. 여기에는 수경 스님, 문규현 신부, 이병철 전국귀농운동본부 본부장, 박성준 평화의 물결 대표, 김장하 남성문화재단 이사장, 노고단 여성기도회 소속 각 종교 여성 수행자 등이 참여한다.

향후 사업으로는 △생명평화서약운동 △지리산생명평화기도 확산 △생명평화생활독본 정기간행 △평화일꾼양성을 위한 평화학교 개설 △생명평화 순례 △생명평화의 돌탑 쌓기 △생명평화마을 건설과 생명평화지대 지정 운동 △한반도생명평화지대 구축 △국내외 평화단체들과의 연대 등을 펼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12일부터 18일까지 부산 타워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는 강명순 씨 작품 '환희'.

18일 세계빈곤어린이돕기 연꽃 그림전
강명순 씨, '환희' '인연' 등 작품 26점 내놔

제3 세계의 가난하고 빈곤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연꽃 그림전이 열린다.

한지를 여러 번 배접해 화판을 만들고 그 위에 유화로 연꽃을 그려온 강명순씨의 연꽃 그림전 '향기로운 연화의 세계'가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부산 타워 갤러리에서 열린다.

마라도 기원정사 신도회장으로 불심 깊은 화가 강명순씨는 이번 전시회에 그동안 그린 연꽃 시리즈 연작 총 26점을 내놓았다. '연꽃이 피는구나' '환희' '인연' '연화의 향기' '백록담의 설경' 등이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빈곤, 문맹, 질병, 긴급구호, 난민지역 국제 구호 비영리 민간단체인 WITH ASIA(대표 지원)의 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회로 눈길을 끈다. WITH ASIA는 불가촉 천민 지역 학교 건축, 중국 내 조선족 고등학생 ·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태국 내 소수민족 지원사업 등 아시아 지역의 학교 건립을 추진해 왔다.

WITH ASIA는 전시회를 계기로 후원인 늘이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여 3천여 명의 후원인을 구성하고 기금을 마련해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현재 WITH ASIA에는 유치원 아이들이 하루 백원 아끼기를 통해 후원금을 보내오기도 하고, 교사, 의사 등의 후원인들도 참여하고 있다. (051)624-3754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2003 사회복지프로그램 현장사례 발표자 4명이 표창장을 받고 있다.

장애아 부모 · 가족 역할
사회복지현장 사례 발표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혜총)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한 실천 중심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을 위해 '2003년 사회복지프로그램 현장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3일 오후 3시 양정청소년수련관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사례 발표회에는 공창복지관장 지현스님, 부산시사회복지관협의회 구철수 회장을 비롯 불교관련 사회복지기관 및 부산시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개금복지관의 장애아를 둔 부모를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 및 가족역할 프로그램 '키다리 교실' 공창복지관의 발달장애아 주간보호센터 '나란히 나란히' 금정구복지관의 장애아동 음악치료 프로그램 '햇살 음악교실' 몰운대복지관의 언어치료실 '맑은 소리터' 등의 현장 사례가 발표됐다.

천미희 기자

시민불교문화상 후보자
마 · 창 불교연합회 공모

마산 · 창원불교연합회(회장 지태)는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하는 제13회 시민불교 문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다.

불교계에서 지역의 문인 및 예술인들에게 수여하는 시민불교문화상의 시상분야는 예술상 · 문학상 · 행원상 · 지역개발 등 네 분야. 10년 이상 해당분야의 전문활동 경력을 가진 문화예술인 · 언론인 · 사회봉사자 중 향토문화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사람에게 시상한다. 후보자 추천접수는 오는 20일까지 마창불교연합회 사무국을 비롯해 마산 · 창원 문화예술계 및 기관단체로 하면 된다. (055)222-1393, 222-1196 천미희 기자

양산 초산유원지 공사 잠정 중단
양측 소취하 … 대화로 해결방안 모색

양산 통도사 인근의 초산유원지 개발이 6개월 정도 중단되고 재검토의 시간을 갖게 됐다.

초산유원지 개발을 둘러싸고 지난 9월 울산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과 공사방해 가처분신청을 냈던 통도사와 개발업체가 서로 소를 취하하고 원점에서 해결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2일 합의했다.

또한 양측과 양산시는 초산유원지의 공사 중단과 재개 문제는 앞으로 6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면서 붕괴 위험에 처한 절개지와 배수로는 재해방지를 위해 한 달간 마무리 공사를 벌이게 된다.

통도사 기획국장 시공스님은 "합의점을 찾기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지만 숙박업소, 골프장 등 유흥업소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통도사의 입장은 그대로이며 앞으로도 수행환경 및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불국사 경내 고려시대 건물터
경주박물관, 터 · 석축 · 석조물 기단 발견

불국사 경내에서 고려시대 건물터로 보이는 유적이 발견됐다.

경주대 박물관(관장 강봉원)은 9월 24일부터 불국사 성보박물관 건립을 위해 경내 남동쪽 지역 12,100㎡의 면적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축조년대가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건물지 1동과 석축 3개소, 석조물 기단 1개소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주대 박물관측은 "이 건물 터는 지난 73년 불국사 복원 정비보고서 등에서 언급된 적이 없다"며 "새로운 유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곳을 고려시대 건물터로 추정하는 이유는 건물지에서 '仇於馹(구어일)'이라는 고려시대 역(驛)명이 새겨진 기와편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석문 전문가인 김창호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는 "고려시대 역은 80여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 역명이 금석문자료로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에 발견된 '구어일' 역은 <고려사> '형지'편에 나오는 '仇於旦(구어단)' 역과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2001년부터 건립중인 성보박물관터에 고려시대 건물터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향후 성보박물관 건립 일정과 장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유진 기자

봉은시민선원 개원
매일 4~22시까지 개방

강남 봉은사(주지 원혜)가 봉은시민선원을 8일 개원했다.

봉은사 경내 문화센터 3층에 개원한 시민선원은 매일 04시부터 22시까지 총 18시간을 개방한다. (02) 516-5652

봉은사는 또 8일부터 14일까지 7일 동안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몸치장과 가무금지, 높은 평상에 앉는 것 금지, 때 아닌 때 먹지 않을 것을 서원하는 팔관재계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팔관재계 수계법회는 8일 석주 스님의 '입재법문'을 시작으로, 10일 혜국 스님, 12일 묘허 스님, 14일 고산 스님 순으로 매일 오전 10시 열린다. 김원우 기자

청담 스님 열반 32주기 추모행사
문집봉정 · 흉상제막 · 문화제 등 다채

청담 대종사 열반 32주기를 맞아 추모법회와 문집봉정식, 장학금 수여식, 흉상제막식,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청담 스님의 모교인 진주산업대는 7일 학술세미나, 청담문화제를 개최했다.

도선사(주지 혜자)와 청담문화재단(이사장 동광)은 15일 오전 11시 호국참회원 대법당에서 청담대종사 열반 32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추모법회에서는 청담 스님 문집 봉정식과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열린다.

청담사회복지관은 13일 오후 1시 30분 청담스님 흉상제막식을, 혜명보육원은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불우이웃돕기바자회를 연다.

이에 앞서 진주산업대 부설 청담사상연구소(소장 허익구)는 7일 '청담대종사의 마음사상과 참회정신'을 주제로 제2회 청담사상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어 학생회관 종실관에서 제1회 청담문화제를 열었다. 청담문화제는 태평무, 북춤, 찬불가 공연등으로 진행됐다. 김원우 기자

동화사 신도회장 역임
혜산 양인석 박사 별세



제 9교구본사 동화사 신도회장을 역임한 혜산 양인석(전 경북대 대학원장 · 사진)박사가 2일 95세의 일기로 세연을 다했다. 조계종 거사림회(회장 남두희)는 5일 대구 모례아장례식장에서 혜산 양인석 박사 영결식을 갖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양인석 박사는 1978년 통도사 방장 월산스님과 제5군수사령부 원광사 법당을 건립 했 으 며 , 1982년부터 1993년까지 조계종 정법회 거사림회 회장을 역임했다. 양 박사는 정법회 거사림회 회장으로 재임하며 전국최초로 거사림회관을 건립한바 있다. 또 조계종 포교사, 대구 능인고 교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부처님 섬기는 마음>을 비롯 식물관련 저서 12권이 있다.

김원우 기자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 5개 신문 히트상품 선정!

소비자들이 먼저 확인한 우수한 품질, 다시한번 인정받았습니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는 다릅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신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농장견학회 및 재배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일간스포츠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한국일보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경향신문 2003 경향히트상품 선정
★ 서울경제신문 2003 서경벤처히트상품 선정
★ 스포츠 굿데이 2003 굿브랜드 대상 선정

※주의 : 저희 수신토종오가피가 유명해지자 원료를 성광수씨로부터 구매해 만들었다고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속지마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 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토종오가피원료는 전량 수신토종오가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 히트상품선정기념. 선착순 고객사은대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02)447-9114

불교성지순례
15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곳!! 인도
실크로드와 함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특선기획 저렴한 경비로 인도성지를...
인도성지 배낭순례 10일 (불교8대성지) 1,290,000원
▶일 정 : 델리-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 고향)-룸비니(탄생지)-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나란다대학-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죽림정사)-보드가야(성도지)-바라나시(갠지스강,초전법륜지 녹야원)-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아그라(타지마할,아그라성)-델리
▶출발일 : 12월 5일(129만원), 1월 9일(139만원), 2월 12일
▶조건 : 항공료, 전용버스, 보험료, 숙식비 포함(10명 이상 출발) ▶불포함 : 비자대, 입장료

인도성지순례 10일(불교8대성지) 1,890,000원
▶일 정 : 델리-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 고향)-룸비니(탄생지)-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나란다대학-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죽림정사)-보드가야(성도지)-바라나시(갠지스강,초전법륜지 녹야원)-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아그라(타지마할,아그라성)-델리
▶출발일 : 12월 7일, 1월 7일, 2월 10일

인도, 네팔성지순례 15일(불교8대성지와 아잔타석굴) 2,570,000원
▶일 정 : 뭄바이-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세계불교미술의 보고)-산치대탑(아쇼카대왕의 걸작)-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바라나시(갠지스강, 초전법륜지 녹야원)-보드가야(성도지)-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 죽림정사)-나란다대학-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쿠시나가르(열반지)-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고향)-네팔국경통과-룸비니(탄생지)-포카라(안나푸르나등 히말라야설산)-카투만두
▶출발일 : 12월 4일, 1월 3일, 2월 7일

인도문화탐방 10일 (인도의 문화유적을 찾아서) 1,990,000원
▶일 정 : 델리-자이푸르(라자스탄사막지방 핑크빛 고도)-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카쥬라호(힌두조각 예술의 극치)-알라하바드-바라나시(갠지스강, 녹야원)-델리(국립박물관)
▶출발일 : 1월 6일, 2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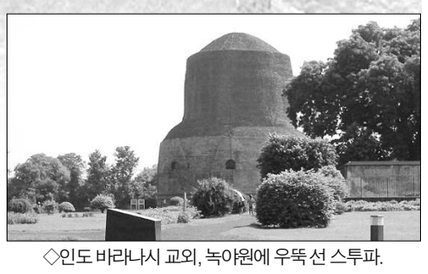
"녹야원에 한국 불상 모신다"

한인수교 30주년 기념, 12월 30일 점안
룸비니, 쿠시나가르 등 7대 성지도 순례

현대불교신문은 '한-인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최초로 설법하신 성지 녹야원에 한국전통 양식으로 조성된 불상을 봉안한다. 불상점안 법회는 12월 30일 성도절을 맞아 녹야원에 위치한 대각회 마하보디사르트센터(Maha Bodhi Samath Center)에서 혜총 스님(부산 감로사 주지)을 법주로 열린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마하보디사르트센터는 스리랑카 근대 불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다르마팔라(Dharmapala : 1864~1933)가 조직한 대각회(Mahabodhi Society) 사르나트 지부가 있는 곳이다. 이 안에는 무르간다쿠티비하라 사원이 있어 티베트, 스리랑카, 미얀마 등 동남아 불교국가들의 불상이 모셔져 있지만 유독 한국 불상만 없어 성지를 참배한 한국 불자들의 안타까움이 컸었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성지 복원운동의 일환으로 불상을 점안하고 본격적인 인도불교와의 교류에 앞장서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이번 점안법회에는 대각회 부회장 등 현지 불교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끈다.

아울러 리선행 법사(횡성 죽림정사)의 안내로 10박 11일간 사르나트(녹야원)와 보드가야, 쿠시나가르, 라즈기르, 바라나시, 아그라, 룸비니 등을 돌아보는 부처님 7대 성지도 순례한다. 동참문의 (02)737-8881



◇인도 바라나시 교외, 녹야원에 우뚝 선 스투파.

대각회(Mahabodhi Society)와 다르마팔라

성지 복원운동 위해 인도 전역에 설립
학교, 병원운영, 스님 배출에도 심혈

스리랑카의 다르마팔라가 20대 초반에 부처님께 참배하기 위해서 보드가야 대탑에 들렀을 때, 힌두사원이란 이유로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다르마팔라는 인도 전역에 마하보디 소사이어티(대각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부처님 성지 복원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하보디는 대각(大覺)이란 뜻이다. 1892년 처음 마하보디 소사이어티를 만들어 불교운동을 시작한 곳은 캘커타이다. 그래서 현재 이 곳에 대각회 본부가 있다.

다르마 팔라는 평생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모금하여 부처님 성지마다 절을 짓고, 여행자 숙소를 지으며 성지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마하보디 소사이어티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병원과 여행자 숙소도 운영하고 있다. 소사이어티를 근간으로 많은 스님들이 배출되었다.

인도불교 4대 성지

△ **룸비니**

부처님의 탄생성지. 가비라국 정반왕의 부인인 마야부인께서 출산을 위해 친정인 콜리국으로 가던 중 산기를 느껴 이곳 동산에서 무우수 가지를 잡고 뒷날의 부처님인 싯다르타를 출산하였다. 태자를 난 지 이레만에 세상을 뜬 곳으로 마야대비 사원과 연못, 아쇼카 석주 등이 사원터와 함께 남아 있다.

△ **보드가야**

성도지. 우루벨라 마을 근처의 보리수 나무 아래서 선정에 들어 7일 만에 정각을 이루신 곳으로 마하보디 대탑과 보리수, 무칠란다 연못, 전정각산과 유영굴, 니련선하, 수자타 마을 등을 볼 수 있는 성지이다.

△ **사르나트(녹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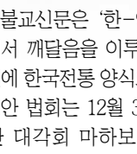
초전법륜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바라나시 교외의 녹야원에서 교진여 등 5비구를 만나 중도와 사성제, 팔정도 등 최초의 전법을 하신 곳. 또 박물관에 소장된 부처님의 초전법륜상과 오늘날 인도의 국가 문장이 된 아쇼카 석주의 사자상이 유명하다.

△ **쿠시나가르**

열반지. "비구들이여, 모든 현상은 변화한다. 게으름없이 정진하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부처님께서 사라쌍수 사이에서 열반에 드신 곳으로 니르바나 사원과 사리탑, 사라쌍수, 마지막 설법지, 다비장과 라마바르 스투파 등이 남아 있다.

김주일 기자

INTERVIEW



한국불상 봉안 법주 혜총스님

"올해가 인도와 수교한지 30주년임은 정치 외교 경제 산업쪽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문화적으로도 더 긴밀한 교류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번에 녹야원에 한국불상을 모시고 참배객들을 맞이하게 하는 불사는 매우 뜻깊다고 봅니다."

한국-인도 수교 30주년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이 주최하는 기념행사인 '녹야원 한국불상 봉안 법회'의 법주를 맡은 혜총스님(부산 감로사 주지).

9번의 인도성지순례시 성지마다 법회를 열어왔다는 스님은 성지안에 한국불상이 모셔지고 세계인들이 참배하게 되는 일은 의미깊은 불사라고 설명한다. 이번에 부처님 점안 봉불법회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성도절날 그것도 독특하게 저녁시간에 열린다. 성지를 순례하는 많은 참배객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오전과 낮시간을 피한 것이다.

우리 절 우리 신도

절 일 함께하니 금실 좋아요

울산 미륵정사 안병용거사, 김미애보살 부부

울산 간월산의 아름다운 풍광속에 자리잡은 미륵정사는 한국불교 미륵종의 중앙 교육원이자 약사도량이다. 그래서 교육받기 위한 종단의 스님들과 몸이 아픈 불자들이 한데 섞여 365일 사부대중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명의 신도라도 일손이 절실한 상태다. 대다수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소화해 내고 있지만, 안병용 거사(49)와 김미애 보살(35) 부부는 미륵정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꾼들이다.

한눈에 봐도 건강미가 철철 넘쳐 흐르는 안 거사는 역시 짐나르기와 법당 내부 수리 공사 등 일을 도맡아 한다. 웬만한 수리는 굳이 외부 인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그의 두 손으로 거의 해결된다. 일명 '맥가이버 거사'로 통한다.



◇정성스럽게 법당의 불기를 닦는 안병용 · 김미애 부부.

반면 김미애 보살은 공양간에서 밥을 짓거나 찬거리를 만든다. 하지만 주 특기는 법당 청소다. 약사여래불을 모신 법당을 찾는 이들이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기도정진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을 매일 쓸며 정리정돈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그래서 '진공청소기'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이들 부부가 이와같이 각자 하는 울력도 있지만 함께하는 일도 있다. 부처님전에 올리는 공양물을 준비할 때는 일심동체가 되어 일을 한다. 불단에 올릴 다기와 촛대, 향로 등을 닦기도 하고, 과자와 과일들을 정성껏 그릇에 담기도 한다. 특히 행여 참배객들에게 흐트러진 불단의 모습을 보일까 두려워 서로 조언자가 되어 제수용품들을 가지런히 진열하는데 온갖 정성을 기울인다. 이들은 울력도 하나의 수행처럼 여긴다. 그래서 사찰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수행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

안병용-모든 수리 척척 '맥가이버 거사'
김미애-법당 항상 깨끗 '진공 청소기 보살'
부처님전 공양물 준비할 땐 부부 일심동체

김 보살은 "우리 사찰은 1백명 규모로 불자들에게 단기 수련회를 자주 마련해 사찰을 찾는 이들의 식사준비는 물론 도우미 역할도 해야 한다"며 "모든 신도들이 힘을 합해 잘 해나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남편과 함께 절일을 하니 부부 금실도 좋아지고 우리절에 애착을 많이 갖게 된다"고 즐거워 한다.(052)264-6487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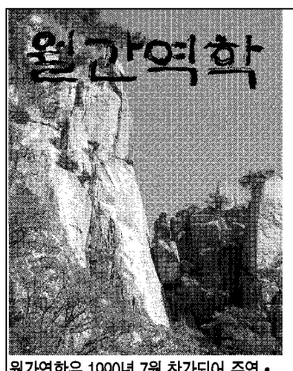


추천의 말

혜각스님 미륵정사 주지

안병용 거사와 김미애 보살 부부는 사찰 근처에 살면서 절에 일이 생기면 자신들의 집안일 하듯이 언제든지 달려와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우리절은 법당과 함께 미륵종단의 연수원과 행자교육원도 함께 있어 크고 작은 행사가 유난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 부부는 어떤 일을 맡겨도 묵묵히 불평 한 마디 하지 않고 보살행을 펼치는 모범을 보이지요. 이런 실천행이 평소 신도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실천행 펼치는 모범 불자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 • 풍수지리 • 사주명리 • 관상학과 유 • 불 • 선의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실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동양학 전문지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훌륭한 잡지입니다.

월간역학에서는 역학전문학원인 월간역학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학원을 졸업한 분에게는 수료증과 자격증을 수여하며 개업시 월간역학을 통해 적극 홍보해 드립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www.kbs.cc)를 듣는 분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확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7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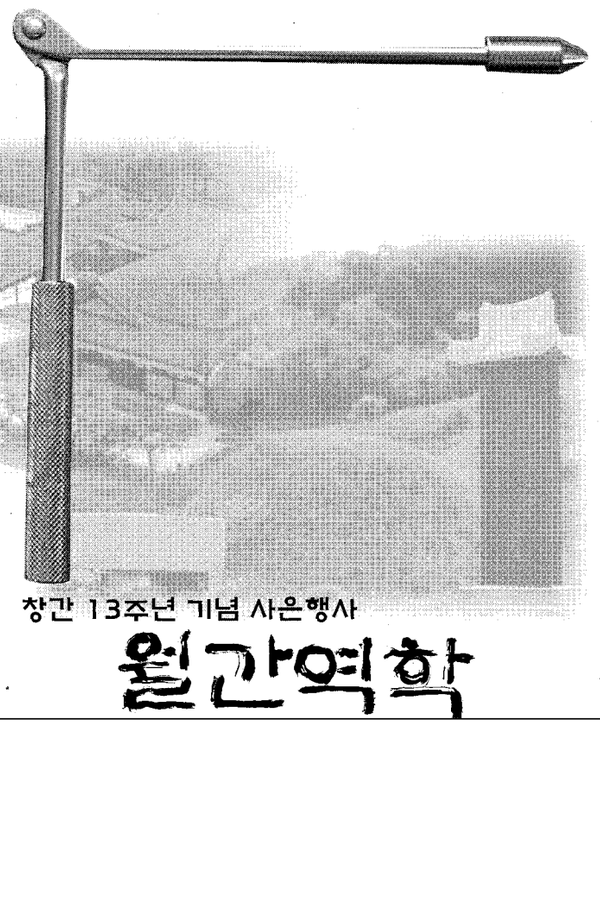
강의실 수강생 모집

사주(중급 · 실전반), 관상(마의상법)
풍수(금낭경), 수상, 육효
과목당 월10만원(3개월단위접수)

월간역학교육원

명당탐지기 관룡자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관룡자로 당신이
직접 명당을 찾으세요.



창간 13주년 기념 사은행사
월간역학

관룡자란?

심룡척이라고도 불리우며, 이미 수천년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사용되던 기구로, 1990년 7월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진산실업(주)에서만 생산 공급합니다. 조계사, 해인사, 수덕사, 상원사, 월정사 등 오랜동안 번성해오는 사찰과 서울 명동성당,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천도교당 등 번성하는 종교단체의 건물, 세종대왕 릉, 남연군 묘,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여러 문중의 묘, 일본 동경의 황거(皇居)와 오사카 성, 북경의 자금성을 비롯한 황제들의 릉, 대만의 중정기념당(장개석 동상) 등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세계적인 유적과 시설물에서는 틀림없이 관룡자가 작동됩니다. 또한 아직 찾아내지 못한 명당자리도 국내에는 많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교육장을 역임하신 김모선생께서 관룡자가 작동되는 지점에 은행나무 묘목을 이식하였는데, 수령 2년생인 나무 모두에서 호두알 굵기의 은행 열매가 50-70여개씩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김선생께서는 이것을 보고 명당의 지기를 실감했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관룡자가 불티나게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룡자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분들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친구나 친지에게도 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이 기구를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충청도의 남모교수는, 자신은 관룡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에게 "기구로 명당을 찾을 수 있다면 왜 나한테 배우러와?"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나 가장 아끼는 제자는 자신이 직접 데리고 와서 관룡자를 구입케 했습니다. 경상도의 김모교수, 서모회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룡자를 은밀히 사용해 오지만, 어쩌다가 주위 사람들 눈에 띠면 "이것은 수십년전에 중국의 한 도사가 전해 준 것으로 국내에 있는 건 모두 가짜다"라고 합니다. 전라도 김모선생의 경우 "함께 풍수공부하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관룡자를 구입하겠다고 했더니 '그건 모두 가짜라고 하니 제발 사지말라' 고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말렸던 사람들은 모두 이미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관룡자를 사용해오는 분들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정말 훌륭한 것은 자신만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땅(명당)에 대한 욕심에는 형제도 없다'는 속설이 증명되는 것이지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 교회 등 건물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산소나 납골당, 공원묘지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자리를 감정할 때 관룡자를 사용하면, 명당에서만 발산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혈(穴)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좌향(방향) 까지 잡을 수 있으므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미 국내의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풍수지리사 등 500여명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원래 관룡자는 88만원 입니다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특별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관룡자(88만원)+월간역학 1년분 (105,600)=985,600원을 80만원으로 할인해드립니다.

▣ 구입방법 : 수협 227-01-002756 예금주: 진산실업(주)로 80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자세한 사용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리며,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 신용카드 소지하신 분 12개월 분할가능. 기업체에서 구입시 세금 계산서 발행. 구입 후 반품을 원하시면 1개월 이내 언제든지 즉시 환불해드립니다.
- 월간역학 1년분 구독료는 105,600원 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9만원으로 할인+ 수맥탐지봉 1세트 무료 증정
- 주머니형 수제품 미니관룡자(황금 18k 헤드)주문제작 · 육효용 수제품 서죽과 산목셋트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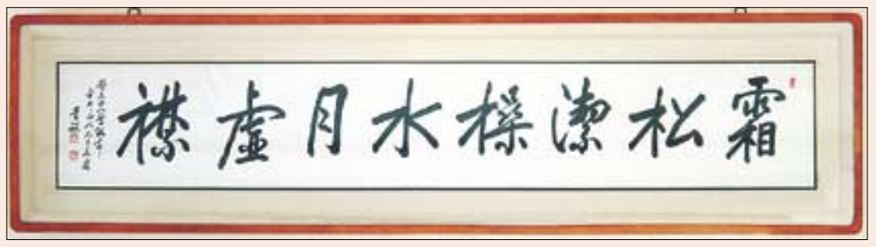
(02)2264-0258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청옥빌라트 101호

www. kbs. 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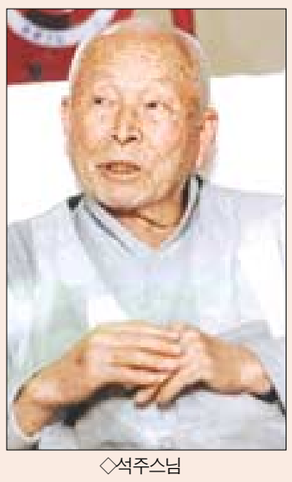
기도·공부·이웃과 함께하는 도량 봉은사



◇강남지역 청소년 포교에 앞장설 역삼 청소년 수련관.



◇봉은사 조실 석주스님 휘호.



◇석주스님

소나무·서리같이 지조지키고 사람 대할땐 마음 활짝 열라

석주조실스님 휘호

내가 붓글씨를 처음 세상에 내놓은 것은 군법당을 짓는다고 나더러 붓글씨를 써 달래. 그래서 써주었지, 그것이 무척 많아. 붓글씨를 누구한테 배운적은 없어. 혼자 시간 날 때마다 쓰면서 익혔어

이 글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글귀인데 유학자들도 이 뜻을 설명해주면 참으로 좋은 말씀이라고 좋아하고 갖고 싶어 했어

이 글귀의 뜻은 '소나무와 서리같이 지조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는 물속에 달이 환히 비추듯이 마음을 열어놓고 대하라'라는 뜻이야

석주 스님 교계신문 기자와 인터뷰 중에서

봉은사, 새해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명부전 완성·사하촌 정리 등 도량정비
예산 15%증액·전산화로 회계 투명화
동안거 정진때 팔재계 수계식 거행

1. 도량이 새롭게 정비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봉은사 사부대중은 도량을 청정하게 가꾸며 삼보정재를 지켜왔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봉은문화 센터가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8년간의 숙원불사였던 문화센터문제는 봉은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완전 타결되었고, 예산액 220억과 예상 이자 손실 1000억 등 1,2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부전 불사도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명부전은 기와를 모두 올려 뼈대를 완성하고 벽채와 마루만 완성하면 12평에서 40.5평의 전각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특히 봉은사를 수호하는 사천왕이 서울시 지방문화재 160호로 지정돼 사천왕 보존각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대웅전 닫집을 새롭게 하였으며, 사하촌을 정리하는 등 도량을 정비했습니다. 내년에 큰 불사로 「민족문화 체험관」건립과 사천왕 보존각 건립 그리고 범종각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높혔습니다

금년도 봉은사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약 15% 정도 증액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현재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본다면 이는 놀랄만한 발전입니다.

이는 재정 전산화를 통하여 재무회계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이 더욱 담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종단에서 제정한 재정운용의 방식을 오차 없이 따르고 있으며 불기 2548년을 대비하여 봉은사는 초하루 5천 세대 동참 기도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기도와 정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초에는 정초 7일산림기도와 정월대보름 방생 후 법당에 염불소리가 시민선원에는 수행하는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실 석주 큰스님, 원로회의 부의장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들을 초빙하여 일주일간 그분들의 평생 수행하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만인염불회를 열면서 만인염불회가 더욱 성숙하도록 선지식을 모셔 불자들이 염불하는 관음, 문수, 미륵, 아미타 신앙의 참내용을 배웠으며, 이 힘을 밑거름으로 만인염불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기도정진이 이어지기 위해 동안거에는 수행의 생활화와 계율 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팔재계 수계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4. 신도교육을 통한 신도회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봉은사에는 포교팀이 있습니다. 이는 현 주지스님이 90년 봉은사 포교실장 소임을 맡으면서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교대학 주간반이 40기, 야간반이 21기를 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을 14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경전강좌 역시 10년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교교육으로 배출된 불자만 1만 명이 넘습니다.

신도 조직화 사업도 완성되어갑니다. 1990년 서울 대홍수로 잠실벌이 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이때 봉은사 신도들이 수재민 구호사업에 앞장섰습니다. 이는 1926년 을축년 대홍수 때에도 700명의 수재민을 구제하여 당시 나청호 주지스님을 생불(生佛), 활불(活佛)로 칭송했던 저력과도 연결됩니다. 그 후 신도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한 봉은사에서는 구역법회를 창설하고 가정법회와 구역합동법회를 지금까지 열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참사에는 신도들이 스스로 재원을 만들어 구조사업을 하고 있는 소방관과 봉사자들 1천명에게 매일 따뜻한 국밥을 나누었습니다. 96년에는 불교대학 동문회가 창설되었고 이러한 여력을 바탕으로 97년에는 조직과 형식을 갖춘 봉은사 신도회가 창립되어 현재 7기 집행부가 사찰의 대소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신도 조직화…7기 집행부 대소사 주도
사회복지위 신설-장학금 지급 내실화
강남구청과 연계 각종복지활동 추진

5. 도제양성 사업과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은사에서는 매년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은사에서 소임을 살거나 방부를 들인 스님들의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특히 금년 백중에는 40명의 승가대 학인 스님을 매 재마다 초청하여 염불공양으로 장엄하였고 이로 발생된 신도 보시금 4천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봉은사에서는 서산, 사명 장학회를 설립하고 매년 종립학교 학생 10명을 추천받아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강남 구청의 추천을 받은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매월 생활비를 돕고 있습니다. 봉은사에서 근무하는 종무원의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이 사회복지위원회라는 새로운 틀로써 더욱 내실을 기하며 진행될 것입니다.

6. 사회복지 사업을 통한 불교의 위상이 제고됩니다

연초 임시적으로 마련되었던 사회복지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복지단체 지원, 사회복지 대학원을 설립할 예정에 있으며 강남구청 복지과와 연계하여 주민 애로사항 풀어주기, 자원봉사단 활동 등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구와 동별로 위원을 두었으며 봉은사 신도와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도 장이 없어서 못하는 주변 주민들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2000년 인수한 강북 장애인 복지관은 봉은사의 예산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올해 4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지난해에는 서울시 최우수 장애인 복지 기관으로 서울시장상을 받았으며 금년에는 서울시와 전국에서 최고의 장애인 복지시설로 인정받고 보건 복지부 장관상을 수여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 보호 사례 연구집을 낼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춘 역삼청소년 수련관을 수탁 받았습니다. 그동안 파라미타에서 수차 시도 하였던 사업을 봉은사에서는 단 한번에 성공시켜 (사)파라미타의 위상을 높이고 강남구 내에서 불교와 봉은사의 위상도 한껏 높일 수 있었습니다.

7. 신행단체를 육성하고 불교단체를 지원합니다

봉은사에는 어린이에서 노인들까지 자기가 원하는 단체에 들어가 신행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어린이 불교학교, 파라미타(중, 고등부) 청소년 법회, 청년회, 직장인을 위한 야간법회, 일요가족법회, 신도회 법회, 구별법회, 기별 동문 법회,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신도회, 대불청을 비롯한,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 파라미타, 대학생불교연합회, 재가연대, 등 모든 불교단체와 대장경 연구소, 가산불교 문화원 등 불교 전문 연구소에 매월 2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가협, 나눔의집, 소쩍새마을 등과 중앙승가대학, 실상사 등 스님들이 정진하는 곳에 공양미를 보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혜명(慧明)을 도심속에서

원혜 주지스님, 불기 2548년을 앞두고

불기2547년을 정리하고 2548년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금년 한해 봉은사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고 의욕 넘치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며 이 신념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기 2548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봉은사는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시련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 불자들의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현대 I-PARK 문제가 1년 동안 봉은사와 불자님들을 괴롭혔으며, 종회특위의 조사가 계속되어 종단의 여러 어른들을 걱정스럽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봉은사는 안팎의 시련을 감내하며 정진의 채찍으로 삼았습니다. 불자들에게는 더 기도하고 정진할 수 있도록 염불회를 만들었고 사찰행정은 더욱 투명하고 발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원혜 스님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이웃과 함께 하는 도량"이라는 표어 아래 전 사부대중이 하나가 되어 도량불사, 기도정진,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왔고, 부처님의 혜명이 이 땅에 영원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했습니다.

금년에는 봉은사에 만인염불회를 열었습니다. 종단 원로위원 스님을 모셔 고승초청법회도 열었습니다. 또한 만인염불회 기간 선지식들을 모셔 염불과 기도에 대한 법문도 들었습니다. 무료로 보살계 수계식도 봉행했으며, '마음에 부처를… 봉은사에서 원력을…'이라는 주제로 봉축행사와 백중 '생명해방의 대축제'도 무사히 치뤘습니다. 11월 동안거가 입재할 때는 수행의 생활화를 위해 팔관재계 수계법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봉은사에서 수행과 기도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불교대학도 주간 40기 야간 21기가 개강했으며 노인대학도 14년째 이어오고 신도들의 취미 생활인 문화강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명부전 불사도 완성되어갑니다. 대웅전도 닫집을 지어 삼존불을 새롭게 모셨습니다. 사천왕 보존각도 단장하고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지방문화재 160호로 지정받았습니다.

봉은사가 이처럼 끊임없이 도량을 정비하고, 기도 정진하며, 신도들을 위한 교육이 계속되는 것은 이 터전에 부처님의 법이 항상 구족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봉은사는 서울에 새로운 중심 강남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로 인하여 사방이 높은 빌딩 숲으로 쌓여가지만 봉은사는 아직도 부처님의 법음과 법향이 넘쳐흐릅니다. 불기 2548년 미래 비전을 새롭게 모아 그 법향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을 서원합니다.

불기 2547년 11월 심검당에서 설담 원혜 합장

보람도 아쉬움도 많았던 한해

신도회장 인사



◇안승기 신도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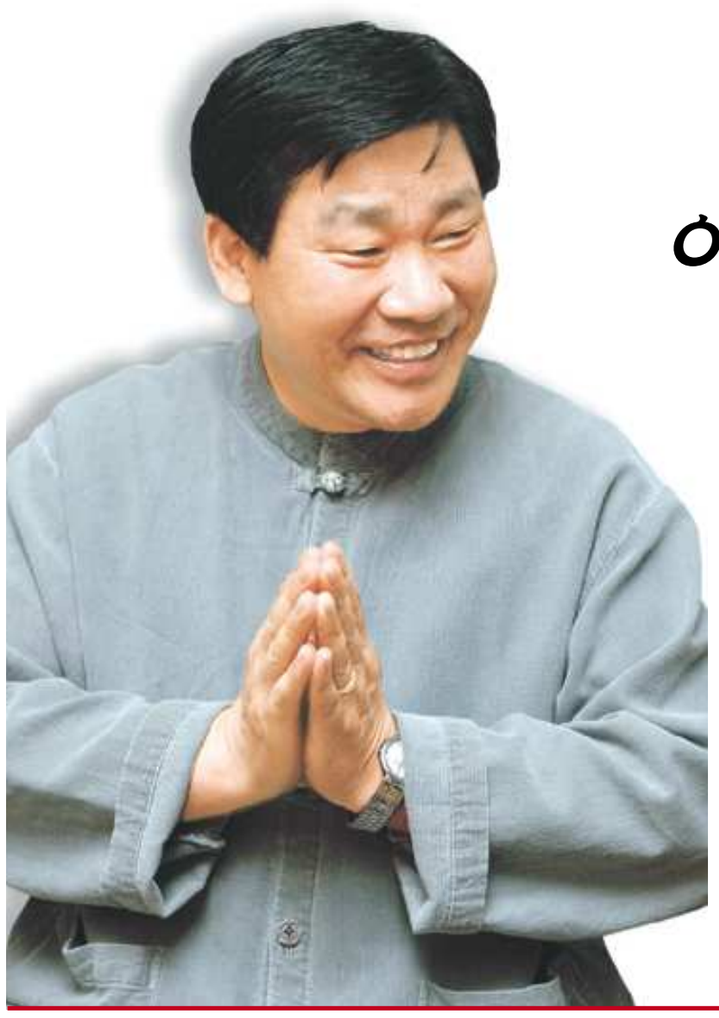
벌써 한해를 정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중순이면 내년도를 이끌어갈 새 집행부를 구성키 위한 차년도 신도회장 입후보 공고가 붙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쉬움도 많았지만 보람도 많았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신도들을 힘들게 함께 했던 일은 현대 I-PARK 문제였을 것입니다. 불자님들을 설득하는 일이 힘들었고, 항의 시위에 동참하고 50일 이상 계속된 1인 시위에 동참한 불자님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수 없었습니다.

이런속에서도 합심하여 부처님 오신날 행사를 여법하게 봉행했으며, 백중, 10월 불교문화축제도 잘 마쳤습니다. 봉은사의 모든 법회 행사 불사에 봉은사 신도들의 손길과 시주와 화주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신도회장을 믿고 따라주었던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내년의 집행부를 위하여 차분히 인수인계 준비를 할 것이며 나머지 봉사와 I-PARK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함께 고생한 제 7기 봉은사 신도회 집행부 여러 임원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지도해주신 주지 스님 이하 사중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새벽 3시 이웃을 위해 잠깬다



신문 배달로 이웃돕는 공무원 김동준·박금희 부부



남 돕겠다는 일념으로 골목길 누빈지 10년
배달 수입 50~70만원 전액 불우이웃에 보시
투병중이던 부인의 빈자리 아들이 채우기도
<금강경> 사경은 신문배달의 힘

◇10년동안 어김없이 새벽 3시면 일어나 나란히 신문배달에 나서는 김씨 부부.

11월 1일 새벽 3시. 김동준(56, 마산시청 주택행정과 계장), 박금희(45)씨 부부는 어김없이 잠을 깬다.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은 뒤, 남편은 자전거를 타고 아내는 바구니가 실린 손수레를 끌고 신문 지국을 찾는다.

남편과 아내가 배달하는 신문 부수는 500부. 자전거와 바구니에 신문을 가득 채우고 3시간 동안 꼬박 발품을 팔아야 하루 배달이 끝난다. 남편은 새벽 운동을 겸한 이 작업이 끝나야만 출근한다. 신문 배달로 버는 수입은 월 50~70만원. 이 수입 전액은 불우이웃을 돕는데 쓴다.

벌써 10년째,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13종이나 되는 신문을 배달하는 이들 부부의 삶을 들여다 본 사람들은 "대단해요~!"라는 감탄사를 연발한다. 한 TV 개그프로그램에서부터 유행어가 된 '대단해요'라는 수식어가 절로 따라다니는 이들 부부를 만나기 위해 10월 31일 마산을 찾았다.

매일 스님들처럼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김씨 부부는 보통 저녁 8시경에 잠자리에 든다. 그러나 이날 김씨 부부는 저녁 잠을 포기하고 10년간의 숨겨둔 이야기를 풀어내 주었다. 김씨 부부가 신문 배달을 시작한 것은 94년 11월, 김씨가 청백봉사상을 받게 된 것이 계기였다. 오랜 관행으로 굳어 있던 출장 공무원 교육신고제를 폐지하고 그 비용을 통장이체 시키는 등 행정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김씨는 전국에서 16명의 공무원을 뽑는 청백봉사상을 받은 후 6급으로 승진하고 5개국 해외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내가 한 일에 비해 보상이 너무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와 의논 끝에 배달을 시작한 겁니다." 아내도 두말없이 남편의 뜻에 동의했고 신문배달이 시작됐다.

신문 배달을 시작한 후, 하룻밤을 자야 하는 행사는 모두 불참할 수 밖에 없었고, 여행은 엄두도 못 냈다. 심지어 마음 놓고 아플 수도 없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아닌데, 단지 남을 돕겠다는 마음하나로 새벽 단잠을 깨고 하루 세 시간씩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고 골목길을 뛰어다니길 10년. 그동안 이들 부부의 도움으로 삶의 희망을 되찾기 시작한 가정은 나날이 늘어갔다.

뺑소니 사고를 당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정에 5백여 만원을 들여 구두 수선소를 마련해 주었고, 딸이 가출한 뒤 치매에 걸린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독거노인 신모씨에게는 매달 20만원의 생활비를 보조했다. 전신마비 증세로 아들 교육이 막막해진 가정에 매월 30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하고 아들을 지인(知人)의 회사에 취직시켜 경제적 자립을 도왔다. 한 가정이 살만하면 또 다른 가정에 인연이 닿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소식도 끊이질 않았다.

그렇게 이웃을 돕는 기쁨으로 보시행의 고단함을 잊어 갈 때, 위기가 닥쳤다. 신문배달 4년째에 접어든 97년, 부인 박씨가 자궁경부암에 걸린 것이다.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후, 부산과 마산을 오가며 간호하고 새벽에는 부인 몫까지 신문을 배달해야 했던 김씨의 고통은 커져만 갔다. 고민 끝에 신문사 지국에 후임자를 구하는 대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했다.

19살에 시집와서 13평 아파트에 살면서, 우유배달도 마다 않고 농아인 시누이의 아이까지 공부시킨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그런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던진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반전됐다. "김 선생님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기에 이렇게 초기에 병을 발견해서 완치할 수 있는지, 기적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지국으로 전화를 걸었다. 보름동안 입원 치료를 받는 아내를 대신해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큰아들이 신문배달에 나서도록 했다. 고 3때부터 배달을 돕곤 했던 장남 성수는 엄마의 빈 자리를 잘 채워주었다.

"아이들이 참 고마워요. 부모가 신문배달을 한다는 것을 부끄러워 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도 방학 때면 구역을 나눠 신문배달을 하고, 그 돈으로 제 또래 장애아들이 있는 시설을 찾아 봉사를 하곤 했어요."

그렇게 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 천둥 번개가 치는 날, "미친 것 아니냐" "죽으려고 환장했냐"는 소리를 들어가며 배달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제사가 많은 종가집이라 새벽 두시에 잠이 드는 일이 허다해도 구독자들과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김씨가 열 대째 자전거를 바꾸고 아내의 손수레가 열 대째 부서져 나간 10년 동안 배달로 번 수입 9천여 만원은 고스란히 이웃에게 전해졌다.

그것도 모자라 '아름다운 가정상' 부상으로 받은 상금 1백 만원을 내놓으며 반상회를 통한 모금 운동에 나서고, 김씨가 섭외부장 소임을 맡고 있는 마산시청불자회 회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3년 전 창립된 마산시청불자회와 함께 인도의 빈곤 아동 돕기에 나서 생필품과 의류 5천여 점을 전달,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교장이 직접 시청을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때 불자로서의 기쁨은 더욱 남달랐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놀라워요. 할 때는 힘든 줄도 모르고, 조금이라도 세상에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했는데…."

남편의 말에 둥근 상을 앞에 놓고 <금강경>을 사경(寫經)하며 한동안 말이 없던 아내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그리고 도움을 받은 분들이 보답을 하려고 먹을 것도 주시고 오히려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기쁘죠." '대단해요'라는 수식어는 이들이 하고 있는 신문배달이나 선행보다는, 그 모든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온 이들의 마음 앞에 붙여진 것임을 알겠다.

요즘 아내는 <금강경> 사경에 흠뻑 빠져 있다. 지난 2월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사경 하던 상을 그대로 물려받아 <금강경>을 쓰고 있다. <금강경> 사경 병풍을 직접 만들겠다는 원을 세운 박씨는 "사바세계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경전에 설해져 있어요. 이 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다 보면 나와 이웃의 고통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불제자로서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지요."

"신문 배달하는 힘은 이런 원력에서 나온다"고 힘주어 말하는 김씨 부부. 신문배달을 마치고 돌아 올 때는 언제나 노래를 부르며 돌아온다는 부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퇴직 후에도 신문배달과 이웃돕기를 계속할 것이다.

마산=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대학원생 모집

국내 최초 유일의 불교전문대학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가 2004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Ⅰ. 모집 학과 및 인원
1. 모집학과 : · 불교학과 – 불교학 · 사회복지학 · 명상학 전공
· 상담심리학과 – 상담심리학 · 자아초월상담학 · 요가치료학 전공
2.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과정 : 00명, 연구과정 : 약간 명

Ⅱ. 지원자격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2. 학부전공과 상관없음

Ⅲ. 전형일정
1.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11. 10(월) ~ 11. 20(목)
• 장 소 : 본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www.sgsb.ac.kr)
2. 전형일시 : 2003.11. 22(토) 10:00
3.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Ⅳ.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사진첨부)
2.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3.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Ⅴ. 전 형 료 : 50,000원

Ⅵ. 합격자 발표
1. 일시 : 2003. 11. 27(목) 10:00
2. 장소 :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 ☎(02) 808 - 3321

Ⅶ. 특 전
1. 불교학과(불교학 · 사회복지학 · 명상학전공) 입학생 중 우수자에게는 학위취득시까지 수업료 전액 또는 반액 장학금 지원
※박사과정 신설시(2004. 9. 1) 박사과정 불교학전공 학생에게는 연구비 지원
2. 각종 자격증 취득 가능 : 명상지도사, 상담심리사, 요가치료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불교상담사 등

※상담심리학전공자는 졸업시 한국상담대학원협의회 공인 '상담사(2급)' 자격증발급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2) 808-3321, 6582 Fax (02) 808-6581
주소 : 153-83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회원모집 **안양 보장사 영각당(납골당)**

◆ 안양유원지 입구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 믿을 수 있습니다.
보장사 영각당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교육부인가 전문대학원)와 보문중 · 고등학교(대전), 안양시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이사장 · 주지 : 전덕해) 소속의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수익금은 전액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투자됩니다.
◆ 최고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 교통이 편리합니다. (전철 1호선 관악역 도보 10분)
◆ 주차가 편리합니다. (자체주차장과 바로 앞 공영주차장 600대 주차가능)

영각당 분양 안내

단의 종료	위 수	이용가격	위 수	이용가격
개인단	1위	250만원 ~ 300만원	12위	2,500만원
부부단	2위	450만원 ~ 500만원	20위	4,000만원

※이용가격은 영구보존 기준 가격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40-10
Tel (031) 471-3322, 3442 Fax (031) 471-3488
서울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반포쇼핑타운 3동 504호
Tel : 02-534-4444 www.bojangsa.co.kr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본 대학원대학교는 학교법인 보문학원의 수익용기본재산 외에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납골당)에서 조성되는 수익금으로 운영됩니다. 영각당에서 조성되는 수익금은 전액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 보문중고등학교(대전) · 안양시노인복지센터의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릴레이 수행일기 〈下〉



김광봉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생태연구원

부처님의 마음인 무심(無心)은 구불(口佛)이나 문자로서가 아니라 쓰고 거두는데 그림자가 없고 어디에도 통하는, 펄펄 살아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확연히 믿게 된 것이 내게는 더 없는 희망이 되었다. 우리 불자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의 문

참선하면 대상 관(觀)할수 있고 심신 고요
인과에 대한 믿음 생기니 모든일에 신중

이다. 이러한 믿음이 일념(一念)이 된다면 중생이라는 장애를 걷어치우고 효율적인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참선 수행을 하면 흔히 많은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나 역시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으며, 그 체험의 정도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분명해져 간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단편적으로 경험했던 마음의 고요가 차츰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더 깊어져 대상을 분명히 관(觀)할 수 있어 행동이 훨씬 용이해진 점을 들 수 있다.

우리가 늘 마주하게 되는 일상이 객관적으로 수용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유 없는, 충만된 즐거움이었다. 생각의 편차가 좁혀져 갈등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높아져 직장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수행과 생활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바쁜 일상속에서도 점차 마음이 가볍고 즐거워졌다. 부처님의 무심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어 언제 어디서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

나의 참선 도량인 우곡선원의 독특한 수행풍토는 모든 것이 불문율이지만, 누구나 잘 지키고 실천한다는 것이다. 나 역시 우곡선원에서 참선공부를 시작하면서 20년 동안 지속했던 습관을 끊고 금연을 하였지만 전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중생놀음인 바둑, 장기, 당구 등 잡기에 몰두하지 않을 수록 초조와 불안보다는 오히려 편안할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다.

나 뿐만이 아니라 우곡선원 도반들이 갑작스러울 만큼 빨리 몸과 마음의 장애를 극복하고 활기차고 쾌활한 사회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참선 수행의 효과와 귀중함이 새벽이슬처럼 피부에 와닿는다.

'일상(日常)이 곧 선(禪)'이라는 말씀처럼 참선공부를 하면 할 수록 세상살이는 매우 정교하게 합리적으로 엮어져 있다는 자긍심이 새순처럼 새록새록 돋아난다. 인과(因果)가 분명한 것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면서 나의 일거수 일투족에 더욱 신중해 졌다.

때를 묻히지 않으려는 마음 그 자체가 지고한 수행이고, 지혜이며, 더욱 순수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순수는 이 세상 무엇과도 상통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이고, 본래의 마음이며 지혜의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나의 정진이 미약할 때 언뜻 절대고독의 묘(妙)를 떠올리며 경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모든 인연들께 이 자리를 빌어 한없는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제는 명상, 수행의 시대입니다



◇송순현 원장

서울 종로구 원서동의 한 빌딩에 자리잡은 정신세계사(www.mindvision.org). 명상 및 뉴에이지 분야 전문 출판사인 정신세계사와 명상 전문잡지 격월간 〈정신세계〉, 종합 심신수련 및 교육센터인 '정신세계원', 그리고 명상 전문서점인 '책방 정신세계'라는 네 개의 사업체가 모여있는 이곳은 우리나라 명상문화의 요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치고 황폐한 영혼을 달래는 명상도서 출판의 대표주자'라는 세간의 평가처럼, 책방 정신세계에는 20여년간 만들어 낸 3백여권의 명상도서들이 가득하다. 책방 한켠에는 '겨레를 밝히는 책들'이라고 쓰여진 깃발 아래 100만부 판매로 우리 정신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운 〈단(丹)〉을 비롯한 이 분야의 책 수십여권이 놓여 있고, 다른 쪽에는 '영혼의 스승들', '수행의 시대', '새로운 세계의 열림', '정신과학총서', '믿는다는 것 총서' 라고 쓰여진 깃발 다섯 개가 저마다 십수 권씩의 책을 거느리고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다.

정신세계사의 책들은 이처럼, 존재론적인 질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숨가쁘게 앞으로 달려가는 현대문명 속에서 잠시 자신을 돌아보라며 사람들에게 '느리게 사는 법'을 제시한다. 특정한 종교를 표방하지도 않으면서 삶과 죽음, 전생과 윤회, 깨달음과 구원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주제들을 편협하지 않게 다루고 있는 정신세계사는 사실 어느 단체보다도 종교적, 아니 불교적이다.

지난 10월 22~31일 창립 20돌 기념행사를 연 정신세계사의 모토는 '맑은 정신, 밝은 세계'. 송순현(53) 정신세계사 대표는 입적한 태고종 자비정사 주지 무룡스님의 사위다. 송 원장은 1992년 미국 실바마인드컨트롤 국제본부에서 전문강사 과정을 이수하고, 틈틈이 생활명상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명상 전문가이지만 최근에는 수국사에서 매일 좌선할 정도로 불교공부에 흠뻑 빠져 있다.

"명상의 목적은 심신의 건강과 안정으로부터 깨달음을 지향합니다. 명상 입문자들이 공부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게 되고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선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신세계원의 선무(禪舞) 강의 장면.

청소년 심신수련법 개발에 몰두
한국 명상문화 요람 자리매김
자신을 돌아보는 존재론에 초점
다양한 불서펴내 포교에도 앞장

필수요소임을 알게 됩니다."

80만부를 판매한 〈성자가 된 청소부〉를 비롯한 오쇼 라즈니쉬 등의 명상서로부터 〈티베트 사자의 서〉 〈달라이 라마 자서전〉 등 많은 불서를 펴내면서, 남모르게 불법(佛法)을 전한 것도 이런 종교관에서 기인한다.

특히 송 원장이 직접 운영하는 정신세계원은 국내의 대표적인 종합 심신수련 및 교육센터로 손꼽힌다. 1993년 개원한 정신세계원은 인간 정신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심신의 조화를 꾀하는 여러 수련 방편들을 교육, 수련, 연구하는 장을 열어놓고 있다. 프로그램은 본원의 강의장과 웃는돌 명상센터, 기타 제휴단체의 수련장에서 전문가 양성반, 상설수련반, 특별기획 프로그램, 주말 특강, 워크숍, 1일 특강, 단기강습회, 명상여행, 야외수련캠프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10년동안 매달 30여 과목에 350여명의 전문 강사들이 진행한 이 프로그램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불교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이제열 법사의 '살아있는 금강경 강독반(매주 목 오후 7~10시)', 길연 선생의 '티베탄 펄싱 요가(매주 월 오후 7~10시)', 박태이 명상무용가의 '춤 명상(매주 일 오전 10~12시30분)' 등이 있다.

"10년전에 비해 심신수련계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명상 인구가 수백만에 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앞다투어 심신건강, 깨달음, 행복의 안내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명상과 수행의 시대가 활짝 열린 거죠."

송 원장은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 심신의 건강과 치유, 영적 각성, 학습과 일의 효율성 증대, 잠재능력의 개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행복감 증대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도 맑고 밝은 기운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제 고대의 지혜가 부활하여 첨단과학에게 손짓하며 지성과 직관이 하나 되고, 명상과 수행이 대중화, 생활화되는 새로운 차원의 정신문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우주와 생명의 신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의 눈이 열리고 진, 선, 미의 세계를 진실로 희구하는 순결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탐진치와 세상의 오염에 의해 병든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대자연의 도(道)와 기(氣)의 세계로 활짝 문을 열 것입니다."

송 원장은 무엇보다 청소년 대상의 심신수련법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내년에 소액주주 위주로 참여형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서울 인근에 종합명상센터를 설립해 명상대학 운영, 인터넷을 통한 수행법의 보급 등 건전한 명상문화의 보급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송 원장은 "이제 한국의 명상 및 수행 문화도 시행착오가 많았던 유년기를 거쳐 보다 성숙한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불교계의 수행법 정립과 대중적인 포교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02)747-7033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禪은 살아있는 종교며 진리"



◇인도 라즈니쉬 아쉬람에서 수행중인 프라풀라씨.

오쇼의 저서 〈명상의 길〉 번역한
명상가 마디얀 프라풀라

"나는 선(禪)을 유일하게 살아있는 종교라 부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다만 종교성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진리를 체험하고 현대인의 영혼에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파한 인도의 스승 오쇼 라즈니쉬(1931~1990)의 말이다. 최근 오쇼의 저서 〈명상의 길〉(지혜의나무)을 번역한 명상가 마디얀 프라풀라(34, 한국명 박지훈)씨는 오쇼는 언제나 "신(神)은 죽었다. 오늘날 선(禪)은 유일하게 살아있는 진리"라고 역설했다고 말했다.

95년부터 인도의 오쇼 아쉬람에서 통역 봉사를 하며 명상해 온 프라풀라 씨는 "오쇼는 어떤 종교보다도 선을 사랑한 것 같다. 약 30년에 걸친 가르침 가운데 후반기 강의의 대부분이 선사들의 어록인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오쇼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어떤 조사나 선사로부터 선을 전해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쇼는 자신이 달마를 말하지만, 달마의 공(空)이 아닌 바로 자신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 선이란 어떤 교리도, 창시자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가르칠 것이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벽암록〉 강의에서 오쇼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선은 비어있음(空)을 즐기고, 없음(無)으로 꽃핀다. 그것은 순수로, 앎이 아님으로 충만해 있다. 그것은 세속과 신성을 분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성하다'."

프라풀라 씨는 "오쇼가 말하는 선은 명상의 정수와 닿아있다"면서, "그러나 외국에서는 한국 선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선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 선종을 알리기 위해서는 고승 법어집의 영문번역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오쇼의 삶은 일체의 헤아림이나 분별을 뛰어넘어 자기의 본래면목을 단박에 깨치고자 하는 선사들의 삶과 닮았습니다. 깨달음의 본질을 쉽고 간명하게 전하는 오쇼의 가르침과 그 전달방법은 한국의 선 수행자들이 꼭 참고했으면 합니다."

김재경 기자



1.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명	모집학과	개설전공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불교학과	불교학, 밀교학, 응용불교학	23명
	영어영문학과	영어학, 영문학	
	법학과	공법, 사법	
	외교통상학과	정치학, 경제학	
	정보전자공학과	전자공학, 컴퓨터제어공학, 반도체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멀티미디어공학	
불교대학원	불교학과	불교학, 불교문화학	15명
	종학과	진각종학, 밀교학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실천, 정신보건복지,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30명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행정, 노인(케어)복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인사조직, 생산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회계학, 국제경영	25명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 국어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체육교육, 미술교육	50명

2. 지원자격
-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04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단 교육대학원은
가. 현직 교사로 재직중인 자는 대학의 출신학과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교육행정전공은 교직원도 가능함.)
나. 현직 교사가 아닌 교원자격증소지자는 자격증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전공에만 지원 가능

3. 전형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2003년 11월 12일(수) ~ 11월 28일(금) 17:00

구분	교부방법	접수	비고
직접교부	본 대학 정문 경비실 및 대학원교학팀 (인문사회과학관 319호)에서 직접 교부	대학원교학팀	원서교부 시 평일 17:00이후, 토요일 및 휴무일은 정문 경비실 교부
인터넷교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grad.uiduk.ac.kr

※우편접수 마감 : 2003년 11월 28일(금)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나. 전 형 : 2003년 12월 6일(토), 14:00
다. 합격자 발표 : 2003년 12월 12일(금) 개별통지
라. 등록기간 : 2003년 12월 24일(수) ~ 12월 30일(화)

4. 기타
입학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본대학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대학원교학팀(☎054-760-1081~3)으로 문의 바랍니다.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불교대학원 불교지도자과정 모집 중

가슴으로 세상을 배운다 Global Action 위덕대학교
대학원교학팀 TEL. (054)760-1081~3 http://grad.uiduk.ac.kr

도시락마다 나눔의 행복과 보람 '꽉꽉'

바라밀현장

'나눔마을' 금화사 봉사자



◇나눔마을 주방에서 금화사 신도 봉사자들이 완성된 밑반찬을 시식하며 반찬통에 배분하고 있다. 사진= 고영배기자

틈새 불우이웃에 도시락 봉사
노인들 위한 반찬 준비에 정성
무료진료등 지원활동도 다양

11월 4일 강동구 강일동의 한 골목길로 들어서니 쓰러져가는 판자집들이 즐비하다. 지붕이 내려앉은 집, 찢어진 비닐로 감싼 집들이 버려진 동네를 연상케 한다. 과연 사람이 사는 집일까 하는 생각에 대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놀랍게도 낮고 여린 할머니 음성이 전해져온다.

"이제 왔어?"

"예, 할머니 나눔마을이에요."

사회복지법인 나눔마을(이사장 각현스님) 박왕호(41) 상임이사가 인사하며 도시락을 건넨다.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해 손끝으로 도시락를 훑는다. "고마워…. 먹고서 내 잘 씻어 놓을게…."

매주 화요일 강동구 일대 불우이웃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나눔마을 이사 박왕호 씨와 서울 금화사 신도 20여명이 바로 그들. 이들은 매주 나눔마을 사무실에 모여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반찬을 만든다. 마을을 직접 돌며 그들의 생활을 지켜봐왔기에 음식을 준비하는 손끝 하나하나에는 각별한 정성이 배어있다.

"기본적인 생활여건도 마련하지 못했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 불우이웃'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자식에게 버림받아 가난에 상처까지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예요."

윤상금(59) 씨 말대로 나눔마을 봉사자들이 주목하는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 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이다. 봉사자들은 규모가 큰 복지단체들조차 간과해왔던 '틈새'를 자신들 손으로 메꿀 것을 꿈꾸며, 반찬만들기 삼매에 젖어든다.

"독거노인들은 밥을 제대로 챙겨 드시지 않습니다. 치료비 지불 등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들에겐 우선이죠. 그래서 밑반찬 식단을 짤 때는 한 끼 식사로 그칠지라도 영양에 대한 고려가 앞서게 되더군요."

박정숙(44) 씨는 간편하게 오래 먹을 수 있는 저장식품류를 굳이 고집하지 않는다. 코다리찜과 같은 경우 며칠을 두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지만, 영양은 물론이고 맛과 향으로 미각과 후각을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주메뉴로 선정하기도 한다. 이는 상대를 고려하는 마음씀씀이에서 비롯된다.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삶을 함께 나누는 이웃'이라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복지가 특별한 것이겠어요? 이웃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상대의 자존심은 생각지 않고 '주는 행위'에만 매달려서는 안돼요. 봉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나눔마을을 홀로 이끌다시피하는 박왕호 이사는 반복되는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봉사를 지원하고 있다. 밑반찬 봉사 외에도 격주로 무료 한방 진료를 벌이는 동시에, 매달 지역 노인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도배, 장판지 교체 등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비롯, 겨울철에는 난방연료와 의류, 김치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불교의 존재 이유가 '복지'라는 이름의 '중생구제'에 있다고 믿는 나눔마을 봉사자들. 그들은 어려운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를 벌이며 부처님 자비를 몸소 실천에 옮긴다. 그리고 함께 믿음을 만들어 간다. 우리의 손과 발에서 지역 불국토의 자양분을 생산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02)3402-1515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실천이 따라야 진정한 봉사죠

대전 서구노인복지관 돕는 '세등선원 신도회'



◇세등선원 신도회 주방봉사팀이 서구노인복지관 주방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다.

복지관 300명 급식 도맡아
7년 경전공부 활동의 힘

"7년째 초발심 그대로 자비행을 실천하는 보기 드문 불자들입니다."

대전 서구노인복지관에서는 '세등선원 신도회' 보살들을 진짜 '보살'이라 부른다. 지난 86년 서구노인복지관이 개관하던 때부터 매주 목요일 복지관의 식당을 지키며 300명의 급식을 도맡아 왔다. 12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7년의 세월 동안 목요일 하루만큼은 복지관에 그대로 반납하자는 서원을 세우고 자원봉사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이들이 봉사를 마음먹게 된 것은 무주상보시에 대한 세등선원 주지 능환스님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부터다. 불법에 대한 실천 없이 머리만 키워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 터에, 대전시에 들어선 불교계 복지관에서 봉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모았다. 또한 복지관의 각종 재가봉사도 기회 닿는 대로 도와, 복지관 내에서 신뢰가 두텁다고 이미순 복지사가 귀띔한다.

7년 동안 이어온 월요일 경전공부도 꾸준한 봉사활동의 거름이 됐다. 신도회 권옥자 씨는 "<화엄경>에서 '진리를 구하는 진실한 이는 들은 대로 실천하기에 힘쓴다'는 구절을 되새기며 회원들끼리 마음을 모았다"며 "자리행과 이타행을 함께 이끌어가는 불자가 되겠다"고 발원했다. (042) 488-6297

강신재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타타오 스님 (上)

태국 최초의 비구니사원 설립

오늘날 태국에서 비구니 수계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나콤파돔(Nakhonpathom) 지방에 태국 최초로 여성 불자들을 위한 사원을 설립한 타 타오(Ta Tao, 본명 Voramai Kabilsing) 스님과 그의 속가 딸인 방콕 탐마사트대학 찻수만 카빌싱(Chatsumarn Kabilsing) 교수이다.

젊은 시절 학교 교사였던 볼라마이 카빌싱은 결혼해서 딸을 한 명 낳았다. 딸을 키우면서 그녀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그런만큼 태국의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도 깊어져 갔다. 40대에 들어서자 그녀는 드디어 삭발을 단행하고 방콕에서 존경받는 한 비구 스님에게 8계의 수계를 부탁했다. 그녀는 8계를 받았지만, '마에지(Mae Ji, 재가자로서 5계나 8계를 수지한 태국의 삭발 여성 수행자)'의 흰색 법복을 입지 않고 엷은 황색 법복을 입어 스스로를 마에지와 비구 양쪽으로부터 구별했다.



◇타타오 스님

이듬해인 1957년, 그녀는 방콕 인근의 나콘파톰 지방에 부지를 매입, 여성 불자들이 머물 송다르마 칼리얀티 사원(Watra Songdharma Kalyanti)을 건립했다. 또 어린이 학교와 고아원을 세우고 월간지와 단행본도 출판했다. 지난 37년 동안 보라마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재가자들을 돕는 보살행을 펼쳐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주말마다 사원에서 정기적인 법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정식 비구니계를 받지 못한 보라마이에게는 승단의 일원으로서 적지 않은 활동의 제한을 받았다. 이에 따라 먼저 중국 교단으로부터 비구니계를 받으려고 시도했지만, 불가능함을 알게 된 그녀는 1971년, 대만에서 타타오라는 법명으로 비구니계를 수지하였다.

타타오 스님의 속가 딸인 찻수만 카빌싱 교수는 여성 불교에 대한 어머니의 이런 헌신적인 원력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찻수만 교수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 위해 태국에서는 물론 인도와 캐나다의 대학에서 불교를 전공하였다. 그녀는 학술활동을 통해 '마에지'의 대변자로도 유명해졌으며, 동시에 상좌부 불교국가의 비구니 교단 건립과 불교에서의 여성 지도력 향상을 주장했다. 탐마사트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성불교와 관련한 논문과 서적을 출간하는 일 외에도 불교계 여성들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84년, <국제 여성 불자 운동 회보(Newsletter on International Buddhist Women's Activities)>를 간행하기 시작, 현재 38개 국에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찻수만 카빌싱 교수는 비록 재가 여성이지만, 타타오 스님을 도와 태국에서 비구니 교단 건립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아야 케마 스님처럼, 여성 불자들이 자신의 종교적 염원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비구니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때에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 태국 재가신도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현실적인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교단제도이기 때문이다.

37년간 여성, 어린이, 고아 돕는 보살행
사회문제 해결 위해 노력하는 자세 강조

그러나 타타오 스님이나 찻수만 교수가 선정 수행이나 불교 의식에만 전념하는 그런 비구니 교단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비구니라면 자신을 지원하는 신성한 교단의 힘을 통해 태국은 물론 세계를 위협하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계속)

김재경 기자

삶의 의미를 통찰하고, 영혼을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전생, 빙의 전문」 특별워크샵

WWW.HYPNOS114.COM

아주 오래된 과학, 특별한 치유의 세계!

• 과정 이수 후 감사사례 중에서

먼저 이러한 인연으로 인도해 주신 부처님께 감음할 따름 입니다.
한국최면아카데미를 만난 것은 저에게 크나큰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하여 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 스스로 현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 자신의 전생을 알고 나서 참선할 때마다 밀려들던 알 수
없는 허망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아주 깊은 선정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략 –
또 하나는 신도들에게도 제가 깨달은 통찰을 얻은 그대로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전생의 업장이나 여러 인연으로
인한 빙의로 인해 고통받는 속인들과 빙의령에게 이야기하듯
진정한 불법을 전하고 깨달음을 줄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중략 –
또한 여러 불사를 힘들이지 않고 이룰 수 있게 된 것 또한
이러한 인연을 통한 통찰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한국최면아카데미의 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와 발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00사 00 합장

약 30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최면은 그리스의 "잠자는 사원"이라는 곳에서 육체와 영혼의 치유는 물론, 신탁의식을 행했던 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TV를 통해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간혹 소개가 되고 있지만 **최면의 진정한 활용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의 폭은 아주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 많은 유명 대학에서는 **최면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내에 최면 전문 클리닉 센터를 속속 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최면을 치료의 한 방법으로 **공식 승인**해 놓고 있습니다.
최면에는 여러 분야가 있으나 금번 한국최면아카데미에서 **전생, 빙의 전문가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들이 스스로의 무한한 잠재영성 개발은 물론 직접 현장에서 타인의 영혼 치유에 필수적인 **전생퇴행기법과 빙의처리기법**을 중심으로 최면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바쁘신 수행일정을 고려하여 총4회, **집중훈련 특별워크샵과정**을 통해 단기 완성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최면을 알게 되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자신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게 됨으로써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최면은 인간의 의식과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활동을 실험, 검증,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학적체계가 완성된 가장 유용한 방편일 뿐 아니라, 알 수 없는 전생과 현생의 업장과 습으로 인해 윤회의 고해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전생과 현생의 업을 정화**시키고 **진실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통로이자 궁극을 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교육내용 교육과정 이수 후 즉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최 면 이 론 : 최면개론, 활용범위, 최면암시, 시술패턴, 유도기법, 심화기법, 자기최면, 자율훈련을 통해서 최면의 공통이론과 최면기법의 핵심노하우를 전달한다.
2.연령퇴행 실기 : 현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원인을 잠재의식에서 찾아 최면심리치료 기법을 적용, 문제점삭제 및 통찰, 자아강화를 통해 당당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한다.
3.전생퇴행 실기 : 현생과 연결된 전생의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며 업장과 연결된 자신을 통찰하여 참회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게 한다.
4.미래진행 실기 : 자신의 미래를 운명처럼 바라보게 하기 보다는 현생과 전생을 통찰시키고 남은 인생을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확신시켜준다.
5.영가천도 실기 : 빙의된 영가의 확인, 대화를 통한 원한관계 파악, 해원과정, 빙의증세치유, 영가치유, 영가천도기법, 천도확인 및 재접신 방지 영치유법.
6.법회, 참선교실 : 즉각적으로 깊은 단계로 명상을 유도하여 법회의 감화를 높이고 참선교실을 열어 자기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신도관리법을 자문함.
7.치유력향상기법 : 영성감응과 최면치유암시에 의해 심신질환의 자연치유력 향상

※본 교육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발송비 5,000원을 입금계좌로 보내신 후 연락주시면 안내자료와 자료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 2층 전관)시민회관 후문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 E-mail : admin@hypnos114.com



한국최면아카데미 WWW.HYPNOS114.COM 부설 전생·빙의 연구소

[특 전] 한국최면아카데미 인증 전생상담사 인증서 수여
[정규개강] 2003년 11월 21일(금요일) 12:30
[교육기간] 2003년 11월 21, 28일, 12월 5, 12일
매주 금요일, 총 4회, 30시간
오후 12:30~오후 8:00
(교육 후에도 지속적인 자문 지원)

[수강신청] 입금 후 전화신청 또는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별도 문의, 확실한 신분 보장
[교 육 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 한국의식개발원)
[기타문의] 특별법회 초청 강연 및 개인상담 별도 문의

大野 임재형 박사
상담학 박사
한국최면아카데미 원장
한국생활최면실천학회 회장
한국교육최면학회 부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바수밀다녀의 법문

자비심 가지고 중생세계 들어가 교화
오염된 마음없이 탐욕 없애는 道 실현

선재동자가 찾아가는 53선지식 중에서 가장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것이 바로 바수밀다녀이다. 왜냐 하면 그녀가 거리에서 몸을 파는 유녀(遊女)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선재동자는 남쪽에 있는 험난(險難)이라고 하는 나라의 보장엄성(寶莊嚴城)에 이르러 바수밀다 여인을 두루 찾아다녔다. 그것을 보고 바수밀다녀의 공덕과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동자는 지혜가 명철하고 미혹하지도 않아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반하지도 않고 탐욕의 수렁에 빠지지도 않을 터인데, 무슨 뜻으로 이 여인을 찾고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지혜가 있는 줄을 아는 이가 있어서 선재동자에게 '그대가 이 바수밀다 여인을 찾으니, 그대는 이미 광대한 좋은 이익을 얻은 것과 같다' 고 하면서 그녀가 성 안의 저자 북쪽에 있는 자기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선재동자가 그녀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을 보니 거대한 누각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보배로 훌륭하게 꾸며져 있었다. 그녀의 용모를 보니 단정하고 모습이 원만하여 욕계(欲界)의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 모든 중생의 갖가지 말을 모두 알고 있었고, 문장을 잘 알고 언론이 능란하며, 환술(幻術)과 같은 지혜를 얻어 여러가지 방편에도 통달하였다. 선재동자가 그녀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나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묻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은 '탐욕의 경계를 여읨' 이다. 그들의 욕망을 따라 몸을 나타내는데, 하늘이 나를 볼 적에는 나는 천녀의 형상이 되어 광명이 훌륭하여 비길 데 없게 된다. 그와 같이 사람이나 사람 아닌 이가 볼 적에는 나도 사람과 사람 아닌 이의 여인이 되어 그들의 욕망대로 나를 보게 한다.

또한 어떤 중생이 애욕에 얽매여 나에게 오는 경우에, 내가 그에게 법을 말하면 그가 법을 듣고는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집착 없는 경계의 삼매를 얻게 된다.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를 보아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환희삼매를 얻는다.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와 말하여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걸림없는 음성삼매를 얻는다.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내 손목을 잡아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모든 부처 세계에 두루 가는 삼매를 얻는다. 어떤 중생이 내 자리에 잠깐만 올라와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해탈한 광명삼매를 얻는다.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를 살펴보아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고요하게 장엄한 삼매를 얻는다.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의 활개 뻗는 것을 보아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이 외도를 굴복시키는 삼매를 얻는다. 어떤 중생이 내가 눈을 깜빡이는 것을 보기만 하여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부처 경계의 광명삼매를 얻는다. 어떤 중생이 나를 끌어안으면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모든 중생을 거두어 주고 항상 떠나지 않는 삼매를 얻는다. 어떤 중생이 나와 입술을 한 번만 맞추면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이 모든 중생의 복덕을 늘게 하는 삼매를 얻는다. 이와 같이 나에게 가까이 하는 중생들은 모두 탐욕을 여의는 경계에 머물러 보살의 온갖 지혜가 앞에 나타나는 걸림없는 해탈에 들어간다."

바수밀다 여인이 설하고 있는 '탐욕의 경계를 여읜 해탈' 법문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세계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을 교화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중생의 욕망에 따라서 몸을 나타낸다' 고 하는 데에도 잘 나타나 있다.

진실로 그녀는 보살이 세상에 수순해서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편 지혜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세속의 오염된 법을 행하여 보이면서도 자신 스스로는 일념(一念)도 오염된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오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녀는 탐욕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중생들을 교화해서 오히려 탐욕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녀가 살고 있는 나라의 이름이 '험난' 인 것은 중생들의 탐욕세계를 의미하고, 머무르고 있는 나라의 이름이 '보장엄' 인 것은 진실한 행이 안으로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 '바수밀다(Vasumitra)' 는 세우(世友) 또는 천우(天友)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녀가 교묘하게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들여서 그들을 교화하기 때문이다.

바수밀다 여인과 같이 탐욕의 중생세계에 가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보리심을 발하여 진정한 중생제도를 발원한 보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바수밀다 여인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원력을 가지고 중생세계로 몸소 나아간 진정한 보살인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선의 세계 ⑰

견성성불(見性成佛)-5

성불(成佛)이라 하면 '부처를 이룬다' 는 말이니 '부처로서의 경지를 이룩한다' 는 뜻이겠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부처가 된다' 고 하면 되겠다. 그러나 전회의 글에서 언급했듯이 선(禪)에서 말하는 견성성불의 성불은 부처가 아니었다가 비로소 부처가 된다기보다는, 자기가 워낙 이미 부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자기의 본래 정체를 깨닫는 것이다. 자기에게 없던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선종에서 깨달음 또는 성불을 두고 무소득(無所得)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무소득이라 하면 얻는 바가 없다는 뜻이니, 깨닫는다, 성불한다 하여도 실상은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부처의 경지를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경전에도 해탈 또는 열반은 불가득(不可得)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취지이다. 이를 두고 문외한들은 엉뚱하고 웃기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즉, 거 봐라, 불교에서는 깨달음, 해탈, 열반, 성불, 이런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고 하면서 결국 그런 것은 얻을 수 없다고 불교 스스로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니 불교에서 늘어놓는 그 숱한 법문이 결국에는 다 헛소리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불가득, 무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들이 풀이하듯이 '얻을 수 없다', '얻는 것이 없다' 는 뜻이 아니다. 깨달음 또는 부처의 지위는 얻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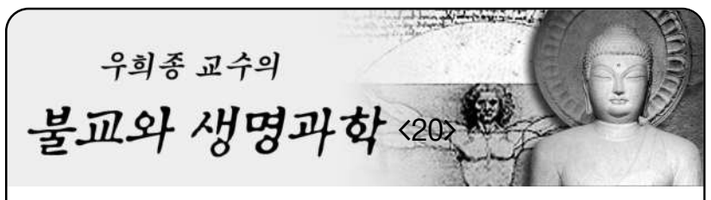
이미 있던것 알고 확인할 뿐

자기에게 없던 것을 밖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새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미 있던 것을 알게 되고 확인할 뿐이라는 얘기이다.

선사들의 어록을 보면, 부처를, 또는 깨달음을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는 말이 누누이 나온다. 그 예는 무수하게 들 수 있다. <육조단경(六祖壇經)>에서는 "부처는 자기의 성품이 짓는 것이니, 몸 밖에서 구하지 말라" 고 하였다. 마조(馬祖)스님과 대주혜해(大珠慧海)스님이 나눈 이야기도 한 예가 된다. 혜해스님이 처음 마조스님을 찾아와 참례하니 마조스님이 혜해스님에게 뭘 찾아왔느냐고 묻는다. 불법(佛法)을 구하려 한다고 대답하자, 마조스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자기의 보배창고는 살피지 않고서 집을 버리고 사방으로 치달려 무엇하려느냐." 그러자 혜해스님이 다시 묻는다. "무엇이 저의 보배창고라는 말씀입니까?" 이에 대한 마조스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바로 지금 나에게 질문을 하는 바로 그 놈이 그대의 보배창고이다. 거기에 이미 일체가 다 갖추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작용이 자유자재하니 어찌 밖에서 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스님이 말한 회광반조(回光返照)라는 개념도 바로 그런 뜻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늘 자기 밖에서 구하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촉각을 잔뜩 곤두세우고는 관심을 바깥으로만 내뻗는다. 부처의 경지나 깨달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깨닫지 못했으며 부처가 아니라는 도무지 깨지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깨달음과 부처를 저 밖의 어디에 있는 것으로만 여긴다. 그렇게 밖으로만 치닫는 서치라이트 빛을 되돌려 자기 자신을 비추어보라는 것이 회광반조의 뜻이다. 바로 거기에 이미 깨달음을 지니고 있으며(本覺) 이미 부처로서의 정체(佛性)를 담고 있는 보배창고가 있는데 왜 자꾸만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며 수고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직지인심 견성성불, 즉 여기 저기 집적거릴 필요 없이 곧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질러 들어가 자신의 본래면목을 보니, 바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선종의 구호가 성립한 것이다.

■윤원철 서울대학교 교수 · 종교학



공감과 수용

현상의 모든 것은 관계로 말미암아 다만 그러한 작용이 펼쳐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한 관계로는 나와 나, 나와 너, 나와 세상 등으로서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기에 무엇보다도 참된 이 세상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 원래의 한 마음자리로 돌아가도록 우리는 소위 마음공부라는 것을 하고 있다.

불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심우도(尋牛圖)의 마지막 그림도 이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결코 마음공부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떠나 어디 먼 하늘나라에 가서 펼치는 신통방통한 것도 아니며 깊은 산 속에서만 펼칠 수 있는 그런 힘없는 공허한 공부도 아니다.

서로 공감못하기에 삶의 문제들 발생
아상 내려놓아야 무조건적 수용 가능

우리의 공부가 이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나는 타인을 어디까지 공감, 수용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이다. 대부분 우리들은 공감할 수 있는 상대방을 수용하게 된다. 자신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보아 공감할 수 있을 때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직장 내의 많은 갈등과 문제는 서로 공감되지 못하기에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고 화합하거나 타협하지 못하며 서로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제대로 된 마음공부를 통하여 자기의 기준이나 관점으로 표현되는 아상(我相)을 내려놓아 부처님 말씀에 따라 여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 것인가. 그것은 나의 기준이나 관점이 선행되어 이루어지는 공감을 통한 수용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즉, 내가 이해하여 공감할 수 있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인 선악(善惡)마저 뛰어 넘는 무조건적인 수용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이 가능한 것은 사랑과 자비를 통한 평등심으로서만 가능한 것으로, 마음공부 하는 이들은 진정 아상을 내려놓고 진정한 진리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가능하게 된다.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를 수용하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던져보라고 한 이야기나 부처님께서 살인자를 수용하여 깨달음으로 이끄는 많은 이야기도 그러한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무조건적 수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다.

즉, 내가 이해하여 공감할 수 있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인 선악(善惡)마저 뛰어 넘는 무조건적인 수용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이 가능한 것은 사랑과 자비를 통한 평등심으로서만 가능한 것으로, 마음공부 하는 이들은 진정 아상을 내려놓고 진정한 진리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가능하게 된다.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를 수용하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던져보라고 한 이야기나 부처님께서 살인자를 수용하여 깨달음으로 이끄는 많은 이야기도 그러한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공부가 이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나는 타인을 어디까지 공감, 수용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이다. 대부분 우리들은 공감할 수 있는 상대방을 수용하게 된다. 자신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보아 공감할 수 있을 때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직장 내의 많은 갈등과 문제는 서로 공감되지 못하기에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고 화합하거나 타협하지 못하며 서로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제대로 된 마음공부를 통하여 자기의 기준이나 관점으로 표현되는 아상(我相)을 내려놓아 부처님 말씀에 따라 여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 것인가. 그것은 나의 기준이나 관점이 선행되어 이루어지는 공감을 통한 수용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즉, 내가 이해하여 공감할 수 있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인 선악(善惡)마저 뛰어 넘는 무조건적인 수용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이 가능한 것은 사랑과 자비를 통한 평등심으로서만 가능한 것으로, 마음공부 하는 이들은 진정 아상을 내려놓고 진정한 진리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가능하게 된다.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를 수용하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던져보라고 한 이야기나 부처님께서 살인자를 수용하여 깨달음으로 이끄는 많은 이야기도 그러한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공부가 이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나는 타인을 어디까지 공감, 수용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이다. 대부분 우리들은 공감할 수 있는 상대방을 수용하게 된다. 자신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보아 공감할 수 있을 때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직장 내의 많은 갈등과 문제는 서로 공감되지 못하기에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고 화합하거나 타협하지 못하며 서로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제대로 된 마음공부를 통하여 자기의 기준이나 관점으로 표현되는 아상(我相)을 내려놓아 부처님 말씀에 따라 여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 것인가. 그것은 나의 기준이나 관점이 선행되어 이루어지는 공감을 통한 수용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즉, 내가 이해하여 공감할 수 있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인 선악(善惡)마저 뛰어 넘는 무조건적인 수용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이 가능한 것은 사랑과 자비를 통한 평등심으로서만 가능한 것으로, 마음공부 하는 이들은 진정 아상을 내려놓고 진정한 진리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가능하게 된다.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를 수용하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던져보라고 한 이야기나 부처님께서 살인자를 수용하여 깨달음으로 이끄는 많은 이야기도 그러한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공부가 이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나는 타인을 어디까지 공감, 수용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이다. 대부분 우리들은 공감할 수 있는 상대방을 수용하게 된다. 자신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보아 공감할 수 있을 때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직장 내의 많은 갈등과 문제는 서로 공감되지 못하기에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고 화합하거나 타협하지 못하며 서로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제대로 된 마음공부를 통하여 자기의 기준이나 관점으로 표현되는 아상(我相)을 내려놓아 부처님 말씀에 따라 여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 것인가. 그것은 나의 기준이나 관점이 선행되어 이루어지는 공감을 통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나 오직 간택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잘 들여다보면 이러한 무조건적인 수용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무조건적인 공감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예수도 스스로 수용하며 감싸준 간음한 여인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며, 부처님도 살인자를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곧 살인에 대하여 공감한 것은 아닌 것이다. 이렇듯 공부가 무르익으면 세상인들은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상대방을 가려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부터 평등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니 스스로의 공부를 돌아볼 때 점검하는 부분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봉인사 11월 수련안내

1. 자비수관(慈悲手觀) 수련

- ◆ 지, 수, 화, 풍, 공 의 오대 관법을 통한 위빠사나와 티벳 밀교계통의 혼합수행
- ◆ 안 내 : 지운스님(전 송광사 강주)
- ◆ 일 시 : 11월 22일(토) 오후 3시부터 28일(금)까지 (6박7일)
- ◆ 준 비 물 : 간편복장, 필기도구, 세면도구
- ◆ 수련비용 : 20만원(교재비 포함)

2. 다도(茶道)수련안내

- ◆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쉬운 다도를 일주일간 매일 한시간 반 동안 공부합니다
- ◆ 전 불교 TV에서 강의하셨던 내용을 수행법에 맞춰서 합니다
- ◆ 안 내 : 지운스님(전 송광사 강주)
- ◆ 일 시 : 11월 23일(일)오후 1시 반부터 28일까지 매일 출퇴근 가능
- ◆ 동참금 : 5만원

(교재비 별도/ 교재는 "찻잔속에 달이 뜨네"-봉인사에 비취되어있슴)

* 문 의 : 031) 574-5585

WWW. bonginsa.net / bonginsa@bonginsa.net

봉인사 한길정진원

간(肝)이 염간 지방간 경화 간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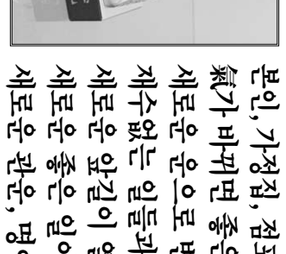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신비의 황금보물 **명당육氣방 051)865-9933**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44화)

"육식을 하지 말라-(1)"

〈출전 : 법구비유경 권 제1;자인품;4-581중〉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부동산 대책과 정치인

부디 자애로운 마음 갖길…

선재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정치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궁금해졌다. 정치인이라는 사람은 국회의원만을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일까? 한 가지 더. 정치인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일까,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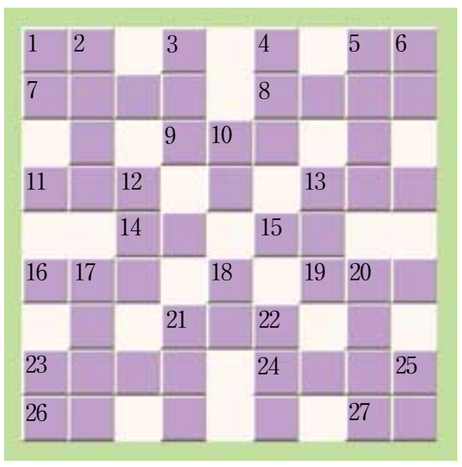
정당이 대기업들에게서 수백억 대의 선거 자금을 받았다고 한다. 선재 주변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정치자금이나 대준다고 한 마디씩들 한다. 등록한 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상황이 발표되었다. 평균적으로 해마다 약 8,000만원씩 늘었다고 한다. 거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강남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을 정부가 발표했다. 법안을 만들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입법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 한마디씩들 한다. 규제 대상이 모두 자기 자신들인데 어떻게 규제 법안을 만들 수 있겠냐고. 사람들은 로또만이 희망이라며 희박한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고, '10억 만들기'라는 유혹적인 상술에 넘어가 열심히 관련 서적을 본다.

"마땅히 법을 따라 정사를 행하고 악한 일은 덜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보시 · 애어 · 이행 · 동사의 사섭법으로 은혜를 베풀면 국가가 편안하고 흥할 것이다." <방등경>의 말씀이다. 정치인들이 사는 세계와 선재가 사는 세계는 너무 다르니 사섭법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먼저 자신부터 단련하고 자애로운 마음을 길러서 그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대하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서 마음 속의 때를 벗겨내고,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세속의 즐거움과 비견되는 바른 진리의 즐거움을 얻게 해야 한다." <화엄경> 입법계품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은 기대하지도 않는다. 제발 답답한 마음으로 낙심하게 만들지만 않아줘도 고맙겠다. 아침 저녁 바람이 꽤 춥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상식퍼즐



가로

1. 우주간에 있는 삼라만상 5. 맑은 물 7. 자기의 가능성을 실현 함 8.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는 깨끗한 국토 9. 강연을 하기 위한 모임 11. 의존하는 정도 13. 청정한 신심을 가진 세속의 남자, 우바새의 다른 말 14. 원을 내어 그것을 이루기를 맹세함 15. 바른 법 16. 기름을 이동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관 19. 불 보살이 중생을 보살펴 보호해 주는 힘 21. 어떤 일에 대해 바람이 없는 마음 23. 보통으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기발하고 엉뚱함 24. 남을 알고 나를 안다 26. 새로운 종류 27. 지붕 위.

〈446호 「교리퍼즐」 정답〉



세로

1. 卍의 모양은 무슨 자? 2.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3. 보현보살의 공덕을 강의하는 법회 4. 고려시대 토속신에게 제사 지내던 국가적인 의식 5. 청정무구하여 진여법계의 理와 일치한 부처님의 진신, 비로자나불 6. 물과 흙 즉, 기후와 풍토를 의미하는 말 10. 연꽃 모양의 등 12. 많은 도서를 모아 보관하고 공중에 열람시키는 일을 하는 시설 13. 설법을 청하는 노래 17. 끼리끼리 모이다 18. 음식을 탐냄 20. 8대 지옥의 네 번째로 고통에 쫓겨서 비통한 절규를 내는 지옥 21. 일체 중생을 항상 공포의 고통으로부터 구하여 제도하는 보시 22. 심하다 못해 나중에는 23. 기력과 정신 25. 잠자리에서 일어남.

이젠! 깊은 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경제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필



차량용 가정용

사용처

법당과 선방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업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차안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제품속에 행운이 깃드는 신비의 돌

경명이 첨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사용후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몸에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배게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향낭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몰론 담배생각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맥걱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광물질의 힘이 담긴 향 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작은알은 두세알)씩 뚜껑에 보충시켜주십시오.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낭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氣"이며 당신의 힘이 될것입니다.

제조원 나나 Mountain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타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 김도헌

출가 → 종정까지 '절구통수좌'의 수행기

"일대사 해결에 목숨 걸고 수행 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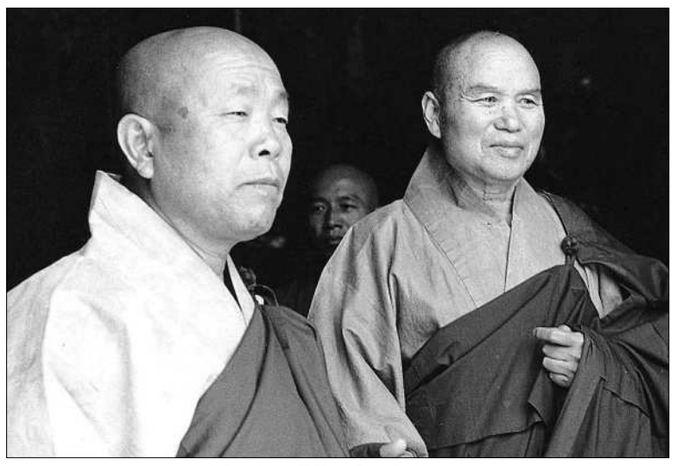
'백척간두에서 한걸음 더'

법전스님 법어집

조계종출판사 / 2만원

그 시작은 평범했다.

1925년 전남 함평에서 3남 1녀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또래에 비해 말수가 적고 혼자 있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속가에 두면 단명할 팔자'라는 역술가의 말 한마디에 부모는 아이를 출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성철 스님(오른쪽)과 함께 한 법전 스님.

백양사 청류암에서 고된 행자생활을 겪었지만, 정작 사미계를 받는 인연은 불갑사에서 맺어졌다. 십여 년 간의 수행생활 후 '믿고 따를 스승'인 성철 스님을 만나 전통 선불교의 기풍을 되살리기 위한 봉암사 결사(結社)에 참여했으며, '도림(道林)'이란 법호를 받았다. 그 후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수행정진 하며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사람이 바로 조계종 11대 종정 법전(해인총림 방장) 스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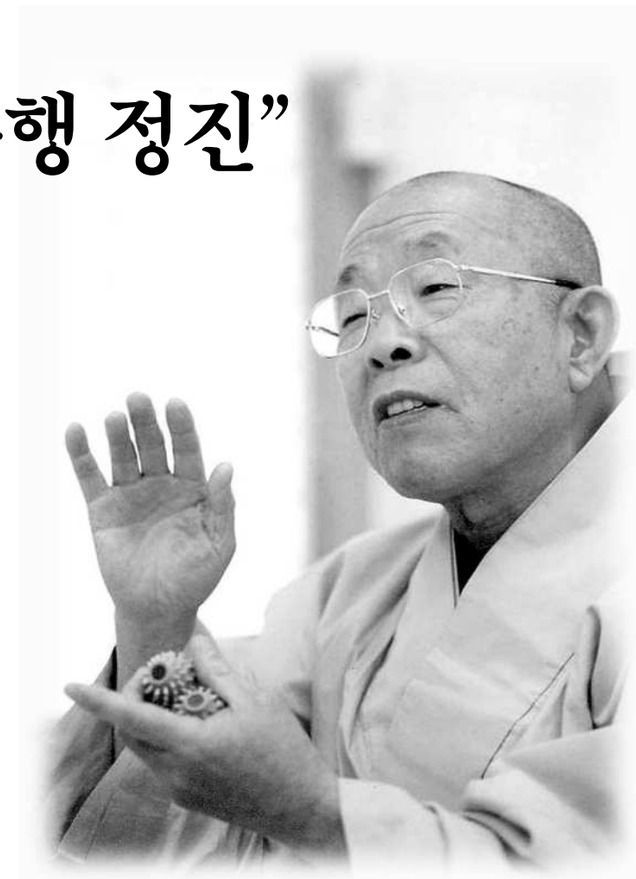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는 법전 스님의 출가 수행기와 법어를 묶은 책이다. 흔히 종정 스님의 입적 후 법어집을 출간하는 관행과 달리, 취임 중인 종정 스님의 법어집이 출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 책에서는 평생을 선승(禪僧)으로 살며 수행에 매진한 이력과, 불자들의 정신적 지도자인 '종정'의 자리가 주는 신비감을 걷어냄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스님의 출생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수행기를 실은 것도 이 때문이다.

96년 이후 하·동안거 기간중 설한 법문 90여편 뽑아 실어

언제나 말없이 절구통처럼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산처럼 우뚝하게 삼매에 들어 '절구통 수좌'라는 별명이 붙여진 법전 스님. 수행 생활이 담긴 이 글을 통해 '일대사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생을 끝내겠다'는 각오로 일생을 수행에 매진해 온 스님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수행기에 이어 96년부터 올해 여름까지 하안거와 동안거 기간 중에 설한 법문 90여 편을 실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법전스님 어록

공부는 산을 뽑을 듯한 분심이 있어야 한다

"자성(自性)을 못 깨치고 죽으면 지옥이다. 그런 생각에 혼자 앉아 통곡하기도 여러 번이었다. 가슴이 빠개질 것 같은 울음이었다. 수좌에게 공부의 진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고!"

"공부는 분심이 있어야 한다. 산을 뽑아버릴 듯한 분심을 일으켜야 한다."

"음력 시월 즈음이면 솔밭 사이로 달이 뜨고 찬 바람이 불죠. 내가 그렇게 쌀쌀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묘적암 이후로는 웃기도 잘하고 많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웃는 것을 본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요. 웃을 일이 없잖아요, 화두에 온 정신이 가 있으니까."

"도의 길은 따지고 분석하는데 있지 않다. 그저 온몸으로 부딪쳐 체득해야 하는 것이다. 수행자의 생명은 화두다. 다른 것은 없다. … 뜨겁게 한 생을 걸고 화두를 참구해서도 마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몽둥이로 나를 쳐라."

"수행자는 순수해야 한다. 수만 갈래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듯 순수 하나에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순수는 곧 지혜를 낳으며 무념, 무위의 평상심을 낳는다."

법전스님은

1925년 전남 함평에서 출생해 42년 영광 불갑사에서 설호 스님을 계사로, 설제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49년 성철·청담 스님 등과 함께 봉암사 결사에 참여했다. 57년부터 66년까지 문경 대승사 묘적암과 태백산 토굴, 김용사 금선대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정진 했다. 69년부터 15년간 김천 수도암에서 머무르며 선원을 복원하고 수많은 납자를 제접했다. 85년부터 해인총림의 수좌로 머물며 해인사 주지, 해인총림 방장, 성철스님문도회 회주,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조계종 11대 종정으로 추대되었고, 현재 해인사 퇴설당에 주석하고 있다.

성철·청담스님과 함께 49년 봉암사 결사 참여



'출가'

삼소회 지음

솔리 / 1만원

사연 절절한 '구도의 길'

불교·원불교·천주교 여성 성직자들 종교 귀의에 얽힌 아픔·이야기 소개

"왜 출가를 하셨어요?"

'참 진리'를 얻기 위해 출가한 성직자들을 보면, 으레 불쑥 생각나는 질문이다. 하지만 당사자로서는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이기도 하다. 성직자이기 이전에 한 가족의 자녀였던 이들이 가족과의 이별을 겪었던 순간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출가 이전의 삶에 대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는 뜻도 있으리라.

<출가>는 불교, 천주교, 원불교 세 종교의 여성성직자 12명이 '세계 평화와 종교 간의 화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결성한 '삼소회' 회원들의 출가 인연과 종교에 귀의한 후에 겪은 이야기를 모은 책이다. 1988년 설립된 삼소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명상기도를 하며 종교간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세 분의 출가사연은 이러하다.

진명 스님(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 진행)= 처음 스님이 되겠다고 말을 꺼냈을 때 아버지는 '다리를 부러뜨려서 평생을 먹여 살려도 내 자식을 스님 못만든다'며 노발대발 하셨죠. 하지만 거듭되는 가족회의 끝에 '절에 가서 일주일만 살다 오너라'고 하신 말씀이 곧 출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최형일 교무(원불교 경기 파주교당)= 제가 집을 떠나오던 날 아버지는 '이제 부모 슬하에서 떠나니 다른 교무를 부모처럼 모시고 살아라'는 말씀을 남기고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인숙 카타리나 수녀(성공회 성가수녀회)= 한국전쟁 통에 부모님을 잃은 저는 여동생과 함께 성베드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을 터득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964년, 그렇게 수녀원에 첫 발을 디딘 후 벌써 40여 년이 흘렀군요.



◇지난 8월 인천 강화군 백련사에서 기도모임을 가진 뒤 다담(茶啖)을 나누고 있는 삼소회 회원들. 왼쪽부터 오인숙·양요순 수녀, 혜성 스님, 최주영 수녀, 양도승 교무, 혜명 스님.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중일지	현칙 지음	지영사
2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혜봉 거사	불광
3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4	부처 통곡하다	정동주	이룸
5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6	깨달음의 거울	법정 스님	동쪽나라
7	천문학자와 붓다의 대화	이시우	종이거울
8	틱낫한의 비움	틱낫한	중앙M&B
9	불자의 살림살이	우룡 스님	효림
10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카렌 암스트롱	푸른숲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고요?
曼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우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과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천식이 떨어졌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져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원을 20만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달인물(만삼생것10kg, 황기, 잔대, 삼지구엽초, 생강, 대추, 감초)
■ 1Box × 60포 : 20만원 ■ 2Box ×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효사 육임 도서 안내
■ 활용서 ■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2,500,000
● 육임래정비법 350,000
● 육임래정비법 휴대용 310,000
● 각일각시운명예언비법(태아·길일·길시 선정법) 74,000
● 육임신수비결 300,000
● 육임指斗생활비법 10,000
● 길흉상담지침록 20,000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日語版 ￥272,000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 학습서 ■
● 효사 육임강의록 上(학습용)·下(활용서)권 410,000
● 육임강의 비디오·CD 900,000
● 육임형이상법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130,000
효사 전국육임直講 안내 직강
● 서울 매주 금요일 「효사숙」 02-993-8680
● 서울 강남 매주 토요일 「강남숙」 02-523-3030 (비구니스님 전문학당 청룡사)
● 전주 매주 일요일 「전주숙」 063-284-7714
● 광주 매주 월요일 「광주숙」 062-224-8680
● 진주 매주 화요일 「진주숙」 055-755-1644
● 부산 매주 수요일 「부산숙」 051-756-0141
● 대구 매주 목요일 「대구숙」 053-624-8680
● 오행 기초·기본을 모르는 분들은 위 각 본 강의 2시간 전에 나오셔서 사전 교습을 받게 됩니다.
※ 수강료는 일백오십만원이고 교재 효사육임강의록 上·下권을 드립니다.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는 육임학당「효사숙」에서「본회회원실기지도강의」와 육임서 설명회가 본 강의전에 있습니다.
문의 02-993-8680 / 02-998-8683
입금계좌 도서주문 : 우리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강의신청 : 우리 813-102730-01-001 한국육임학회

명리학 사상 가장 확실한 교과서인
"최신팔자명리학비결서" 소개
사주학 사상 그 누구도 사주학의 요체가 되는 <용신을 확실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지 못했던것을 본서에서는 수년간 연구 검증된 계산법으로 그 방법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쉽게 사주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이론을 습득하면 어떠한 사주이던 자신있게 상담에 임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서는 사주학을 운명추론학에서 심리학으로 까지 발전시켜놓은 이론이기도 합니다.
◆ 본서의 주요내용 소개 ◆
– 복잡하고 애매한 명리이론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시켜 놓았다는 점.
– 검증된 간단한 계산법으로 어떠한 사주이든 쉽게 <용신>을 찾을 수 있는 비결 공개(억부, 음양, 구조용신).
– 심리구조분석 및 8개궁위분석 비결 / 일간진입원리 응용비결 공개.
– 각종인연 분석에 관한 확실한 분석비결 공개(육친, 재물, 지위, 결혼인연 등).
– 사주원국에 대. 세운을 대입 해석 하는 비결 공개.

※ 수강생도 수시 모집함 ※
◐ 저 자 : 오산 정대균
◐ 책규격 : A-4별정지 620쪽
◐ 가 격 : 220,000원
◐ 본서는 본 연구소에서만 판매하며 입금 후 전화주시면 택배로 발송함
◐ 하나 : 751-810033-42207
국민 : 765202-04-019996
농협 : 170202-56-037616
• 예금주 : 정대균
www.sazoopalza.com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 02)831-0055(대표)
FAX 02) 831-0058 / H·P 011-208-0051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안내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 수요반 – 매주 (수) 오후 1시 ~ 3시
목요반 – 매주 (목) 오후 7시 ~ 9시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장 소 : 본 연수원
※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마음 조절 잘해야 훌륭한 골퍼

'젠(禪)골프'

조셉 패런트 지음 / 강주헌 옮김

한문화 / 1만원



샷할때 잡념 해소법 등 소개

'젠골프' 읽기 · 훈련방법 함께

골프를 잘 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골프의 제왕이라 불리는 타이거우즈를 비롯해 아니카 소렌스탐, 박세리 등 최고의 골퍼들은 기술보다는 자신감과 집중력이라고 말한다. 달리 말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서 잡념을 떨쳐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골프가 멘탈게임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 책은 골프라는 멘탈 게임을 효과적으로 정복하는 비법을 소개한다. 저명한 PGA투어 강사이자 초감 트룽파에서 불교와 선(禪)을 공부한 저자 조셉 패런트 박사는 골퍼들에게 스윙을 가르치는 대신에 정신을 가다듬고 가슴으로 공을 치는 법을 가르친다. 그것이 골프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또 장비가 아무리 개선되고 스윙을 분석하는 도구가 발전했다 하더라도 필드에 들어서서 마음을 조절할 수 없다면 훌륭한 골퍼가 될 수 없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저자는 골프의 가장 큰 적(敵)은 '자기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책 곳곳에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 샷의 실수를 불러 일으키는 잡념을 해소하는 방법, 그리고 나쁜 습관을 고치는 방법 등 마음자세에 대한 내용이 많다.

골프 책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뉜다. 골프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한 취미실용서와 골프에 경영을 접목시킨 경영경제서다. 그러나 이 책은 말 그대로 퓨전이다. 경기운영방식에 대한 조언을 위주로 보자면 손에 꽉차는 실용서다. 하지만 각 장의 서두마다 등장하는 불교식 우화와 책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마음 다루기에 대한 강조에 무게를 두자면 가벼운 종교서처럼 보이기도 한다. 골프를 직접 치는 사람들은 마음법만 강조하는 이 책이 골프에 실질적으로 무슨 큰 도움이 될까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까지 일러준다. '한번에 너무 많은 양을 읽어버리지 말 것', '젠골프를 위한 훈련법을 활용해 꾸준히 연습할 것', '책을 읽은 뒤 작가의 사이트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젠골프를 배워 볼 것' 등이다.

PGA투어 우승자인 마이크 레이더 라이드가 이 책을 "당신이 멋진 골프 솜씨를 보여줄 수 없었던 이유들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고 평한 것처럼 골프를 즐기는 이들에게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신라 화랑의 본래 모습 찾아



'화랑'

이종욱 지음

휴머니스트 / 1만2천원

이종욱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신작 '화랑'을 통해 잘못 알려진 화랑의 제 모습을 찾아주고 싶었다고 했다. 20세기 한국 사학계가 애국심 고취를 위해 화랑도를 순국 무사로 왜곡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오랫동안 '화랑'을 연구하며 <화랑세기> <화랑세기로 본 신라인 이야기> 등을 펴낸 '화랑 전문가'. 이번 책에서 이 교수는 <화랑세기>에 나타난 화랑도의 설치와 기원, 조직과 운용, 역사적 의의를 짚는 것과 아울러 화랑도와 사랑, 화랑도의 주색 편을 통해 화랑의 인간적인 면모까지를 소개했다. 화랑도를 통해 본 신라는 지배 세력들이 근친혼을 통해 사회 정치적 지위를 지켜나간 사회였다.

이 교수는 "그러나 근친혼은 재산과 정치권력의 분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세계 각국의 고대 사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관습"이라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현재의 윤리 기준으로 신라의 윤리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보고 싶지 않다고 눈을 감는 바람에 역사를 역사로서 바로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화랑에 집착하는 이유는 화랑의 역사를 바로잡는 것을 시작으로 20세기 신화로서의 역사학을 극복하고 역사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고 싶기 때문이다.

화랑도의 흥행적 요소도 이 교수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화랑세기>에는 생생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엄격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열정적인 남녀 관계를 보여주어 영화 연극 게임 등 문화 콘텐츠 소재로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현재 이 교수는 '화랑'을 소재로한 게임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주일 기자

자기 마음 찾아 떠나는 여정



'나를 찾아가는…'

이동연 지음

예문 / 8천5백원

인천 한누리교회 이동연 목사(44)가 <나를 찾아가는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을 내놓았다. 이 목사는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불교에 심취해 있다가 기독교를 접하고 목회자가 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선교하면서 서양의 기계론적 철학에 바탕을 둔 기독교의 한계에 부딪혀 다시 동양적 사상에 몰입하게 됐다.

이 목사는 이 책에서 동 · 서양의 수많은 속담과 일화를 적절하게 배치해 종교를 아우르는 보편적 사상을 풀어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깊이 파고든 불면증, 우울증, 각종 노이로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문제들을 세심하게 짚기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목사는 책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즐거운 여정을 마음 알기, 마음 드러내기, 마음 다루기, 마음 털어내기의 순서로 차근차근 설명한다.

"자기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통한 경험에서 벗어나야 해요. 현재의 심리와 정서는 지금까지 학습한 경험의 축적이므로 이것을 벗겨내면 인간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책은 총 4장으로 이루어졌다. 자기에 대한 불신, 일시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지내는 나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법을 익히는 1장은 내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내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한다. 2장에서는 이제 상처받은 마음도, 기쁜 마음도 온전하게 당당히 드러내도록 인도한다. 3장을 통해서는 인생의 절벽이란 스스로 만든 것임을 알게될 것이다. 4장은 마음을 털어내기를 다루었다. 마음을 털어낸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도, 과거에 대한 추억도 아닌 오늘을 즐길 줄 아는 행복한 삶이라고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전문가 서평



'불가시문학론'

배규범 지음

집문당 / 1만5백원

불경 · 게송의 문학적 특징 탐구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던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의 고급문화는 대부분이 불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만큼 당대 사회를 형성하던 주된 이념과 사상, 예술, 문화 등도 불교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런 까닭으로 사찰과 승려는 그 시대를 좌우하던 고급문화의 진원지였고 문명의 발신지였다. 이에 비해 불교가 배척받던 조선시대나 종교적인 환경이 다변화되어 버린 현대 사회에서 고급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불교의 기능은 이전시대에 비해 현저하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불교문화가 처한 이같은 시대 상황에서도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 분야가 있었으니 그것은 선시(禪詩)이다. 이런 현상은 불교 발전을 위해서나 시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나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분명하다.

현대 우리 문단을 풍미하는 선시풍의 시와 명상시는 선시에 대한 현대 시인들의 관심을 반영한다. 많은 시인들은 선시가 갖고 있는 창의적인 발상과 표현에 매료되어, 시적인 자양을 얻기 위해 선시를 탐독하고 또 선시풍의 시들을 즐겨 창작한다. 이는 선시가 대단히 매력적인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논리 속에 아직도 굳건하게 존재하는 선시는 그 실상이 모호하여 시인들과 학자들의 근본적인 접근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선시 연구와 이를 위한 이론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불가 시문학론>의 저자는 이런 상황에 부응하여 불가 문학을 더욱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였고, 이 책은 그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 논의는 그간 우리 학계가 축적한 불가 시문학 연구성과의 토대 위에 새롭게 쌓아올린 저자의 개성적인 불가 문학론이다. 불가 문학론에 대한 이론적 탐색은 김운학, 두송백, 이종찬, 권기호 선생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이후에는 후속 연구서들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이 책은 매우 기다리던 저작물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체제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범주와 정의', '문학과 대상에 대한 인식', '불가 문예미학과 직관주의 시학', '비평론의 수립과 적용의 실제' 등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2~4장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불가 시문학론을 이론적으로 전개한 부분이고 5장은 자신이 전개한 이론을 우리나라 승려들의 작품에 대입하여 분석한 부분이다.

이 책에서 주로 논의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저자는 연구 대상을 승려와 그들의 작품에만 한정하고, 불가 문학론을 논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불경의 문학적 특성과 게송문학의 발달과정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논자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되던 선시, 불교시, 불교 문학, 불가 문학 등의 용어를 비판하고 불가의 언어관, 자연에 대한 인식을 비평적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불가 문학론에 대해 논의할 때면 항상 거론되는 중국의 대표적인 시론가들의 시론을 불교 교리와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예를 들면, 남송 엄우(嚴羽)의 창랑시화(滄浪詩話)에 나타난 이선유시론(以禪喩詩論)과 청나라 왕사정(王士禎)의 신운설(神韻說) 등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런 이론들이 시창작 방법론으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점검하였다.

승려들의 詩 '미오 · 오 · 묘오'로 나눠 분석

아울러 저자는 깨침의 경지를 나타내는 엄우(嚴羽)의 묘오론(妙悟論)을 수용하여 그 하위 개념인 '미오(未悟)', '오(悟)', '묘오(妙悟)'의 논리를 시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삼아 승려들의 시를 '미오의 경지의 시', '오의 경지의 시', '묘오의 경지의 시'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을 도출해냈다. 이 가운데 특히 '미오의 시'에 대한 개념은 불가 문학 연구자들에게 항상 소외되어 왔던 승려들의 일반시, 즉 인정시(人情詩)를 불가 시의 범주로 확실하게 끌어올린 성과를 갖는다.

이 책은 불가 문학과 불가 문학론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문학사 서술에서 승려들의 시문학을 바르게 수렴할 수 있는 개념적 바탕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승려가 아닌 재가 거사들, 중국의 왕유나 백거이, 우리나라의 이규보와 같은 거사 시인들의 불교시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해 버린 아쉬움이 있다. 이런 한계는 있지만, 이 책은 그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선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불가 문학 이론서로서의 그 가치는 매우 크다. 불가 시문학론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일독을 권한다. ■강석근 / 동국대 강사

<불가시문학론>은 불가문학과 승려들의 시문학을 이해하는 개념적 바탕을 마련해 줌으로써, 선시를 읽는 안목을 열어준다.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구직을 원하시는 분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연분을 찾고 계신분
❖투병중인 분
❖고시준비 하시는 분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 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 됩니다
철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건강을
금강염주를 방이나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강한 기와 93%의 생육광선, 음이온등이 발산되어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무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며 도심의 좋지 않은 공기 환경속에서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건강을 도와드립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해소, 혈액순환 등에 효과 있는 세계유일의 금강염주입니다.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氣가 발산하는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일념무아 하면 부처님 가피로 고시준비나 어려운 일이 있으신분은 뜻을 이룰수 있는 신비의 금강염주입니다.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점안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12단주와 108염주 1set 가격 195,000원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핫~이슈! 세계최초 24시간 대화하는 영어선생
영어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

한번 말하는 영어가 백번 듣는 영어보다 낫다!
스님, 불자님 영어회화 이제 걱정 끝!
스님, 불자님께서 영어를 배우고자 해도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여건등으로 영어를 배우기란 참으로 어렵다. 또한 학원에서는 직접 말해볼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외국인들은 우리 불교문화를 보고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으며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사찰내 스님은 물론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필수어다. 위더스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로봇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음성 인식 기술을 응용한 말하는 영어로봇의 인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영어는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빠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사찰에서 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는 거의 듣기위주 혹은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위주의 CD, 테이프 등 모든 것을 동원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가장 중요한 "말하기"를 하지 못하면서 반쪽 공부에 만족해야 했는데 영어로봇 뉴지니컴의 보급으로 1:1쌍방향 대화 학습이 가능해졌다. 영어 학습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청취력" 훈련이다. 청취력을 위해서 라도 가장 중요한 영어학습 법으로 로봇 뉴지니컴이 영어로 한마디 하면 스님께서 영어로 대답해야 하고 스님께서
로봇이 사찰에서 스님과 대화하는
뉴 지니컴
발음이 틀리고 화법이 틀리면 뉴지니컴은 말을 안 하든가 수정해준다. 영어에 기초가 전혀 없어도 뉴지니컴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칩만 바꾸면 누구라도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귀부터 트이지 않고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들어도 자기만의 데이터로 전환시키지 못한다. 영어로 대화하는 로봇 이름이 뉴지니컴으로 뉴지니컴은 스님께서 1:1로 재미있게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미국 친구와 같다. 영어로 말하는 뉴지니컴은 전면에 LCD창을 통해 에니메이션 동영상 영어 한글자막을 자세히 보여줘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도우며 언어 감각과 함께 문자 감각까지 동시에 키울 수 있다. 사찰에 하나만 있으면 모든 스님께서 재미있게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다. 이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의 출시로 누구나 3개월이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것이다.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분할도 할 수 있다.
몸체 전면에 설치된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 / 한글 자막을 자세히 보여주어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돕는다.
LCD형 영어로봇 '지니컴'
학습 문의 전화 (02)3210~3178,9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드



4무량심

초기불교시대에 사회적 유대감을 함양하기 위해 강조한 가르침이 4무량심이다. 물론 사회 연대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강조하는 가르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불교의 기본 핵심 교리에 해당하는 연기론에 입각해 있다. 일체의 모든 존재를 상대적인 입장에서 파악하고 수용하려는 가르침이 연기론이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선언이 가능했다. '그대 있음에 내가 있어, 나를 불러 손잡게 해'라는 노랫말이 의미를 지니는 것 역시 연기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초기불교시대에 연기론에 입각해 무한한 관계 속에 우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했지만, 그것이 실생활 속에서 묻어나는 종교 행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친절하고 세밀한 주의를 필요로 했다. 여기서 4무량심이 등장한다. 네 가지의 한량없는 마음을 이웃과 나누어 가질 때 아름다운 삶, 향기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4무량심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자비희사(慈悲喜捨)를 말하는 것이다.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이다. 자무량심의 자(慈)는 일반적으로 사랑이라 풀이하는 것이 상례다. 아가페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데 원어인 마이트리(maitri)는 우정이란 의미에 더욱 가까운 단어이다. 친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거나 친구를 향한 본능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인도적 개념에서 우정이란 남들에게 이익을 주는데 있으며, 그들의 유쾌한 면을 알아보는 능력에 근거함과 동시에 '나쁜 의지와 악을 진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고사는 우정을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 그들이 우세하든 열등하든 중간이든 그들이 친구이든 적이든 무관심한 관계이든 그들이 다른 존재라는 구별을 하지 않고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비(悲)무량심은 다른 사람이나 생명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동물적 차원에서 다른 사람이나 생명은 타도나 정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연민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일 동물적 상태에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포기 아니면 침울이라는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연민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고통 없는 곳으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것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무력함을 주목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자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연민은 남을 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뿌리 뽑아 버리는 미덕이다. 해서 남의 고통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더 이상 그 고통이 증가하지 않길 바라며, 마침내는 그 고통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동정이어서는 안 된다.

희(喜)무량심은 다른 사람이나 생명과의 교감 속에서 느끼는 기쁨을 의미한다. 교감적인 기쁨이란 다른 사람의 번영을 바라보고 박수치며 즐거워하고, 그들의 행복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다. 인간들은 타인의 행복에 대해 시기 질투하는 감정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 인정하기 쉽지는 않지만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들의 발전과 행복을 반대하고자 하는 심리적 병폐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크게 보면 정신적인 행복과 물질적인 행복이 가능하다고 본다. 세속적인 의미에서 행복의 척도는 물질적인 풍요나 소유의 다소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측면에선 명상이나 특정한 이념, 가치의 추구로 표현된다. 그러나 명상이나 특정한 가치의 추구 등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捨)무량심은 공평함을 의미한다. 이 말은 산스크리트의 우파크샤(upaksha)를 번역한 말인데 '멀리 바라본다'는 뜻을 함유하고 있다. 공평함은 두 가지의 지적인 성과물로 본다. 첫째는 모든 존재들이 본질적으로 평등함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같은 전형구의 형태로 요약될 수 있다. '존재들을 행복하게 하소서!', '존재들은 얼마나 불행한가!', '이들 존재들과 함께 기쁨을!', '존재들을 차별하지 말고, 다만 공평함의 대상으로 생각하라.' 두 번째는 사람들의 업이 각 개인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결국 그들 자신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 그것은 결국 자신이 초래한 것일 뿐이다. 자신 만이 자신의 운명을 변경시킬 수 있다. 모든 업의 작용에 대한 통찰은 '무엇이든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의 일을 영위해야만 하며, 아무도 그에게서 이러한 책임을 피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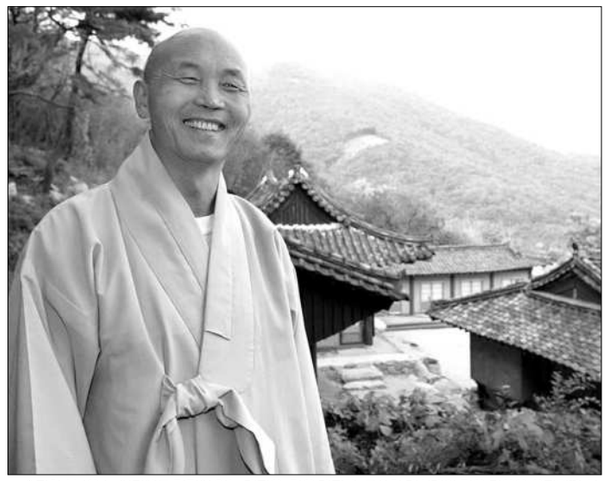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이웃을 위한 한량없는 4가지 마음
초기불교의 사회유대 위한 가르침

지상 백고좌

지 환 스님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스님은 늘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대자유, 맑은 대지혜, 고요한 대삼매와 같은 마음을 유지할때 참 행복이 찾아온다고 법문한다.

삼독심 몽땅 부처님께 바치고
참마음·참행복의 삶 사세요

여러분은 왜 불교를 믿으십니까? 내가 법문 할 때 사부대중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일체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며, 완전한 행복,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 불교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가진 자의 기본 욕구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시 '행복해진다는 것'에서 "인생의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 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 하라는 한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 라고 읊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인간의 유일한 의무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내용도 모든 고통을 해결하고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와 목표가 바로 참다운 행복에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우리가 사는 목적이 행복이라면 그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 하겠지요. 행복에는 절대적인 참 행복과 상대적인 거짓행복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참다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참다운 행복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참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참다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저녁 30분씩이라도
일념으로 기도·참선하면서
부정적 생각 비우고 사세요

'보리자성(菩提自性)이 본자청정(本自淸淨)하니 단용차심(但用此心)하면 직료성불(直了成佛)하리라.' 깨달음의 자성, 즉 참마음 자리는 본래 텅 비어 항상 청정하니 이 마음(참마음)으로 살면 곧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다운 행복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대 자유, 대 지혜, 참사랑 그리고 언제나 고요한 대 삼매와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참마음의 본래적 내용인 참행복의 상태는 탐욕, 집착, 증오, 성냄, 분노, 불만, 두려움, 걱정 등에 의해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작용이 잠시동안 참마음과 싸이클이 맞는 경우 방해를 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음이 순수하고 맑아질 때' '간절한 발원이 이루어질 때' '어떤 싫어한 대상, 두려움 등이 사라질 때'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행복감은 단지 일시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감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지요.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뭔가를 원하는 다른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자기 마음과 안 맞을 때는 짜증, 원망, 미움 등이 행복을 방해해 결코 참다운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거짓행복에 속으며 행복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아 참다운 행복의 삶을 누리지 못한 채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거짓행복에 속는 삶의 방식을 소유양식의 삶이라고 말하면서 이 방식으로 인간은 결코 참다운 행복에 이를 수 없다고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To have or To Be)>에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부적인 조건충족만으로 참 행복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서야 합니다. 외부적인 조건충족에서 찾는 거짓행복에 속아 끝없이 갈망하며 만족을 모르고 거짓행복을 추구하는 소유양식의 삶으로는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다운 행복이 참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행복이 나의 삶 속에서 꽃필 수 있게 하려면 삶 속에서 행복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참 행복이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참 마음속에 있는 참 행복의 '인(因)'이 내 노력의 '연(緣)'을 만나 행복한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이영숙 원장입니다
이 가을에 시집을 출판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제목 "바람이 멈추어 선 자리"(저자 : 이자임)
자서 : 그대 그리울때
가을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물들고
인생을 갈망하며
그리움으로 울고 있을때
고달픔을 업고 가는
어머니 품속으로 포근한 바다가 있었다.
가슴에 남아있는 그리움
이별의 끝에서 고통으로 서 있던 시간들은
이제 자유로와 질때다 ... 생략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부족한 글 외로움과 아픔을 함께 나눌수 있는 시(詩)가 되었으면 합니다.
▶판매처 : 교보문고, 영풍문고, 여시아문(조계사옆), 태평서적, 두레문고 외 대형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가을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당 뇨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당치 발란스
(糖治) BALANCE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혈당강하 식품입니다.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1개월분 180,000원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 선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 당치발란스의 임상실험 -
당부하검사와 같은 개념으로 200그램의 탄수화물 식이 부하 후 2시간까지의 최고 혈당치가 160mg/dl 이상인 건강인 21명 중 90%인 19명에서 혈당강하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평균 혈당 감소치는 29mg/dl이었다. 최고 혈당치 120 mg/dl 이하인 실험대상에서는 혈당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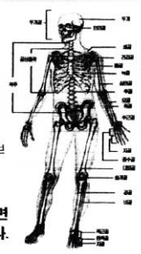
(주)아미노젠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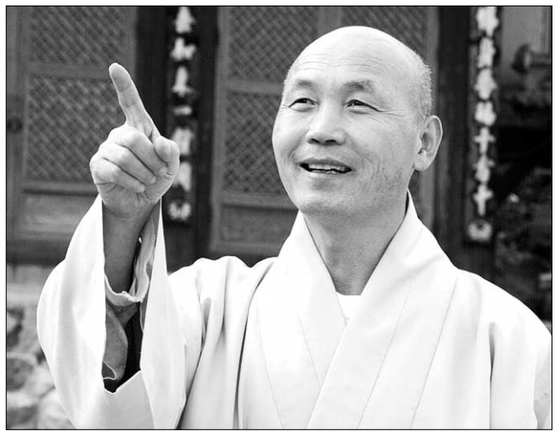


1.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 면100%[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 면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관 절 염
자 생 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삐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 仁 製 藥(株)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는 참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지환스님.

행복한 삶 살려면…

▣ 반야의 믿음으로 참인간관 확립
▣ 모든 현상은 몽환…집착 놓아야
▣ 평화와 고요 깃들도록 노력을
▣ 자비 실천하면 저절로 행복한 삶

삶이란 '과(果)'가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마음 닦음' 또는 '수행'이라고 말하는데 이 마음 닦음과 수행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한만큼 참 행복은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참 행복이 꽃필 수 있도록 어떠한 마음 닦음이 필요한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를 근본골격이 되는 몇 가지를 말해볼까 합니다.

첫째, 반야의 믿음으로 참다운 인간관(생명관)을 확립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간의 참모습(나의 참생명)은 육체도 감각도 정신도 아닙니다. 인간의 참모습(나의 참생명)은 마하반야바라밀 · 불성 · 참마음 등(等)으로 불리우는 완전자 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움직임이 끊어진 데서 확연히 드러날 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부처님께서 깨달아 보여주신 이 내용을 확신하고 오직 긍정할 뿐입니다. 이것을 반야의 믿음(般若信), 바른 믿음(正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바른 믿음으로 참다운 인간관(생명관)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반야의 믿음으로 모든 현상이 꿈같은 것이며 환(幻)인 줄 알고 이것에 대한 집착을 놓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반야의 안목으로 보면 모든 현상은 현상 아닌 것의 그림자일 뿐이지요. 모든 현상은 꿈같은 것이며, 환(幻)이며 그림자 같은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환상 아닌 실재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꿈같고, 환상이고 그림자 같은 이 현상을 실재라 여기고 이것을 집착하여 붙잡으려고 애쓰며 허덕입니다. 이 속에서 행복을 잠깐 잠깐 맛보지만 그것은 그림자 행복이기 때문에 곧 사라지며 환상에 속는 괴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상은 몽환(夢幻)이요, 그림자 같은 것임을 철저히 믿고 이것에 대한 집착을 놓아 버려야 합니다. 잘 놓아지지 않겠지만 놓는 실습을 거듭거듭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애착, 집착, 미움, 원망 등) 을 비워버려야 합니다.

'몽환공화(夢幻空華) 하노파착(何勞把着), 득실시비 (得失是非) 일시방각(一時放却)'이라고 <신심명>에 나와있습니다. 번뇌의 뿌리인 '무명'이 '공'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번뇌가 공한 줄 알면 그 순간은 참 행복을 방해한 번뇌가 사라져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으므로 몽환공화 같은 애착과 집착, 미움, 원망, 시기 등을 일시에 다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놓아버리는 것이 어려우면 부처님께 몽땅 갖다 바쳐 버리세요. 부처님께 물질적인 돈이나 정성도 바쳐야 하지만 중생의 시름덩어리인 이런 보따리를 갖다 바쳐도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들을 위해 존재하시니까요. 그러니 걱정말고 몽땅 갖다 바쳐버리세요. 놓아버리고 바쳐버리면 그만큼 행복합니다.

셋째, 참마음(참 생명)의 본래 상태인 평화와 고요(삼매)가 우리의 삶 속에 깃들도록 힘써야 합니다. 참 행복은 번뇌의 뿌리인 에고가 없는 상태이므로 잠깐 잠깐이라도 시간 날 때마다 일념으로 기도 또는 참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일념으로 정진할 때 바로 행복한 순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 저녁 30분씩이라도 집중해서 일념이 되도록 참선 또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천방법으로 '절을 열심히 무아지경으로 한다' '수식관, 기타 관법을 일심으로 한다' '독경 또는 사경을 일념으로 한다' '염불 또는 진언(다라니)을 지극하게 한다' '화두를 참구하거나 마음챙김(위파사나)을 간절히 한다' '일을 할 때 일과 하나가 되어서 행위자 없는 행위만 있게 한다' 등을 근기에 맞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인데 참마음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비행을 통해 공덕을 발현하며 행복하게 사는 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실, 자비행에는 한없는 공덕이 따릅니다. 자비행에는 부처님의 한없는 위신력이 함께 있는 것이지요. 순수하게 자비행을 행하는데서 부처님의 걸림없는 위신력은 나타나고 공덕을 성취하며 행복한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반야의 믿음을 가지고 거듭거듭 자기를 비우고 바치며 자비심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도 자주자주 행하다 보면 점점 순수자비 · 참마음의 융통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게 되지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위와 같은 바른 믿음과 실천으로 행복의 삶을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삶을 가꾸는 비결은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순간순간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글=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기자가 본 지환 스님

은사 광덕스님과 불광회운동 주도
기본선원을 수좌사관학교 육성 서원

1967년 해인사 출가, 1969년 광덕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후 금정산 범어사선원을 비롯해 해인총림선원, 고불총림운문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참선정진을 했다.

한때 월간 불광 초대주간 겸 불광법회 기획위원을 맡아 은사 광덕스님을 도와 한국불교 현대포교에 새 지평을 연 불광운동에 헌신하기도 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지리산 금당선원장을, 2002년부터 현재까지는 조계종 기본선원장 겸 동화사 선원장을 맡고 있다.

스님은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이 시대의 선지식, 본분납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본선원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도록 기본선원 운영위원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기본선원의 교육 및 수행체계를 강화해, 기본선원이 명실공히 수좌사관학교 같은 훌륭한 기본교육수행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성전스님의
스님이야기
천호스님 (1)

산은 어느덧 가을이다. 산에 기대어 사는 모든 것들은 산과 함께 여위어 간다. 그 모습이 쓸쓸하다. 그러나 안타까운 흔적은 없다. 상실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 상실이 가을 산에서는 아픔이 되지 않는다. 시간의 순리에 대해서 존재의 운명에 대해서 산과 더불어 숲과 나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쓸쓸하지만 담담한 산과 나무의 생애는 그래서 아름답다. 어찌 보면 여름 한 철을 살아도 수승한 수좌의 삶의 빛과 향기를 산과 나무는 그렇게 지니고 있는 것만 같다.

상실이 아픔이 되지 않는 산 아래서 절망과는 다른 버림의 미학을 배운다. 얼마나 깊어야 상실이 절망이 되지 않고 얼마나 맑아야 담연한 그 자리에서 흐려지지 않고 존재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녕 알고만 싶다. 그러나 산은 말이 없다. 어쩌면 산의 그 모습은 말이 끊어진 자리에 존재하는 존재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꿈꾼다. 상실과 아픔이 없는 아름다운 존재의 시간을. 그러나 그 시간들은 욕망의 터전에서는 만날 수가 없다. 욕망을 떠날 수 있을 때 그 시간들은 마치 본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만나게 된다. 마음에는 생사가 없다는 말처럼 상실도 아픔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산과 같은 삶의 결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을 산은 언제나 그리움이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과 피안을 향한 접지 못할 꿈과 그리운 사람에 대한 추억 모두를 가을 산은 그 답답한 바람의 목소리로 하나씩 하나씩 호명하는 것이다.



그림 · 문병성

가을 산이 추억을 향해 호명하는 소리를 들으면 가을 산의 삶의 결을 지닌 얼굴 하나가 떠오른다. 한 때 시간을 같이 하며 가난하지만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가던 스님.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어도 그저 정태춘 박은옥의 노래를 들으며 어두워진 황톳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 천호 스님의 얼굴이 가을 산 아래서는 선명히 떠오른다.

스님과 내가 처음 만난 것도 낙엽이 지는 가을이었다. 깊고도 깊은 오대산 상원사. 그때 그는 10대였다. 참으로 맑았다. 그가 처음 내게 보였던 미소의 투명함을 나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어떻게 왔느냐"는 내 질문에 "걸어서 왔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효봉 스님 흉내 내고 있잖아"하며. 하지만 나의 웃음에는 어떤 적의나 얕잡아봄이 들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기에 그는 너무 맑고 진실해 보였다. 나는 그의 미소 앞에서 오랜 벗의 친근함 같은 것을 느꼈다. 신발도 다 떨어지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그에게는 야윈 자의 피로보다는 맑은 진실이 따뜻하게 배어 나왔다.

상원사에 오기까지 그의 행로는 걸어서 왔다는 그의 말을 하나도 위배하지 않는 것이었다. 원주에서부터 걷기 시작해서 장평 지나 봉평 지나 진부 땅 상원사에 오기까지 그는 몇 날 며칠을 꼬박 걸었다고 했다. 왜 걸어서 왔느냐는 내 질문에 그냥 걸어서 와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걸어서 왔다고 했다. 어쩌면 그는 가장 먼 길을 직접 걸어서 온 출가자 중 한사람인지도 모른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그는 왜 걸어서 와야 했을까. 오랜 시간을 걸어서 와야 할 만큼 그에게는 지우고 싶은 추억이 많았던 것일까. 그러기에는

솔직 담백한 성격 언제나 편안
"어떻게 왔느냐" 질문에 "걸어서 왔다"

그의 세속 생애가 너무나 짧다. 아니면 차를 타고 절 입구까지 온다는 것이 출가의 이미지 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겁고 진지한 표정의 흔적은 읽을 수 없었다. 맑고 투명한 그의 표정은 내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내보여 주지는 않았다. 걸어서 오는 그 시간 시간이 좋았다는, 그가 남기는 바람 같은 한마디가 내 궁금증을 향한 대답의 전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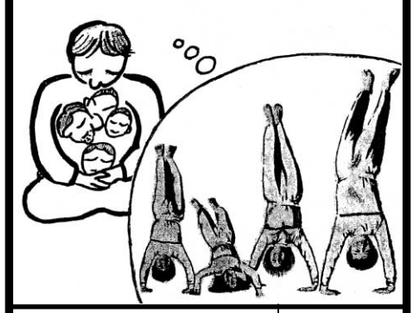
그 날 밤 그는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구태여 그의 지나간 생애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그리고 왜 출가하려고 하느냐고도 묻지 않았다. 먼 길을 걸어서 산문에 이른 사람이라면 출가의 진실 정도는 지니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다만 우리는 문을 열고 먼 산을 울리며 우리 문 앞에 당도한 바람 소리만을 함께 들었다. 바람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그와의 만남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언젠가 어느 스님이 내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데 큰 즐거움이라던 말이. 천호 스님과의 만남이 내게는 꼭 그런 것이었다.

■월간 <해인> 편집위원

춘천옥매트 홍삼메딕스

우리가족 건강 · · ·



기氣 호름이 생명력을 좌우한다!
기는 건강의 많은 문제를 풀어냅니다.

구증구포 전통홍삼 제조비법 과학화!
경북과학대학 바이오건강연구소 개발 특허!

옥정수와 춘천옥을 넣어 증숙한 기가 강한 홍삼원액을 마시고 춘천 옥매트 위에서 주무세요. 온갖 건강을 도모합니다.

판 매 품
◆옥매트(진품)
◆홍삼원액
◆홍삼제조기

02)777-0105 헬스테크상사

국제 수준의 타로(TAROT) 카드 교육 실시

1. 타로카드 교육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타로(TAROT)카드를 국제 수준에 맞게 배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양에 주역이 있는 것 처럼 서양에는 타로카드가 있어 왔습니다.
타로카드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제들을 점치는데 쓰입니다.
1. 연애와 결혼 2. 인간관계 3. 금전문제 4. 사업문제 5. 일 자리 찾기
이밖에도 인생의 온갖 과정에서 선택, 결단, 결정을 내리는 데도 쓰이며 연구 개발, 사업기획, 정책입안, 문제해결의 길을 찾는데도 쓰입니다. 그리고 그저 카드를 보면서 상상을 하기만 해도 정신수련, 마음수련, 정신위생, 우뇌훈련, 상상력훈련에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우리 국제타로학원에서는 지난 1년여에 걸친 준비를 완료하고 국제수준에 맞는 타로카드의 단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제로 쓰이는 타로카드도 오리지날 마르세이유 타로카드를 현대에 복원한 카모왕판 마르세이유 타로카드를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카모왕판 마르세이유 타로카드 1세트 35,000원
● 교육일시
- 1차 제1단계 : 03년 11월 22일(토) ~ 23일(일) 선착순 24명
제1단계 : 03년 11월 29일(토) ~ 30일(일)
제1단계 : 03년 12월 6일(토) ~ 7일(일)
제2단계 : 03년 12월 27일(토) ~ 28일(일)
제3단계 : 04년 1월 24일(토) ~ 25일(일)
- 2차 제1단계 : 04년 1월 3일(토) ~ 4일(일)
제2단계 : 04년 1월 31일(토) ~ 2월 1일(일)
제3단계 : 04년 2월 21일(토) ~ 22일(일)
● 참가비 : 각단계 12만원 균일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2. 레이키(Reiki)교육
레이키에서는 10시간이면 누구나 氣에너지 요법가가 될 수 있습니다. 레이키에는 어튠먼트라는 특유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氣요법가격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것입니다. 어튠먼트는 우리의 온몸을 단전으로 만들어 드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 교육기간 2-3일 전수비 50만원
● 카루나 레이키 : 교육기간 1일 전수비 30만원
국제타로학원(한글도메인)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박희준)
인터넷 www.Reiki.co.kr
◇ 전화 : 02)720-5682. 720-5719 핸드폰 019-392-2557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809호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조상신과 중엄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기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엄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기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빙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가장 쉽고 단순하며 단 한번으로 누구나 순간 알아차리고 실천되어지는 수행비젼의 비법이 이 세상에 펼쳐집니다

참선의 기본교육

참선을 氣차게 잘하려면!
◆ 첫째 : 제일먼저 가슴챠크라(중단전) 명치를 풀고 단전 혈을 뚫어 명치, 배꼽주변에 단단하게 맺힌곳을 풀어주어 들숨시 신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도인법이고
◆ 둘째 : 단전호흡이 저절로 되어지는 자세법 10가지를 마스터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수승화강, 두한족열이 확인되고 절대로 상기되지 않은 자세법이고
◆ 셋째 : 가신의 본래 호흡을 찾아 부처님 호흡법대로 장출식 단전호흡이 되어지는 신비로운 자동단전호흡법이고
◆ 넷째 : 행주좌와 일여를 제일 빨리 일체의 무리없이 극복하려면 수식관, 위빠싸나, 화두선보다 염불禪이고
◆ 다섯째 : 어묵동정,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를 극복하려면 화두禪이 최상승의 길입니다.
※ 수련일시 : 매주 목요일 낮반 오후 1시 ~ 3시
직장인반 7시 30분 ~ 9시 30분
※ 수련비용 : 입회비 1만원 월회비 3만원
법왕정사 서울군자법당
전화 02)456-4994 · 0035(팩스)
5, 7호선 군자전철역 4번출구 앞 50M 이망스 가구 4층

지친 심신 차로 다스리세요

‘티 테라피(Tea Therapy)’



◇지난 11월 5일,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 내 다실인 ‘다정(茶情)’에서 진행된 ‘티 테라피(Tea Therapy) 지도자 과정’에서 수강생 10여 명이 이은주 연구원에게 다구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아름다운 풍광이나 그림을 봄으로써 눈을 즐겁게 하거나, 향기를 맡음으로써 마음을 이완시키는 ‘아로마 테라피(향기요법)’ 등은 오관(五官)을 다스림으로써 마음을 다스리는 심리치료법이다. 차를 마시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아로마 테라피’가 후각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라면, 다도는 차의 색과 맛, 향을 모두 즐김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원장 한영실)이 개설한 ‘티 테라피(Tea Therapy) 지도자 과정’은 이처럼 차와 명상 그리고 차를 이용한 음식을 통해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티 테라피’라는 용어는 강좌를 진행하는 이은주(39) 연구원이 처음 만든 용어로, 차를 마시는 행위에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인 ‘웰빙(well-being)’의 개념을 접목한 것이다.

1994년 회사 내 동호회인 ‘선경다회’에서 처음 차를 접하게 된 이 씨는, 숙명여대 대학원 식품영양학과에서 차에 관한 논문을 쓰는 등 차 공부를 계속하면서 ‘차 마시며 심신을 치유하는 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이 강좌를 개설하게 됐다.

“티 테라피는 차를 매개로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흔히 차 강의는 예절과 접목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차를 즐김으로써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데 좀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차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 강의에서는 차의 성분과 효능부터 다구 고르는 법, 다구 사용법, 차의 종류, 찻자리 예절 등 기본적인 과정에 이어 자신에게 맞는 차 고르기, 찻자리 꾸미기, 차를 이용한 명상, 다식과 차를 이용한 요리 만들기 등 차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들을 배우고 실습하게 된다.

“자신이 찻자리의 주인이 되어 차를 충분히 음미하고,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쉬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심리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강좌는 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생활 속에서 차 마시기를 일상화하고, ‘다도의 즐거움’을 찾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숙대 티 테라피 과정 개설

차에 웰빙(well-being)개념 접목

“다도 즐거움 찾게 해주는 강좌”

11월 5일 첫 강의에 참석한 수강생 한혜진 씨는 “차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고 생활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강의를 신청했다”며 “아늑한 공간에서 조용히 차를 우리고 마시는 과정을 음미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게 된다”고 말한다.

한영실(46) 원장은 “요가나 명상 등 정신 수련을 겸한 운동을 통해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추구하려는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춰 개설한 티 테라피 강좌는, 자칫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말한다.

한 원장은 3개월 과정의 기본 과정이 끝나면 심화과정을 통해 차에 대해 좀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02)710-9767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티 테라피 지도자 과정>

날짜	이론 강의	실 습
11월5일	티 테라피란 무엇인가?	티 테라피 배우기 첫 걸음- 녹차
12일	차 만드는 과정과 차의 성분과 효능	티 테라피 I
19일	자신의 건강에 맞는 차 선택법	티 테라피 II
26일	차를 이용한 생활 속의 명상	티 테라피 III
12월3일	문화사 속에서 찾아 본 티 테라피	중국차를 이용한 티 테라피
10일	티 서비스의 에티켓	영국 홍차를 이용한 티 테라피
17일	갖고 싶은 다구, 보고 싶은 다구	일본차를 이용한 티 테라피
24일	티 테라피 공간의 데코레이션	계절을 느끼는 티 테라피
31일	차에 곁들이는 다과	음식을 이용한 티 테라피 I
1월7일	마시는 티 테라피에서 먹는 티 테라피로	음식을 이용한 티 테라피 II
14일	살아있는 자연 음식	음식을 이용한 티 테라피 III
21일	그룹 티 테라피를 위한 플랜	아름다운 선율 속의 그룹 티 테라피

제4회 국제청소년 차문화대전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은 지난 11월 2일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제4회 국제청소년 차문화대전’을 개최했다(사진). 우리 전통 차 문화정신의 함양과 다도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 열린 이번 대회의 ‘차생활 예절 경연대회’ 대학생부 대상에 김주경 씨, 최우수상에는 이명자 씨가 선정됐다. 고등학생부 대상에는 국악고 2년 권나라(지도 박혜진), 최우수상에 전지혜(지도 박혜진), 중등부 대상에 이강은(지도 이재은) 학생이 선정됐다.

영암도기문화센터 첫 국제전시회

전남 영암군 산하 영암도기문화센터(소장 이석희, www.gurim.org)가 7일부터 12월 6일까지 ‘흙의 여정-한·일 도기전’을 주제로 첫 국제전시회를 개최한다. 도기문화센터 제1전시실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국내 작가로는 이인지, 이학수, 박성원 씨가, 일본 작가로는 후지하라카츠, 스키모토사다미츠, 다테이마사키씨 등이 참여한다. (061)470-2556

여상명씨 ‘밝달가마전’ 개최

도예가 여상명 씨의 다구 작품전시회 ‘밝달가마전’이 서울 백상기념관에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여 씨가 해인사 내 밝달가마에서 구운 도예작품을 선보이는 것으로, 단아한 여유를 보이는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02)724-2236

성덕태자 추모 헌다례 열려

화정다례원(원장 신운학)은 11월 15일 일본 오사카 사천왕사에서 ‘성덕태자 추모 헌다례’를 개최한다. 성덕태자(?~622)는 6세기 후반 용명천황(用明天皇)의 아들로 태어나 일본 최초의 절 법흥사에서 고구려 혜자 스님과 백세 혜총 스님으로부터 불교를 배웠으며, 일본이 불교국가로 자리 잡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성덕태자를 비롯해 일본으로 건너 간 백제 유민들을 추모하는 헌다례와 신 원장의 고려말 차 시연, 칠성차회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02)720-4866

차맥 지킴이



유건집

(차 고전연구가)

책은 문화와 전통의 매개체다. 차 문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다부>와 <대관다론>, <동다송> 등 차를 기르고 제다하는 방법과 차인이 지녀야할 정신을 적어 놓은 다서들이 바로 차문화의 기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다서 연구는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다.

지난 11월 5일, 서울 법련사 등에서 다서를 강의하고 있는 수필가이자 차 고전 연구가인 유건집(67) 씨를 만나 다서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60년대 초, 혼자 양양 낙산사를 찾았던 유 씨는 우연히 한 스님을 만나게 됐다. 스님에게 밤새 차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 유 씨는 차에 대한 궁금증이 일기 시작해 서울로 돌아와 틈틈이 다서를 찾아 읽었다. 이후 전각가 안광석 씨와 한국차학회 천병식 회장 등 차에 관심 있는 몇몇 지인이 모여 한 달에 한 번 차를 마시는 모임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다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소개된 다서가 <동다송>과 <다신전>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해석이 정확하지 않아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문장이 많았죠. 할 수 없이 대만이나 일본에서 원서를 구해와 읽었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을 헤아리는 동안 그는 우리 차문화의 뿌리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40여 권에 이르는 다서를 독파했다.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대만, 일본원서 구해 40여권 독파
제대로된 다서 가르치고자 강의
남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차 정신

마찬가지로 우리 차에 대한 학문적·정신적 바탕이 튼튼하지 않다면, 일본이나 중국의 차 문화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차를 마시고 다서를 연구해 왔지만, 특별한 단체에 몸을 담지 않았던 그가 지난 3월부터 차인들을 대상으로 차 고전 강좌를 열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씨앗을 심는다는 조심스럽고도 지극한 마음이 없이는 안됩니다. 제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다서 강의를 하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를 배우는 학생들이 다서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시작한지 7개월 만에 수강생이 50여 명을 넘어섰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부>와 <대관다론> 강의에 이어 <동다송>, <다신전>, <다경> 등 현존하는 다서들을 3개월씩 강의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강의 내용을 정리해 <다부> 해설서도 펴낼 예정이다.

“다서를 읽다보면, 우리 조상들은 차 마시는 데 있어 운치와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심(茶心)을 간직하고 있을 때 비로소 다인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차의 정신’이란 무엇일까?

“차의 정신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차를 마시면서 나를 잊고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물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는 마음, 즉 평상심이 곧 차의 정신이 아닐까요.”

제 18기 불교 전문 호스피스 교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호스피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이 아닙니다.
호스피스? 生·老·病·死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제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개고, 열반적정을 향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修行의 길입니다.
호스피스? 상구보리 화하중생 대승보살도의 텃밭입니다.
호스피스? 순수한 사랑과 자비를 창조합니다.

교 육 안 내

◆ 일 정 : 2003년 12월 13일 ~ 2003년 12월 20일 7박 8일
◆ 장 소 :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정토마을
◆ 교육대상
- 재가 법사 및 포교사 불교 의료복지 포교에 뜻이 있으신 분
- 불교인으로서 삼귀오계를 수지하신 분으로 신심이 돈독하여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
◆ 인 원 : 선착순 남·여 25명
◆ 연 령 : 32세 ~ 65세
◆ 교육수강료 : 19만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411-21-0056-591 예금주: 여둘금
◆ 지 참 물 : 사진 3장(반명함판), 주민등록등본 1통, 필기도구, 츄리닝, 슬리퍼, 컵. 가사장삼(스님)
◆ 원서접수 : 전화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 원서마감 : 2003년 12월 10일
◆ 문 의 처 : 정토마을 사무국 TEL. 043) 298-2258(代) / FAX. 043) 298-1457
e-mail: jungtoh@jungtoh.com

※ 올한해의 끝에 실시하는 불교전문 호스피스 교육에 각계 스님 및 불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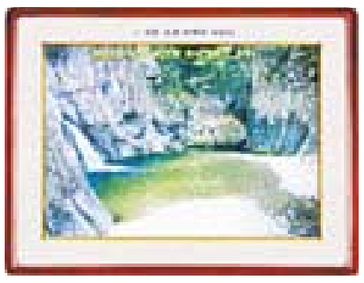
정토마을 호스피스는 불교 의료복지 포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니다.

불교 전문 호스피스 정 토 마 을

교송 정명주 스님의 佛氣 달마도

시방삼세에 늘 나투하고 계시는 부처님의 여여한 모습
- 세계 최초로 교송 정명주 스님께서 친견한 시무상주 시방불 사진입니다.

佛心天地海風
가정에도 사무실에도 사업장에도 喬松·鄭·銘·主 스님의 견여래 사진과 男·女 달마도를 걸어보세요.
온갖액운 근심걱정 사라지고 기쁨과 행운이 펑펑 솟는 답니다.
● 佛心 : 부처님 가르침이란
● 天 : 높거라 ● 地 : 깊거라 ● 海 : 넓거라 ● 風 : 바람이려니



장소 : 청송주왕산
시간 : 1998년도 AM 9시경
규격 : 가로 51㎝ x 세로 66㎝
가격 : 100,000 원



규격 : 가로 51㎝ x 세로 66㎝
가격 : 100,000 원



규격 : 가로 51㎝ x 세로 73㎝
가격 : 100,000 원

귀의 삼보하옵고
교송 스님께서 수많은 달마도를 접하신바 사나운 기운이 솟아남을 감지하시고 그원인을 찾던중 달마에게도 짝이 있음을 알아 탄생시킨 세계최초의 女子달마도와 관음 달마도는 주문후 3,4일의 시일이 걸릴수 있음을 참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경남창원 명주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 입금계좌 : 농 협 821146-52-038830 [예금주 : 정지완]
■ 연 락 처 : 055-275-1372 / 055-262-0928 ■ 휴대폰 : 019-574-0928 교송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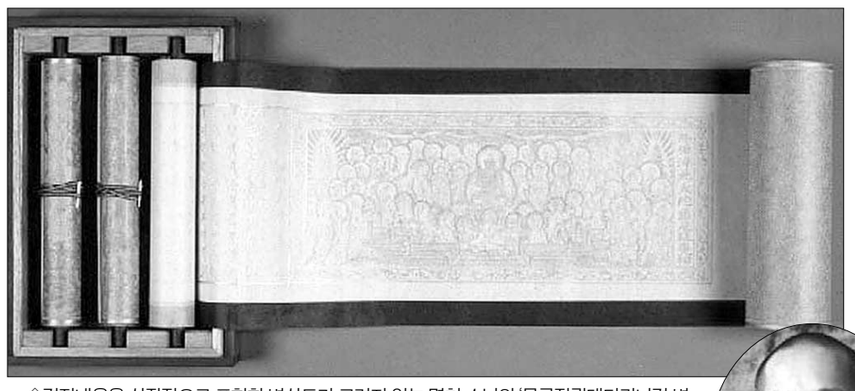
경남 창원시 중앙동 58-9번지
한국대선불교조계종 명 주 사 한글홈페이지 : 명주사

불교미술 정수 미국에 선뵌다

12월 2~30일 美아시아 문화박물관서

명천·재우·성범스님 개관행사에 초청

변상도·사천왕탱화·대장경판사본 전시



◇경전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변상도가 그려져 있는 명천 스님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변상도'.



◇명천스님

산골 암자에서 정진중인 스님들의 미술품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예술문화박물관 개관 행사에 초청됐다. 이에따라 한국 불교미술의 정수가 미국 전역에 소개될 예정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예술문화박물관 이전개관 기념으로 오는 12월 2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한국관 행사가 그것이다.

이번 박물관 이전은 미국 교포 이종문씨가 거액의 돈을 기부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작가들은 경남 함양군 안의면 향운암의 수좌인 명천스님과 경남 거창군 대평리 유리원의 비구니인 재우스님,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 공주포교당의 학승인 성범스님이다. 이 세 스님은 이번에 사천왕 탱화와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변상도, 팔만대장경판 사본 등을 선보인다.

명천스님은 이번 행사에서 가로 30㎝, 세로 3m60㎝ 안팎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변상도 3점(한글본, 한문본, 범어본)을 관람객들에게 내놓는다.

명천스님은 박물관의 요청을 받고 이 그림들을 지난해 초 이미 기증했다. 85년 출가후 불교미술에 심취한 명천스님의 변상도는 금가루와 사슴뿔 아교를 섞어 만든 물감으로 삽화를 세밀하게 그려넣은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해 1980년대 중반부터 탱화연구에 매진해 온 재우스님은 이를 위해 1년 전부터 '사천왕' 탱화를 그리고 있다.

이 탱화는 가로 2m40㎝, 세로 3m60㎝에 달하는 대작으로 천연안료인 석채로 그려져 독특한 색깔을 띠고 있다. 재우스님은 현지에서 한달간 탱화의 마지막 부분과 마무리 작업을 현지에서 한 뒤 점안식을 거쳐 한국불교미술의 홍보를 위해 박물관에 기증키로 했다.

성범스님은 팔만대장경판, 성덕대왕신종, 석굴암 보살상 문양, 전돌, 훈민정음, 직지심체요절, 와당물 등 10여점의 사본을 가져가 탁본 시연행사를 마련해 한국 불교문화와 금속활자 및 목판기술 등 한국불교예술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명천스님은 "이번 전시회는 현재 아시아문화박물관장으로 있는 백금자씨의 주선으로 지난해 내 작품을 기증한 것이 계기가 됐다"며 "현지 행사에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100여명도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5월 의상대사 11월 장욱진 화백

문광부, 2004년 '이달의 문화인물' 발표



◇의상대사

문화관광부는 지난 11월 1일 2004년도 '이달의 문화인물'을 확정, 발표했다.

12명의 문화인물 중 불교계에서는 의상 대사가 5월, 장욱진 화백은 11월의 인물로 각각 선정됐다. 의상 대사는 신라시대 당나라 지엄 선사를 스승으로 화엄종을 연구한 뒤 귀국, 해동 화엄종을 창시한 고승이다.

1948년 김환기, 유영국, 이규상 등과 함께 신사실파 동인으로 활동한 장욱진 화백은 작품세계를 통해 불교적 철학사상을 담아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달의 문화인물'은 각계에서 추천받은 37명의 역사인물 중 선정자문회의 검증절차를 거쳐,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평가받는 인물을 최종선정 한 것이다. 지난 1990년부터 매년 시행돼 왔으며, 올해까지 모두 175명의 문화인물이 선정됐다.

2004년 이달의 인물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1월 조희룡(시서화 3절 화가) △2월 신흠(조선중기 학자 · 정치가) △3월 이항로(조선말 사상가) △4월 이경석(조선중기 문신) △5월 의상대사(신라시대 고승, 화엄종 시조) △6월 백광홍(조선 8대 문장가) △7월 이첨(조선 초 시인) △8월 김창조(가야금 산조의 명인) △9월 조헌(조선중기 문신, 의병장) △10월 최항(한글창제 공헌) △11월 장욱진(화가, 신사실파 동인) △12월 박두진(청록파 시인)

한상희 기자



◇장욱진 화백

전시회 2題

중광스님 다시 만난다

22일까지 시몬갤러리서 유작展



◇중광스님의 '선화(禪畵)'.

지난해 3월 세상사를 훌훌 털고 부처님 곁으로 떠난 '걸레 중광 스님'. 그의 회고전이 11월 22일까지 신사동 시몬 갤러리에서 열린다. 197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는 선화와 도자기 테라코타, 콜라주, 유화 등이 어디에도 걸림없이 자유자재한 중광 스님의 예술정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20여년간 중광 스님 곁에서 수발을 들었던 김옥수씨의 협조로 모을 수 있었다. 작품마다 드러나 있는 간략한 선묘와 깊이있는 색채가 스님의 호방한 성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선화(禪畵)에는 어린이 같은 투박함 속에 기존의 틀을 부정하고 마음껏 뛰어오르려는 자유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드러나 있다. 또한 구상과 추상을 뛰어넘어 회화를 하나의 정신적 구도의 표현으로 승화시킨 중광 스님의 정신세계가 물씬 묻어난다. 갤러리 측은 "중광 스님의 초기작부터 근작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02)549-3032

김주일기자

귀일스님 기와 그림展

16일까지 부산 현대아트갤러리서

경북 안동 봉정사 지조암의 귀일 스님이 불교미술이자 전통문양인 기와 그림전을 11월 16일까지 부산 현대아트 갤러리(현대백화점 8층)에서 개최한다. 기와 그림은 삼국시대부터 사찰이나 궁궐의 처마를 보호하고 장식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귀면(잡귀를 쫓는 도깨비 얼굴)이나 사천왕 등 불교의 호법 신장들이 그려져 있다.

귀일 스님은 조선시대 이후로 사라졌던 기와 그림의 전통을 되살리고 불교미술이 생활속에서 장식돼 쓰여지기를 발원하며 5년 전부터 복원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남편용면', '보상화', '보살상', '연꽃차탁', '황금귀면' 등 1백여점을 선보인다.

귀일 스님은 "동종그림과 부도비 조각, 연꽃문양 등을 활용해 그린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현재 지조암에 귀와그림 전용전시관 건립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051)667-0880



◇귀일스님 作 '부인용면'.

김주일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TV <ch 32>

05:45 고승열전
08:55 우리들의 찬불가
11:10 행복스튜디오
12:00 정오 종합뉴스
14:05 김용우의 국악발견
20:05 다시 듣고 싶은 노래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12일 11:30 정경스님의 참선요가
13일 20:10 불교TV 메디컬 건강이 최고
14일 08:30 하재봉의 영화산책
15일 19:30 성운대사 불경강좌
16일 11:30 불교TV 스페셜 영평사 음악회
17일 09:20 외국인 스님의 영어법문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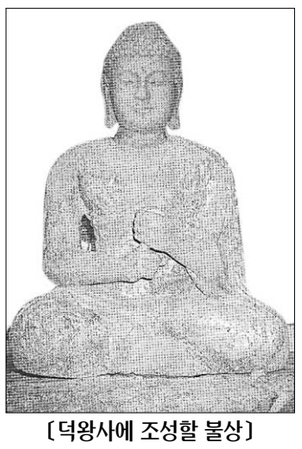
▷김용우의 국악발견(11월 16일, 14:05~14:45)=젊은 소리꾼 김용우씨가 진행하는 국악프로그램. 16일에는 소리와 재담이 어우러진 남상일의 '판소리 따라잡기'와 민요 이야기 등이 방송된다.

■불교텔레비전

▷불교TV메디컬 건강이 최고(11월 13일 20:10~21:00)=국보한의원 양희정 원장과 함께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잦은 두통부터 신경질환까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어린아이도 걸릴 수 있다는 만성피로 증후군의 치료법을 살펴본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조성불사 권선문

비로자나불 대작불사 발원



〔덕왕사에 조성할 불상〕

비로자나불 석조불상을 조성하면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권선안내문

귀의 삼보하옵고

소납 산승은 40여년 동안 수행하면서 대작불사와 포교활동에 전념하면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석조불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1000일 기도중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받아서 큰 환희심으로 대작불사에 큰서원을 세워서, 지극한 신심으로 비로자나불 석조불상 조성불사를 시작**하고저 합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다함께 동참하셔서 이번 대작불사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한마음 크게 내시어 큰 공덕 지으시고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인연공덕으로 하시는 일 마다 소원성취 하사옵시고 세세생생에 성불하옵시길 향피워 발원 드리옵니다.

이번 **덕왕사불사**에 동참하여 주시는 선남선녀 사회제위 여러분에게는 고마우신 마음을 **비각에 새겨** 영원히 빛나게 하겠습니다

- **설판불사 (100만원 이상)**
- **가족동참불사 (30만원)**
- **동참불사 (10만원)** 또한 **범종불사**도 함께하오니 두루 동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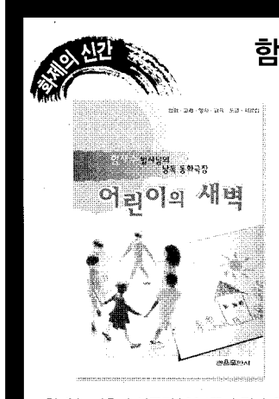
<동참금 계좌번호>
· 농 협 729-02-117074 · 국민은행 622-24-0064-982
· 우체국 700435-02-005878 ※ 예금주 : 유재하

경북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녹남 455-5번지
일출산 **덕 왕 사** 주지 **유용각(만덕)** 합장
전화 054)853-3855, 854-3855 휴대폰 011-522-1237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인과응보의 원리와 권선징악의 진수를 다룬 어른과 어린이를 위한 아동문학가 함재수 법사님의 주옥같은 법회교재 결정판!

함재수 법사님의 낭독 동화극장

어린이의 새벽



'어린이의 새벽'은 아동문학을 법회 교재용으로 접목시킨 고귀한 6바라밀 금자탑입니다.

'어린이의 새벽'은 우리나라 포교 역사에 획을 긋는 한 줄기 등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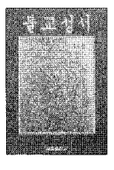
'어린이의 새벽'은 사바세계 어린이들의 마음을 곱고 밝고 맑게 일깨우는 함재수 법사님의 혼불입니다.

법회교재 한 권 없는 현실을 가슴아파하면서 이 한 권을 사바세계에 남기고 가련다. 그 나머지는 후세의 몫이다.
– 함재수 법사님의 책머리 전문–

함재수 법사님의 원력을 높이 평가하고 아울러 '어린이의 새벽'이 한국 불교계에 새 지평을 여는 시금석이 되기 바랍니다.
–전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林松山–

함재수 지음 / 신국판/ 384쪽 / 정가 9,000원

불교성서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
제1편 : 부처의 생애, 제2편 : 부처의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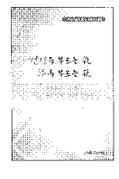


불교의 창시자이신 석가모니 부처(sakyamuni Buddh)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며, 불교교단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되었는가를 그의 생애와 기록을 통하여 생생히 이해할 수 있다.

·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은 곧 진리의 길잡
· 불교란 「삶의 바른 길」의 실천을 통해 불교의 이상인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초기공법

건강을 부르는 氣 부를 부르는 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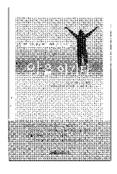


몸과 정신건강의 혁명 현대병 치료의 한계를 기공으로 간단하게

이영일 편저 · 사륙판 · 212쪽 · 양장본 · 값 12,000원

생명의 원천을 활성화시키는 21세기의 새로운 건강법

핵산! 암을 이기다



『앞으로 1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는 죽음의 선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암 환자의 기쁨의 소리! 이제 병원에서도 상용하기 시작한 핵산의 경이로운 효과를 알기 쉽게 해설한, 바로 그 책.

히로아키 감수, 미야니가 요시아키 지음 · 사륙판 · 190쪽 · 양장본 · 값 12,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36화 샤카족 왕족의 귀의



"내 말이 알아듣기 힘들겠지만 마음을 모아서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라. 우선 이 세상(世上)엔 처음부터 영원한 있음(有)도 없고 없음도 없도다. 처음부터 아무 것도 없었다면 있는 것이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텅 빈 상태(空, Sunya)라 하지만 그 수냐(空)속에는 무수한 인자(원소)들이 있어 그들이 서로 인연을 맺을 때 형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색(色, Rupa)이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색(루파)으로 불려지는 물상들은 예외 없이 운동하는 속성을 지녀 그 인자들의 인연(결합)이 흩어지면 물상도 흩어지며 다시 수냐(空)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나 민족이 나 한 인간의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것이다. 색(色)의 탄생으로 생명을 얻고 삶을 영위하다가 색이 인연을 다하면 다시 공(空)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만남도, 헤어짐도, 또는 허공을 맴도는 모든 형체까지도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의 모태이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깨어져 조각들로, 그리고 모래로 변하다가 흙이 되고 먼지가 되고 다시 먼지가 부서져 인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버님, 아니 붓다의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라면 결국 하늘의 신(神)들도 없다는 뜻이 아니옵니까? 모든 것이 다 수냐(空)로부터 잉태한 루파(色)라 하면 결국 우리들이 죽은 후에도 갈 곳은 수냐(Sunya) 뿐이니 죽은 후에 갈 곳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살아생전 공덕을 쌓으라 하십니까. 또 신들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며, 또 남도 없고 삶(生)도 없다면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옵니까?"

"네가 아직 어린 나이에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고력이 있었던가. 기특하고 기특하다. 너는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그 생각하는 경지가 깊고 높은 차원에 도달해 있으므로 이제 곧 나를 따라 출가해도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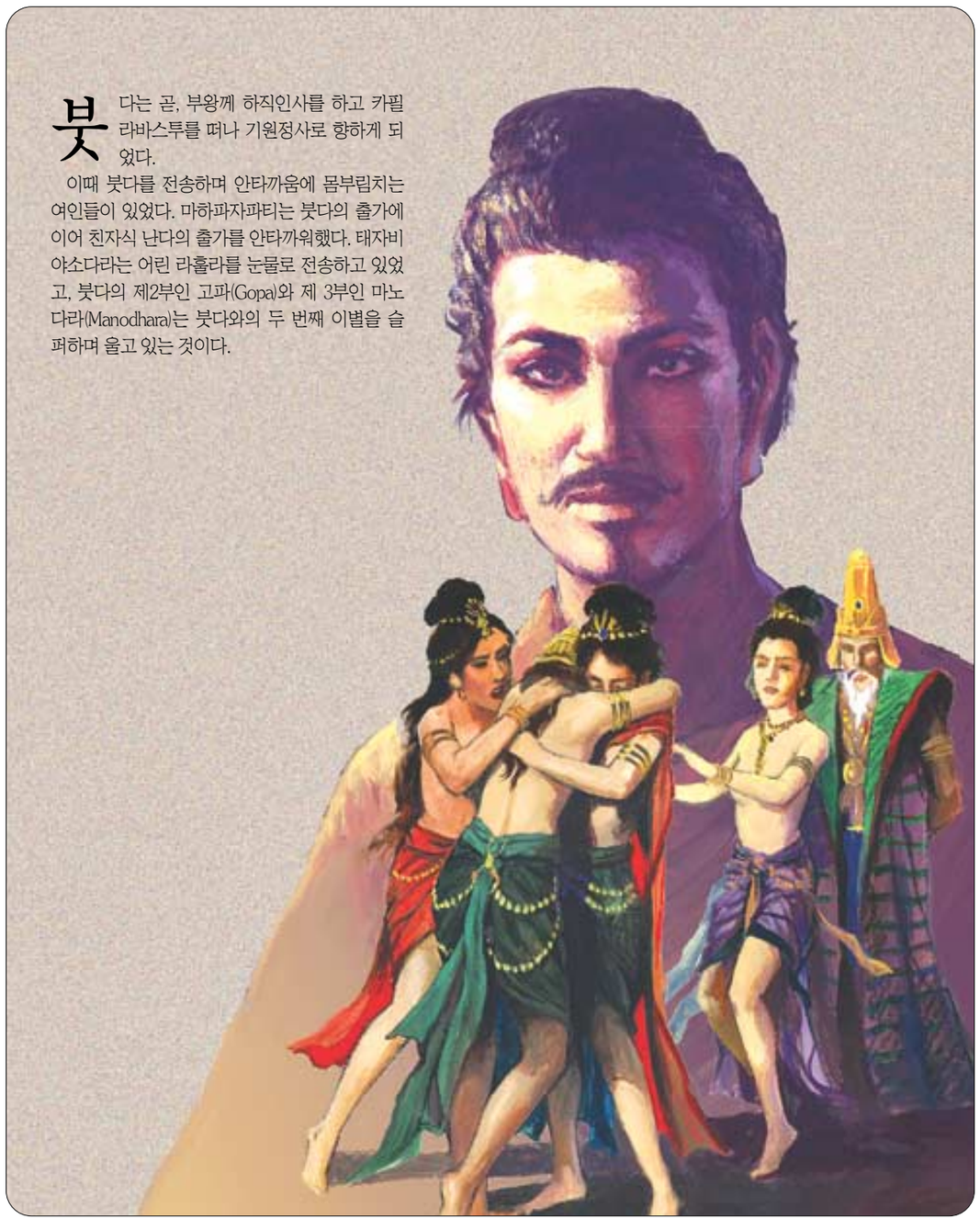
네가 알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앞으로 출가수행을 통하여 하나하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즉, 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에 열중하도록 하라."

"아버님께서…. 아니 붓다께서 제 나이 이제 겨우 열 살에 출가를 허락 하오시니, 소자 더할 수 없는 무상의 영광이옵니다."



붓다는 카필라바스투성에 머무는 동안 법(法, Dharma)을 설하면서 그동안 샤카족을 지배해 왔던 브라만교의 6파, 즉 니야야(Nyaya), 베세시카(Vaisesika), 승카(Samkhya), 베단타(Vedanta), 요가(Yoga), 미만차(Mimansa) 등의 종교철학을 송두리째 뽑아 뒤흔들고 그 교리의 모순을 설명하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동요가 일어났다.

이윽고 붓다의 법(Dharma)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더니 수많은 귀족들이 벼슬과 영화를 버리고 불교에 귀의(歸依)하여 왔다. 그 중에는 붓다의 배 다른 동생으로 다음 왕위를 이어받도록 관정을 받는 난다(難陀, Nanta)가 있었다. 이미 붓다가 출가하여 그의 동생 난다에게 왕위계승권을 주고 그 태자비를 맞이하기 위하여 화려한 결혼식마저 준비 되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나 난다는 붓다의 법륜에 감동하고 결국 붓다를 따라 출가하고 만 것이다. 이리하여 숫도다나왕은 카필라바스투의 왕위 계승권자를 붓다와 라훌라, 그리고 난다까지 모두 잃게 되었다. 숫도다나왕은 붓다에게 왕국의 장래문제를 의논하니, 붓다는 이후 부모의 허락 없는 미성년자의 귀의를 금하게 되었다.



붓다는 곧, 부왕께 하직인사를 하고 카필라바스투를 떠나 기원정사로 향하게 되었다.

이때 붓다를 전송하며 안타까움에 몸부림치는 여인들이 있었다. 마하파자파티는 붓다의 출가에 이어 친자식 난다의 출가를 안타까워했다. 태자비 야소다라는 어린 라훌라를 눈물로 전송하고 있었고, 붓다의 제2부인 고파(Gopa)와 제 3부인 마노다라(Manodhara)는 붓다와의 두 번째 이별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이다.

샤카족의 젊고 유능한 청년들 중 대부분이 붓다의 가르침을 얻기 위하여 붓가를 따라 출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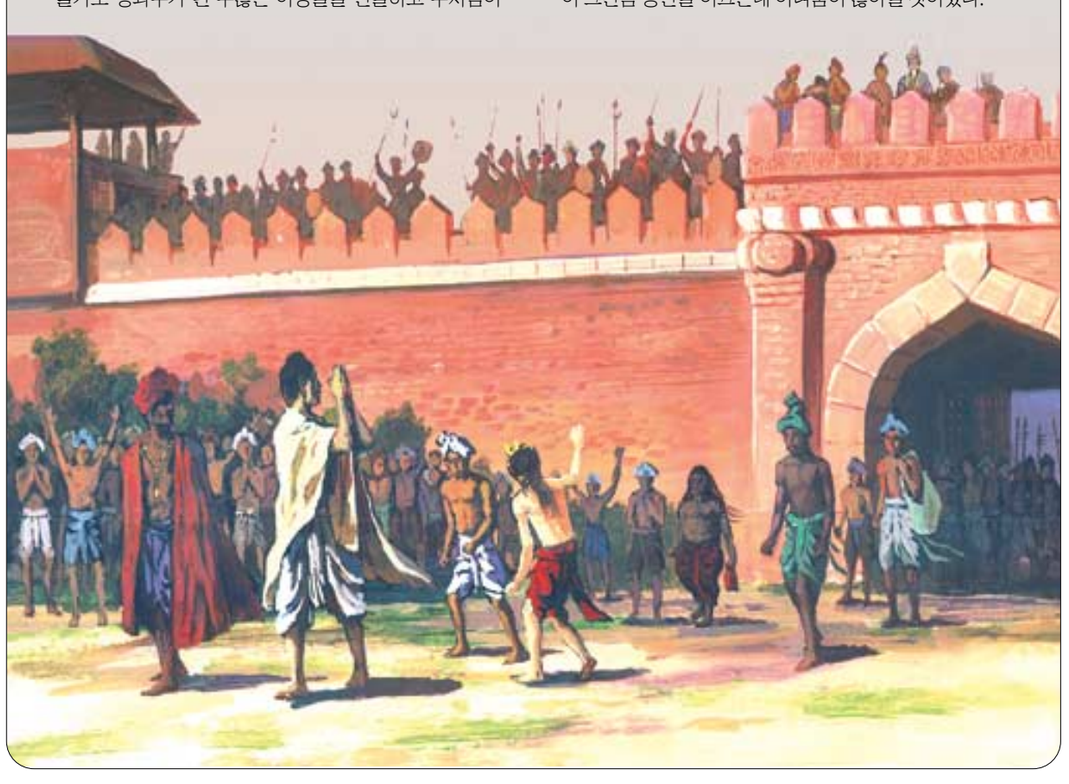
붓다가 기원정사에 머무는 동안에도 지역적으로 가까운 카필라바스투의 사람들은 줄줄이 부처님의 교단으로 출가했다. 이들 중에는 붓다와 사촌 형제 관계인 아니룻다(Aniruddha), 그리고 후일 카필라바스투의 왕위에까지 올랐던 바드리카를 비롯하여 부처님의 제1부인 야소다라의 동생들인 난디카(難提迦, Nanda)와 끝까지 교단을 파괴하려고 공작했던 데바닷타(Tevadatta, 提婆達多), 또 미남으로 이름난 아난다(阿難陀, Ananda) 등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제 나름대로 불교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다.

카필라바스투에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가 일어났다. 숫도다나의 정비(正妃)였으며 부처님의 양모인 마하파자파티는 붓다의 태자시절 정비였던 야소다라와 함께 남편의 출가로 생과부가 된 수많은 여성들을 인솔하고 부처님이 계신 니그로다 동산으로 찾아왔다. 그러나 이미 그녀들의 출가 요청을 세 번씩이나 거절하고 난 후였다.

이번에는 그녀들의 단호한 결심을 과시하기 위하여 전부 다 머리를 깎고 스스로 승복을 만들어 입은 후 신발들을 벗고 맨발로 걸어온 것이었다. 그녀들은 모두 발이 터져 부었고 얼굴은 고통의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여성을 가장 멀리하고 금욕의 생활을 수도 생활의 기본으로 삼고 있던 수도 장소에 여성들이 기어코 들어오겠다고 애원하니 붓다는 고민에 빠지고 말았다. 이것은 여성의 능력 그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출현으로 인하여 승단의 모든 질서가 깨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출가여성(비구니, bhikkhuni)들을 데리고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깊은 숲속에서 수행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선정에 들려는 신심이 약한 비구들이 그 유혹에 흔들리게 되어 그만큼 승단을 이끄는데 어려움이 많아질 것이었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모든 일체의 근본이 한마음 속에 있어

▲사회자: 미처 스님께는 말씀 못 올렸는데, 서울 시내의 여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불자 선생님들이 법문을 듣고자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스님: 우리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뜻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마음이 즉 불(佛)이다' 하는 말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내가 부처라고 하면서 그대로 부처 노릇을 하는 걸까요? '마음이 즉 불이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삼학의 진의도 들어 있고, 두두물물이라고 하는 그 뜻도 거기 들어 있으며, 일체 생활하는 법이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악과 선도 거기에 다 들어 있고 말입니다.

마음,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부처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하는 그 두 가지, 즉 둘이 아닌 그 도리가 얼마나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생명들의 그 의식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색깔도 아니고 불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에 광대무변하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그 뜻을 잘 아신다면 생활해 나가는데 자유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몸은 집일 수도 있지만 자기의 시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듣는 것과 보는 데 따라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의 진실한 그 참마음은 어디 가고 그저 나오는 대로 움직이죠.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화를 내고 누가 조금만 언짢은 말을 해도 화를 벌컥 내는 그 마음, 그 화내는 마음은 뭐며 '내가 이러면 안되지' 하는 마음은 또 뭡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본다면, 마음이 부처라고 해서 나도 부처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아만심을 가진다면 '나'라는 욕심이 들어가서 더 공부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중생들이 누구로 인해서 모두가 뭉쳐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닦아라." 하면 "닦을 게 뭐 있어서 닦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모두 청산유수로 그렇게 말들을 하면서도 진짜 행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다스리면서 점차적으로 가다보면 '허허, 이게 닦을 것도 없고 다스릴 놈도 없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다스리는 놈, 또 다스림을 받는 놈, 그놈들이 따로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몸속에 헤아릴 수 없이 악업 선업이 일어납니다. 그걸 한번 되돌아본다면 과거에 여러분이 지은 바 그대로 입력이 돼서 하나도 남김 없이 낱낱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대로 여러분은 속아요. 바깥으로 끄달려 물질세계에서 속고, 보고 듣는 대로 속아서 끄달리고,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속아서 끄달리고, 그리고 그냥 마음이면 마음이지 왜 한마음이라고 그랬느냐면, 우리 몸을 봐도 한마음이요, 바깥에 모두를 봐도 한마음입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날 때 뼈와 살을 빌려서 몸 하나를 받았지만 과거에 살던 그 인연 인과로 인해서 악업도 뭉치고 선업도 뭉쳐서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요상한지 모릅니다. 참 묘하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조잡하기도 하며, 어떤 때 보면 땅에 붙어 사는 진딧물과 같기도 해요. 우린 한 그릇에 붙어서 진딧물처럼 사는 하찮은 벌레와 같은 그런 기분도 들어요. 나무에 진딧물이 그냥 졸졸이 붙어 있듯이 말입니다. 예전 얘깁니다마는, 어떤 때 그걸 보면서 '아하, 우리 인간도 한 나무에 붙어서 저렇게 진딧물처럼 빨아먹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넓고 앞뒤가 막히지 않고 한마음 한 뜻으로서 오로지 이 세상의 물질이 다 공했다는 그 뜻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과거에 살던 그 인과가, 예를 들어서 남을 이익하게 해서 선업을 받은 것도 있고 남을 악하게 해서 악업을 받은 것도 있는데, 그건 단순히 참회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보고 꿰뚫어서 되는 것도 아니며, 경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못났든지 잘났든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다스리면서 그릇을 비워야 홀연히 맑게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수없이 오고 가면서 공부들을 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질문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한마당입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꽃 한 송이를 든 것이 한마음의 뜻이고, 다자탑에 반좌를 내준 것이 한자리의 뜻이며, 진드기 발 하나도 빼놓지 않는 것이 한발의 뜻이라는 겁니다. 평발! 진드기 발도 발은 발입니다. 그게 평발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은 발. 나무 한 그루가 이 땅에 섰어도 그것도 바로 빼놓지 않음입니다. 평발이라는 것은 부처님 발이 뭉툭하게, 그냥 반듯하게 돼서가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발이 한발로 이 자리를 갈이 디뎠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만이 위대하고 자기 자리만이 자기 자리인 양, 자기만이 우뚝선 것인 양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또 진리가 그러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몸이 있어서 움죽거릴 때에, 실오락지 하나 걸치지 않고 비워진 그 마음이라야 실오락지 하나 버리지 않는 뜻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질문도 하고 그러십시오. 물론 부처님께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차원에 따라서 대기 설법을 하셨지마는 우리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동문서답처럼 여러분한테 던지기도 합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한 10여 년 넘게 산으로 다닐 때인데 어느 날 하도 지쳐서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그믐이어서 캄캄한 밤이었는데 자성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날까지 10년 동안을 다니면서 얼마나 봤느냐?" 그러신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얼마나 봤느냐고 물었다는데요.

▲신도1: 본 것이 없습니다.

▲스님: 무질서하게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어리벙벙했죠. 나를 발견해서 채찍질을 받으면서도 어리벙벙했으니까요. 내가 어린애처럼 탄생이 됐다고 해서 다 자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벙벙하게 가만히 앉았다가 "10년 동안이나 봤어도 하루 본 것만도 못하고 한 찰나 본 것만도 못합니다. 육의 눈으로 아무리 봤던들 무엇을 봤다고 말하리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깜깜한 데를 일어서서 가는데 또 "너는 깜깜한 데 다닐 때 보이더냐, 안 보이더냐?" 하고 물으신단 말입니다. 이 소리는 참고적으로 하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정말 방망이가 들어갈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받아칠 겁니까, 맞을 겁니까?

그러니 이 마음도리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이 커져서 스스로 방망이를 들어야 나도 방망이를 들죠. 여러분이 방망이가 없으면 나도 방망이가 없어요. 낮에 본 건 얼마나 됐냐고 했는데 또 밤에 본 건 얼마나 봤느냐는 얘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낮에 본 것은 얼마나 되며 밤에 본 것은 얼마나 되느냐?' 고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지껏 공부했으면서 뭐라고 대답도 못해요.

▲신도2: 순간순간 돌아가는 마음 아닙니까?

▲스님: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도3: 밤낮이 들이 아니다.

▲스님: 밤에 본 건 얼마나 보고 낮에 본 건 얼마나 봤느냐는데 무슨 엉뚱하게…. 아니, 사발에 담을 걸 조그만 종지에다 담고 접시에다 담고 있으니 그거 될 말인가요? 물은 어엿하게 컵에다 담아야 하고 밥 먹을 땐 숭늉을 대접에다 담아야죠. 밥은 주발에다 담든지 공기에다 담든지 그러구요. 요샌 또 접시에다 다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접시에다 먹든지 주발에다 먹든지 그런 것은 흠잡지 않을 테니까 대답을 좀 해보라구요. 대답할 수 있는 대로 해봐요.

▲신도4: 스님 질문에 답변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 마음공부를 하면서 느낀 바를 스님 질문에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제 마음을 보면 낮에도 수없이 봅니다. 그리고 역시 꿈에도 보고 제가 느낄 때는 봤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꿈에도 제가 제 몸을 중심으로 나라고 생각했을 때 나하고 상관없이 수없이


그림 · 최주현

주인공 죽는 법은 없어요
맡겨 놓고 그놈이 한다는 걸 믿는다면

지금 금방 죽는대도 방황할 게 없어요
그게 바로 힘이에요


그림 · 최주현

풀 줄 모르면 뭐든지 불평이고 생활에서 부딪쳐 봐야 알고, 저는 말 못하는 짐승하고 부딪쳐 봤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인데도 내가 사납게 하면 짐승도 사납게 하더군요. 내 마음을 그 짐승한테 쥐 봤더니 그 짐승도 가만히 있습디다. 한번은 소가 별안간에 막 뛰고 그러더라구요. 소가 뛰면 소도 다치고 저도 다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쥐가면서 달래고 있는데 그 순간 내가 넘어졌습니다. 소에게 마구 짓밟히는데 그때 내 마음을 주지 않으면 소도 죽고 저도 죽게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흙구덩이에 쓰러져 순간 마음을 냈더니 소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에게 짓밟혀 멍이 들었지만 소한테 치여서 논에 쓰러져 부딪혀 봤더니 소도 그제서야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법이란 것이 참 쉽고도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졸졸 모르면 말 못하는 짐승도 나한테 피해를 주더라구요.

▲스님: 마음공부의 수행을 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도7: 스님의 그 말씀은, 밤에 본 것이 얼마나 있으며 낮에 본 것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밤에 봤다는 것은 수천 수만의 별들을 보았어도 그 본 것이 없고 또 낮에 많이 보았다 해도 그 나름대로 지워나갔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했는데 마음이 있으면 좀 내놔 보세요.

▲신도7: 마음도 그 마음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뿐입니다.

▲스님: 잘 다듬어요. 그 뜻은 아주 갸륵한데, 다듬어야겠어요. 알았죠? 무배추를 갖다 놓고 양념해서 김치를 맛있게 담가서 먹게끔 하란 말입니다.

아까 처사님이 소와 함께 실천해 가고 있다고 했는데, 옛날에 어느 절에서 있었던 얘깁니다. 내가 20대의 얘긴데 스님네들이 단식해 가면서 참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단식을 하면서 정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스님이 일어나더니만 "사람의 코는 내리뚫렸는데 왜 소의 코는 치켜뚫렸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소는 치켜뚫려 있기에 빗물이 전부 들어가서 코가 막혔다 이겁니다. 그 중간을 내가 빼놨으니까 얘긴데, 그때 다른 스님들이 공부를 하다가 무릎을 탁 치고 껄껄대고 웃으니까 그 위에 있는 절로 막 뛰어 올라가서 스님들한테 얘기해 가지고는 법상을 턱 차려놨습니다. 그래 앉혀 놓으니까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사람의 코는 내리뚫려서 비가 안 들어가고 먼지도 안 들어가서 막히질 않는데 소 콧구멍은 막혔으니 그것은 무슨 연고인 줄 아느냐고 악을 벽력같이 쓰더라 이 소립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죠? 여러분이 모르면 나도 모르죠 뭐. 그렇게 설법을 했는데 알아야죠. 벽을 치면 봇장이 올려야지요. 어쩌면 그러십니까?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기가 발현되지 않고는 대답을 못해요. 이런 말을 해도 척척이고 저런 말을 해도 척척 갖다 붙이는 대로인대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신도8: 보았다고 하는 그 말에 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데에 있기 때문에 봤다고 말을 하면 본 것이 아니기에 그냥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밤은 빛이 없기 때문에 밤이지 낮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서 봤다 안 봤다 하는 그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에 집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 지금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은 말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아야 해요. 대신 내가 밥 먹어 줄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당신만이 알 수 있고, 당신만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안 보고는 네가 알아서 다 증명할 수 있다.' 하고 믿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한테 채찍질을 하느냐 하면, 우리 한생각이 이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도리를 부처님께서 가르치셨기에 그 진리의 진의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낮에 아무리 봐도 다 보지 못해요. 다 보기는커녕 오히려 산란심만 일으키죠.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것은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로 듣고 보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듣고 보는 것만이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제일이다 해도 한데 모아서 한생각이 두뇌로 올라가면 두뇌에서 결정을 짓는 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팔이 이렇다, 다리가 이렇다, 눈이 이렇다, 귀가 이렇다, 이런 말 할 것 없는 대답이라야 된다 이 소립니다.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밤이나 낮이나 다니다 보니까 밤도 밤이 아니고 낮도 낮이 아니더라구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다라는 뜻은 전부 공해버렸는데 밤이 아니다 낮이다, 낮이 아니다 밤이다 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까부터 얘기한 게 다 가버리고 없듯이 한 사이가 없고, 우리가 지금 살아도 사는 사이가 없고, 가도 가는 사이가 없고, 와도 오는 사이가 없고, 봐도 본 사이가 없고, 들어도 들은 사이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들었을 때 내가 들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모두가 공했기 때문에.

나라도 손바닥만 한데 반동강이로 잘렸을 뿐 아니라 전자에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시달리고, 중국 사람들한테 시달렸으며, 사글세방에 세들어 가지고는 시달림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무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나 어려서만 해도 너무 비참해서 신발도 못 신고 반쪽이 다 달아나간 걸 앞에만 걸쳐 신고 다닌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때 뭘 먹고 어떻게 살았든 지금은 좋은 것을 먹고 풍족하게 잘 살아서인지 귀한 줄을 모르죠.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하면 다 내다버리고 그럽니다. 너무 흔하니까요.

흐르는 물소리 들어보고, 흐르는 물을 보셨죠? 또는 물이 얼기도 하고, 파도가 치기도 하며 잔잔하기도 하죠. 온통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죠, 사계절을 다 볼 때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나 아님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물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아주 숙연하게 잔잔해집니다. 반면 파도치는 걸 보면 아주 산란해집니다. 그러니 이것도 스승이요, 저것도 스승이죠. 가을에 낙엽이 져서 똑똑 떨어지는 걸 보면 구슬퍼지고 날이 추워도 아주 구슬퍼지죠. 이렇게 간사해요. 그래도 그런 마음의 변화가 간사한 게 아니라 철칙이란 말입니다. 저 나무들이 볼 때는 모두가 나갈이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갈이 살란다고 해서 내가 그냥 다 좇아가다 보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좋으면 그것대로 또 같이 살면서 넘어가고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올 때도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은 본 게 없습니다. 왜 본 게 없느냐? 그 눈 가지고는 금방 보고 금방 넘어가고 금방 보고 금방 넘어갔기 때문에 담아두질 않았어요. 담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심안으로 봐야만 전체를 보겠죠. 그런데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걸 보기는 하나 듣지 못하면 또 안 되죠? 만약에 귀머거리가 보기만 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텔레비젼이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화면에 그림만 나오고 말이 안 나오는 그런 격인데 그럼 무슨 재미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들리긴 하나

☞30면으로 계속

☞29면에서 계속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보이질 않으면 이 또한 안 되죠.

그래서 천안통 천이통 이렇게 말한 거죠. 보고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남의 마음을 모른다면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네? 그런데 사람과 사람끼리만이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을 소에게 주면 소가 내 마음과 똑같이 되는 거죠. 소 마음을 내 마음 속에다 넣으면 내 마음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의 차원이 개구리 마음이라면 내가 개구리가 돼 줘야 한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돼지라 하면 내가 돼지의 마음 그릇하고 똑같이 되어야만 돼지하고 한마음이 될 거라 이겁니다. 내가 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물과 한마음이 되듯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한마음이 아니라, 사람뿐만 아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태양하고도 그렇고 금성이나 수성, 달, 모두가 그렇죠. 우리 인간들도 다 그렇고 무정물 식물 할 것 없이 일체 생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왜 '심즉시불' 이라고 하셨느냐면, 그렇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아야 한마음이 돼서 그 그릇에 딱 맞추죠.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를 넣어도 그릇이 모자라지도 크지도 않더라. 삼천대천세계를 씨앗 하나에 넣어도 맞고 큰 그릇에 다 넣어도 맞고, 그러니까 꺼내도 줄지도 않는 것이요, 그릇이 비지도 않는 것이요, 또 아무리 넣어도 그릇이 모자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두드러지지도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소의 차원하고 똑같아야만이 한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걸 만나면 이 그릇에 맞춰서 하나가 되고, 저걸 만나면 저 그릇에 맞춰서 하나가 되고 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데, 보이는 것만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중생 마음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지옥에 아귀 축생도 그 그릇대로 맞추어 하나가 되어서 부처님 마음이 그 중생 마음속에 드시니 마음이 그냥 밝아지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차디찬 물에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그대로 따뜻해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는 반면 저항력을 느낄 테니까 찬물에다 찬물을 부어서 뜨뜻하게 하는 겁니다. 뜨겁게 할 수도 없고 차게 할 수도 없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뜨겁게 할 수도 있고, 차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많게 할 수도 있어서 마음대로 차원에 알맞게 들고 나니 어느 것 하나도 부처님이 아니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마음을 알려면 과거를 알아야 하는데 숙명통은 과거에 어떻게 지내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뭘 어떻게 저질렀는가를 한순간에 알아내는 거죠. 두고두고 심판을 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팩시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부처님의 그 뜻, 가고 옴이 없이 그렇게 광대무변하게 펼칠 수가 있느냐 하는 그것도 되고, 어느 것 하나 건져주지 않은 것이 없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싹 외면하고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서 마음으로 딱 가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부 부처님이 아닌 분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개구리도 바로 자기인 까닭에 다 건져줬어도 건져주었다 할 것이 없느니라 하는 뜻을 잘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들이 아닌 까닭에 받았다 할 것도 없느니라 한 것이죠. 누가 죽는 걸 보면 슬퍼서 또 울어지듯이, 그렇게 몸속의 의식들이 다 그렇게 작용을 해요. 어떤 때는 잘못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등 그냥 매사 그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온통 그것을 다스리면서 모든 걸 거기다 맡겨 놓는다면 점점 녹아버리는 것이죠. 맡겨 놓는 자리는 숙명통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나오는 대로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다 되놓는다면 그게 다 무너지면서 홀연히 밝아진다 이겁니다.

생각을 가만히 해 보세요.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묘한지, 금요일까지 일을 하다가 토요일이 되고 일요일이 되면, '아, 일요일이 됐으니까 좀 늦게 자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나면서 그냥 푹 자버려요.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 먹는 대로 모든 게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깥에서 보고 듣는 걸로 속지 말고, 안에서 그 놈들이 나와서 화내게 하고 또 가게 하고 오게 하는 그것에도 속지 말라는 것이죠. 술을 늦도록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이 안 좋아할 테죠. 또 여자들도 남편과 애들 밥도 안 해주고 저녁 늦도록 있다가 들어가면 식구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양쪽이 다 좋지 않을 거라구요. 그러니 그건 악업이지 선업이 못돼요. 남의 마음을 그렇게 언짢고 괴롭게 만들어 주고 그게 선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 하나 다스리면 그냥 저절로 선지식이요, 그대로 훤히 밝아질 것이요, 그대로 중용을 하고 죽은 세상 산 세상을 한데 합쳐서 요리를 하니까 이 속에 들은 의식들도 전부 한마음으로 따라주게 됩니다. 바깥에 있는 마음도 다 자동적으로 조절이 돼서 한마음으로 지배인의 말을 듣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주장자 아닌 주장자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치는 그런 일이 있죠. 꼭 때려서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번 사람한테 맞은 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도 보이지 않는 데서 부처님이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그 업보에서 다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 방망이 때리면 아주 고통스럽겠지요. 물질을 가진 것은 다 고통스러울 거라고요. 우리가 물질에서 벗어나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얕잡아 보지 마세요. 하나하나가 전부 나 아님이 없고 내 가르침 아님이 없고 내 스승 아님이 없어요. 그래서 나쁜 건 나쁜 것대로 하지 말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하고, 내가 조금 밑지더라도 남을 이익하게 하면서 폭넓게 마음을 쓴다면 그대로 부처가 될 거 아니겠소. 이판사판이란 말이 있듯이 어차피 죽을 거라면 아예 살아서 죽으라고요. 살아서 죽지 않으면 열반이라는 이름 그 자체도 없어요. 열반이라는 것도 이름이거든요. 부처라는 것도 이름이니까요. 그 이름 아닌 그 속의 이름…. 그런데 더군다나 부처라는 소리, 보살이라는 소리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질문자1: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알고 싶은 욕심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물질을 쪼개보는 기술도 자꾸 높아져 가서 이제는 더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질량이 거의 없고 수명이 지극히 짧은 입자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인간은 유의 세계의 궁극에 이르러 무의 세계를 넘어가는 문을 발견할 수 있을는지요.

▲스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단군 할아버지도 그 법을 가르쳤고 사대 성인들도 다 가르쳤어요. 지금 내가 말하듯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와 같은 교차로에 죽음과 삶이 있듯이, 우리 지금 세상이 물질세계로서의 과학으로 발전이 돼 가지고 문화 문명이 아주 고도로 발전이 됐지만 지금은 거꾸로 다시 돌아와서 정신세계의 교차로를 넘어서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공부 하는데 그 교차로를 넘어서듯, 들이고 내는 한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물질세계로 지금 팽창되느냐 정신세계로 지금 진화돼서 우리가 발전을 하느냐 하는 문제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이지 우리가 한마당 한식구가 되죠. 세계 평화가 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한 것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신데 뭐 걱정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내고도 못 믿죠? 의심하지 말고 지켜보세요. 지금 물어보듯이 내가 이 공부를 하면 진짜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이런다면 되겠소?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들고 이 물을 먹어야 할까 먹지 말아야 할까 이런다면 목마른 게 다 없어져요? 물을 먹을 수 있겠소? 그러니까 목마를 땐 무조건 먹는 것이 장땡이에요. 그리고 물을 먹기 싫을 때는 안 먹고 놓는 게 또 장땡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내지 말고 모든 걸 맡겨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에 한생각을 내라 이겁니다. 그 무슨 소리냐 하면, 모든 것은 망상이 아니라 그것은 순리적으로 공해서 돌아가는 거요, 순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니겠소. 생각하고 또 딴 생각 하고 또 생각하고 꼬리가 꼬리를 물고 자꾸 돌아가는데 그게 망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내 몸 나온 거 들어간 거, 사는 거, 예요. 육조 스님도 그렇고, 다. 또 놓고 공부해 가지고 자꾸자꾸 보임(保任)을 해서 들어가죠.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는 부처님처럼 '야, 요만한 것에는 나도 요만하게 응해서 한마음이 되어 주고, 또 조만하면 조만한 대로 한마음이 되어 응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면서 내가 돼 줄 수 있고, 크나 작으나 다 내가 돼 줄 수 있고 한마음이 돼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어떤 큰스님이 말씀하셨듯이 "3년을 눈 뜨고 푹 쉬면 된다. 그러면 들이 아닌, 차차 열반경지로 그냥 곧장 들어가는 길이 나오느니라." 그러셨듯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묻기를 바라지, 뭘 맞춰서 이 대답을 하면 맞을까 안 맞을까 하고 생각해서 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안 틀리는 것도 법, 틀리는 것도 법인데 틀리면 어떻고 안 틀리면 어때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게 어딨어요? 산에 올라가 봐요. 벌레먹은 고목도 있어야 조화를 이룬다고요. 그게 바로 부처님 법이라니까요. 잘하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욱더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어린애면서 장래의 어른인 그 애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가 지금 물질과학이 고도로 발전이 돼서, 아주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앞으로 어떡하느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애들을 가르치는 것도 마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뜻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듣고 하는 걸로만 모두 가르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지요.

그것뿐인가요?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따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는 게 아니고 지속되는 거죠.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자에 역대 조사들이 그렇게 다녀가셨는데 왜 지속되지 않겠느냐? 별도 겉껍데기만 싹 벗고선 그대로 또 밝아지듯이, 인간도 겉껍데기 벗겨지는 거는 진리를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괜히 옷 벗는 게 아니에요! 새 옷 나오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지구라는 집 한 덩어리 놓고는 진딧물처럼 붙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을 우리가 헐어버린다, 부서진다, 망친다, 그리고 팽창되면 되는대로 나빠지고, 또 타버리면 타 버리는 대로 나빠지고 이래선 안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태양보다 더 크고 밝고 영원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위로는 묵은 빚을 갚으면서 아래로는 햇빛을 주면서 빛이 되게끔, 그 뿌리가 썩지 않고 영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변함도 없어요. 금이라는 게 변함이 있나요? 금은 금이듯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근본이 바로 인간 마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마음의 근본은 땅속 깊이도 한정이 없고 물속 깊이도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한 자 한 치도 안 틀리고, 그렇게 한정이 없기 때문에 고기들도 다 살고 있지 않아요? 태양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쥐구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태양이 좋다 하더라도 물 밑에 들어가서 그 생명들을 다 살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발전소가 있죠. 그래서 바다의 묘미는 바로 자가발전소가 있다는 겁니다.

돌아돌아 수없이 비가 내리고 우리는 그것을 또 먹고, 그것이 눈물로도 나가고 콧물로도 나가고 땀으로도 나가서 증발이 되어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올라가, 올라간다 내려온다 할 것도 없죠. 그러니 그 또한 한마음 속의 작용이다 이겁니다. 모든 일체 근본이 바로 이 한마음 속에 있으니 한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57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나를 다스리면서 그릇을 비워야 홀연히 맑게 나를 발견할 수 있어

내가 조금 밑지더라도 남 위해 폭넓은 마음 가지면 그대로 부처가 되지요

우리의 마음이 태양보다 더 크고 밝고 영원한 줄 알아야

기쁘든 언덕을 넘든,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모들 작품 보고 싶을 땐

인터넷 접속

상설전시 · 정보제공 사이트 증가

불교미술 대중화 · 포교에도 한몫

중 · 고등부 학생회 활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신행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는 김영균(38 · 경북 김천 거주)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에게 전통문양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으나 주변에서 쉽게 자료를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직접 사찰을 방문해 단청문양을 딸에게 보여주었다.

충남 논산에 사는 정민호(31)씨는 불교미술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지방에서 불교미술에 대한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다. 전시회도 거의 대도시에서 개최되고, 불모(佛母 부처님을 조성하는 사람을 뜻함)들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이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최근 들어 불모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초(탱화의 밑그림)에서 완성본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교미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특히 자신들이 개최한 전시회 작품들도 해설을 곁들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 불교미술의 저변확대 뿐만 아니라 불교포교에도 큰 효과를 얻고 있다.

달마도로 유명한 범주스님은 달마선묵 사이트를 개설하고 달마도에 대한 기본 이해는 물론 그동안 개최한 전시회 자료에서부터 최근 신작까지 화보형식으로 제공하며 다양한 작품세계를 네티즌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달마선묵은 홈페이지 디지인이 선적인 여백의 미와 스님의 작품이 어우러져 있어 메인화면부터 많은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신 미술인들이 모인 동국불교미술인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불교미술세계를 엿볼 수 있다. 박찬수, 곽동해, 김광현, 김화수, 김의홍, 박갑용, 박현수, 전연호, 한승구 등 대표적인 불모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국불교미술인회 홈페이지에는 5개의 상설 사이버전시회 코너가 운영되고 있다. 불교미술관련 세미나 자료, 국내외 불교문화유적답사 등의 다양한 정보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어 불교미술에 관심있는 네티즌이라면 꼭 방문해 보아야 할 홈페이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인 박찬수씨의 경우 목아박물관(www.moka.or.kr)을 개설, 작품 소개는 물론 사아버 공간에서 문화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찰에서 만나는 불교미술 홈페이지는 부다피아 사이트의 한 부분으로 불상과 불화의 의미, 불교공예, 단청 등 다양한 불교미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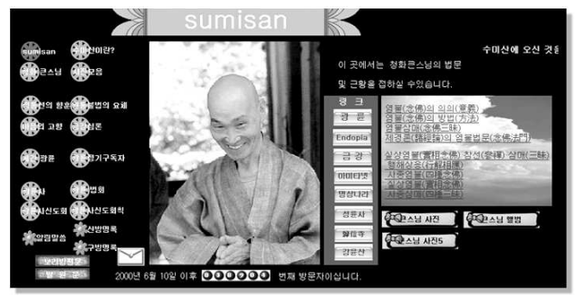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범주스님의 달마선묵	dharma-art.or.kr	사찰에서 만나는 불교미술	buddhapia.com/buddhapi/kor/hanbul/culture/art/index.html
동국불교미술인회	donggukart.org		
박정자 홈페이지	buddhapainting.co.kr		
한국단청연구소	danchong.co.kr	한국불교미술원	bulgyoart.co.kr
대성조각	buddhism.pe.kr	동성의 구도일기	zenartist.com
대승불교미술원	mandala21c.com	코리아 달마	koreadharma.com
만다라불교미술원	mandala.pe.kr	불교미술전시관	buddha.co.kr

우리절 digital · cyber 불사

서울 도봉산 광륜사

신도들의 자발적 참여가 비결



◇청화스님의 법문을 제공하는 사이트 수미산의 초기화면.

"이곳에서는 청화스님의 법문 및 근황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수미산 홈페이지(sumisan.hihome.com)에 접속하면 이같은 환영 문구를 볼 수 있다. 2000년 6월 오픈한 수미산 홈페이지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배광식 교수가 청화스님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 만든 개인사이트였다. 그러나 2001년 5월 서울 도봉산 광륜사가 개원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광륜사 홈페이지의 역할을 대신해 왔다.

신도들의 자발적 참여도 광륜사 사이버 법당의 장점이다. 처음에는 신도들이 자유게시판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불교정보를 교환했다. 그러나 신도들의 커뮤니케이션 욕구가 증가해 지금은 자발적으로 다음과 프리챌에 커뮤니티 사이트를 개설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륜사는 최근 사찰 홈페이지와 별도로 아미타넷(www.amita.net)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사이버 포교에 나섰다. 아미타넷에서는 불교

수미산- 청화스님 법문, 근황 소개 인기

아미타- 넷어린이에 맞춘 만화, 게임 제공

환영인사에서도 금방 알 수 있듯이 수미산 홈페이지는 청화스님의 법문과 근황, 광륜지 등의 법음을 전해들을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청화스님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승이라는 점 때문에 광륜사 신도는 물론 많은 네티즌 불자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다. 방문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코너는 역시 청화스님의 법문과 저술. 스님이 그동안 저술한 금강심론, 원통불법의 요체, 마음의 고향 등 법문집의 전문이 모두 소개되어 있다. 또한 청화스님의 법문을 녹취한 전문이 올려져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의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고, 동영상 및 오디오 법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 네티즌 불자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아미타 어린이 코너에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법문과 불교만화, 게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커뮤니티도 일부 개설이 되어 불자들이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광륜사는 개원할 때부터 사찰 종무행정에도 많은 투자를 했다. 나이 많으신 노보살을 위해 신도카드를 두긴 했지만 사찰종무행정 프로그램인 금강장사를 도입, 신도관리 등 사찰 종무를 전산화 했다. 김두식 기자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달람살라넷 (http://www.dharamsalanet.com)



달람살라넷은 티베트 불교 포털사이트다. 티베트불교의 역사, 문화, 예술, 뉴스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

달람살라넷에서 가장 인기있는 콘텐츠는 바로 웹 라디오. 티베트 망명정부에서 후원하고 있는 웹 라디오는 티베트에서 인기있는 음악이나 전통 티베트 불교음악을 365일 들을 수 있다. 티베트 관련 사이트들을 소개하고 있는 티베트 커뮤니티도 티베트 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네티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그 외에도 명상센터, 티베트 여행정보 등의 코너들이 있다.

게시판 엿보기

⊙ 살아가면서 좋아지려는 사람이 곁에 있어 만나고 사귀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곁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한 미소가 번지지요.
아사달,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자유게시판

⊙ 북한산을 지켜 생명의 세상을 열겠다는 그들의 결의에 눈물이 돈다. 그들의 비원은 개발과 파괴의 우리들 세상에 새벽을 알리는 범종처럼 다가온다. 아름다움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에서 그들의 결의가 눈부시도록 아름답다.
성전스님, 붓다뉴스, 자유게시판

⊙ 구미 모보살(청정행보살님) 입시 수험생 아들 딸 기도하신다고 해인사 갔다가…. 붉게 타고 있는 단풍물에 가슴에 3도 화상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11월 법회에서 불을 끄지 못하면 팔만대장경이 온통 붉게 탈 위기에 있다고 하니, 우리 법우님은 법회에 꼭 참석하셔야 겠습니다.
해인심, 행인사수련동문회, 우리들의 이야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이혼예방센터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정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혼예방센터]에서는
한 개인으로서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체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더불어 가정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있는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모든 가정이 행복할 때 우리사회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예방센터는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사회(정토사회) 만들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혼예방센터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상담전화:02)735-0407
이 메 일:kwba@orgio.co.kr
요일및시간:월~금 10:00~16:00
이혼예방센터
소장 김묘주 합장

행복한 가정 상담소
행복한 가정은 건전한 사회의 터전입니다.
주부여러분!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고민을 함께 나누어요.
남편으로 인한 고민
시댁 식구로 인한 고민,
자녀들로 인한 걱정 들을 함께 고민하면
마음의 짐이 줄어듭니다.
'행복한 가정 상담소'와 함께
가정문제를 의논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상담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일동
상 담 방 법
상담전화:02)735-0406
상담면담:미리 예약함
이 메 일:kwba@orgio.co.kr
시 간:월~토 10:00~17:00
불교가정폭력상담소

" 1가정 1컴퓨터 시대" "전 국민 네티즌 시대"
귀사의 홈페이지로 승부를 걸어 보세요
잘 꾸며진 홈페이지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발전합니다. 지금껏 홈페이지제작을 망설여 오셨다면....
(주)아이코스솔루션과 상담하십시오.
■ 컴퓨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 컴퓨터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별도의 인건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 적은 투자로 엄청난 홍보가 시작됩니다.
고 품격의 홈페이지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제작진은 최저 60만원 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귀사의 기획의도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제작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버 대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아이코스솔루션은 서버 임대사와 제휴를 통해 웹 호스팅 기초비용을 월 5,500원(리눅스) 월 11,000원(NT)부터 제공해 드리며 할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홍보 기획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업홍보물 기획은 전문가에게 맡겨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코스솔루션은 최상의 기획전문가를 통해 페이지당 기본 50,000원 부터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마음을 여는 홈페이지 기획, 제작 전문업체
㈜아이코스솔루션 http://www.eyecos.com
☎ 031)836-0992 FAX : 031)836-0993 E-Mail : eyecos@eyecos.com

인도그림기행

24 그림·글 이호신

고통없는 세상 이루고자…



고행산에 핀 지구촌 사랑

(전정각산과 수자타 아카데미)

인간은 황량한 산이나 벌판과 마주치면 순수해 진다. 모세가 신의 계시를 받은 시나이산과 그 주변의 돌산 풍경은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예수가 40일 동안 기도했던 사막지방과 홀로 악마의 시험을 받았다는 여리고의 산도 그랬고, 부처가 6년간의 고행을 끝내고 올랐다는 전정각산(前正覺山)도 그랬다. 모두 물 한 모금 얻기 힘든 열악한 돌산, 사막이었다.(이지상)

전정각산.

단식하던 싯다르타가 수자타의 공양으로 육신을 추스린 후, 이를 오해한 다섯 비구와 헤어져 홀로 올랐다는 황량한 바위산. 붓다가 정각(正覺)을 이루기 전에 머무른 산이라하여 이름 지어진 산은 현지에서는 '마하칼라산'이라고 부른다.

그 산을 찾아가는 길목에서는 열악한 삶의 흔적과 뜻밖의 풍광이 펼쳐진다.

쇠똥을 다닥다닥 붙여 놓은 담장과 집벽이며 초가지붕에 늘어놓은 빈대떡 같은 갈색의 쇠똥 물결이 지천이다. 한편 강가엔 빨래하는 이들이 빼곡한데 물가 위 벌판에 펼쳐놓은 원색의 사리들은 마치 지상의 모자이크요, 거대한 조각보로 대지미술의 극치를 보는듯하다. 그러나 이내 감상을 접어

가난과 험난함으로 이루어진 돌산
티베트사원 건립되어 기원의 터 되고
사랑 실천 학교 '수자타 아카데미'
배고프고, 아픈 이에 삶의 큰 희망

야할 까닭은 유난히 빈곤한 비하르(BIHAR)주의 현실 때문이다.

초기 불교 유적지가 가장 밀집돼 있는 비하르주가 유독 가난한 까닭은 무엇일까. 싯다르타가 올랐다는 험난한 돌산, 전정각산을 오르면서 느끼는 감회는 남다르다. 그래서일까, 산속 붓다의 그림자가 드리웠다는 유영굴(留影窟)의 불상이 새삼 고뇌에 차 있는 느낌이다. 이런 산은 현재 유영굴 주변에 티베트사원이 건립되어 삭막한 곳이 붉은 승복 행렬로 기원의 길목이 되고 있다.

한편 산을 내려오면서 다시 맞닥뜨리는 빈곤과 기아. 그러나 그 가난 퇴치를 위한 파수대가 있으니 이른바 '수자타 아카데미(Sujata Academy)', 지구촌 사랑을 실천하는 학교이다.

동 터 오르는 전정각산을 휘히 마주 보며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삶의 의욕과 희망을 보게 하는 사랑의 전당은 한국 제이티에스(JTS) 민간기구에서 마련했다. JTS(Join Together Society)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만나, 각자가 가진 것을 내어 놓아 인종, 종교, 민족, 남녀, 사상, 이념에 관계없이 작은 힘이나마 함께 모아 뜻을 나누고자 하는 모임이다.

1993년에 건립된 수자타 아카데미는 '마을개발과 교육, 의료사업'을 병행하는데 '배고픈 이에는 밥을, 아픈 이에게는 치료를'이라는 목적으로 출발한 이후 점진적으로 그 뜻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1200평의 학교부지에 초·중등 과정과 기술학교 개원, 훈련된 현지인과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이 교사를 맡는가 하면 인근 16개 마을에 14개의 유치원(Sujata pre-school)을 설치하여 1천여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취학전 교육을 실시하며 마을 개발, 의료사업, 여성 취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자타 아카데미를 졸업한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개원한 기술고등학교(Sujata Techical school)는 3년 과정으로 건축, 전기기계, 의료, 농업, 가정과 등으로 현장실습과 이론을 병행, 학습시킨다고 한다.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14시간 이상 휴일도 없이 자원봉사 한다는 말을 전해주는 최태숙(38)씨. 5개월째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그녀는 일에 파묻혀 지내다가도 동포들의 방문에 큰 힘을 얻고 보람을 느끼지만 헤어질 때면 진한 향수로 일행을 따라나서고도 싶다는 솔직한 표현이 더욱 인간적이다. 일행들 모두 그 진한 감동에 주머니를 털어 갸륵한 뜻을 격려하며 고행산에 피어난 지구촌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은 잔잔한 기쁨에 희열마저 느껴야 했다.

정성을 다해 지은 교실과 실습실을 돌아보다가 나는 한국 JTS가 발행한 '우리가 함께여는 아름다운 세상' 팸플릿을 최씨로부터 하나 얻었다.

이런 세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고통이 없는 세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배고파도 먹을 수 없고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고
배울만한 나이의 어린이들이 제때에 배울 수 없는
기아, 질병, 문맹의 고통이 없는 세상
불구자라고 차별받은 신체장애의 고통이 없는 세상
가뭄이나 홍수, 지진, 무더위나 강추위 등으로 고통을 겪는
자연재해의 두려움이 없는 세상
여자라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남녀차별이 없는 세상
피부가 붉다고 피부가 검다고 천대받는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
저희들은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가지가지 이런 고통이 없는 세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태양을 보고도 달을 보고도 별빛을 보고도
한 그루의 나무를 보고도
오늘 한 그릇 밥을 먹을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사랑의 물결,
베푸는 기쁨으로 충만될 수 있는 이 길에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낯선 외국인만 보면 뛰어가 한 푼의 동전을 구걸하던 아이들이 배우기 위해 학교로 모여들고, 불치의 병을 앓던 이들이 회생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구촌의 성지. 수자타아카데미는 그 옛날 사경을 헤매던 싯다르타를 구해준 수자타의 자비정신으로 누리에 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몇몇 한국 자원봉사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길을 떠나려니 그들은 우리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준다. 아, 하늘아래 어여쁘고 거룩한 손. 자비의 화신이여. 그대, 아름다운 영혼들이여!

lhs1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인도 불교성지 순례자는 반드시 이 책을 준비해야 한다!

"인도 불교성지 순례기도문"

불자라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꼭 다녀와야 할
'인도 불교성지 순례', 무엇보다 충실한 사전준비가
순례의 뜻을 더욱 깊게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인도 불교성지 순례기도문'이 순례에 나선 모든 불자님들을
잘 인도하여, 신심과 기쁨을 한층 키워줄 것입니다.

"부처님, 저희들도 부처님같이 살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 부처님같이 살아야 해요.
만분의 일이라도 부처님같이 살아야 합니다…" – 본문에서

인도 불교성지 순례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꼭 이 한 권의 책을 들고 순례 길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달공 조흥세(전국신도회 고문)



저자 | 김재영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학과와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졸업하였다. 서울 동북여고에서 33년간 봉직하였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를 역임하였다.
1970년 미리 동덕불교학생회와 청소리회를 창립하여
지금까지 지도법사로 있으며, 1984년부터 현재까지
동방불교대학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은혜속의 주인님세」
「무소의 뿔처럼」·「365일 부처님과 함께」
「우리도 부처님같이」·「민족종도론」·「경덕스님의 생애와 사상」
「만소리 불타전」·「초기불교개적사」·「붓다의 대승건설운동」 등 다수가 있다.

신국판 / 368쪽 / 값 9,000원
※ 단체에서 10권 이상 구입하면 할인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dopiansa (전화)031-676-8700 / (전송)031-676-8704 / E-mail : dopiansa@kornet.net